

기본연구과제 2002-06

서해안시대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촉진방안

이 인 배

발 간 사

21세기의 전략산업인 관광개발사업은 세계 모든 국가에서 발전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 나가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는 인간의 관광 활동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충남의 안면도 국제관광지는 2002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하여 관광객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서해안 관광환경의 변화를 가져와서 태안해안권에 거점관광지를 조성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면도 관광지 개발의 접근개념은 집중과 분산개발의 조화되도록 관광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계획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면도 관광지내 부지특성과 조화된 기능과 시설을 도입하고, 안면도 관광지 이용자에 대한 표적시장조사 및 이벤트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안면도 관광환경변화에 맞추어 관광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안면도 전체지역을 하나의 관광대상지로서 접근하여 안면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의 관광자원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집중과 분산이 조화된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 또한, 안면도의 주변과 기능을 연계하면서 지역특성을 살리고 꽃박람회 이미지를 제고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안면도의 관광시장에 적합한 표적시장을 선정하여 인근의 보령 대천해수욕장과 차별화 된 관광지를 개발하고, 안면도내 다양한 관광자원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관광지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의 추진전략은 차별화 된 접근을 시도하여 해양리조트로 활성화하여 개발하기 위한 입지 및 시설개선에 있어서는 접근성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관광지내 각 지구별 기능도입 및 시설계획상의 개선으로는 꽃박람회 개최 이 후 환경변화와 환경보존 및 지역주민의 참여 등을 고려하여 기능도입 및 시설계획의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안면도 관광지 촉진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따라 관광지 개발을 집행한다. 그리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 추진위원회를 설립·운영하여 민자와 외자유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제반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나아가 외자와 민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면도 관광지 투자지침서」를 작성하여 활용토록 해야할 것이다.

이처럼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대한 추진방향과 전략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안면도 국제관광지를 서해안의 거점관광지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하여 바쁘신 업무에도 협조해 주신 충청남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아울러 본 연구를 수행한 이인배 연구위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02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직)

김 대 길

목 차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범위	3
4. 연구 수행체계	4
II. 관광지 개발에 관한 이론적 고찰	5
1. 관광개발의 개념과 거점관광개발 모형	5
1) 관광개발의 개념과 접근방법	5
2) 거점관광개발 체계와 목표	9
3) 관광공급대상에 준거한 개발대상 설정	14
4) 관광거점개발 모형의 구성	19
5) 이론검토의 시사점	28
2. 관광지 개발 개념과 절차	31
1) 관광지의 개념과 개발동향	31
2) 관광지 개발을 위한 지정 및 개발절차	35
3) 이론검토의 시사점	42
3. 해안관광지 개발 이론과 개발사례	43
1) 해안관광지의 개념과 개발형태	43
2) 해안관광지의 형태별 개발방향	44
3) 해안관광지 개발사례	50
4) 이론의 시사점과 과제	60

Ⅲ. 안면도 관광지 개발 현황분석과 과제 65

1. 거점 관광개발을 위한 광역 관광여건 분석 65
 - 1) 전국 거점 관광지 개발현황 66
 - 2) 충청남도 관광지 개발현황 68
 - 3) 서해안권 관광자원 개발현황 74
 - 4) 충청남도 관광객 현황과 관광지 이용행태 79
2. 안면도 지역여건과 관광지 개발현황 분석 82
 - 1) 안면도 관광환경 분석 82
 - 2) 안면도 관광자원과 관광객 현황 85
 - 3)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현황 93
3.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의 과제 98
 - 1) 집중과 분석의 조화개발 필요 98
 - 2)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한 계획내용의 수정 필요 100
 - 3) 안면도 관광지내 부지특성과 조화된 기능과 시설도입 필요 101
 - 4) 안면도 관광지 표적시장조사 및 이벤트 프로그램 계획의 부족 ..102

Ⅳ.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 촉진방안 104

1. 안면도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접근의 틀 104
2. 안면도 관광지 촉진의 기본방향 105
 - 1) 안면도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개발 기본방향 106
 - 2) 해안관광지로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의 기본방향 109

3. 안면도 관광지 축진을 위한 추진전략	111
1)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의 추진전략	111
2) 안면도 관광지 제도적 차원의 추진전략	115

V. 결론 및 정책제언 117

1. 결론	117
2. 정책제언	119

참고문헌

표 목 차

<표 II- 1>	관광개발의 접근방법	7
<표 II- 2>	관광공급대상의 시스템구성요소	17
<표 II- 3>	관광공급대상에 준거한 개발대상설정의 영향요소	18
<표 II- 4>	거점관광개발 모형의 구성요소	21
<표 II- 5>	관광지·관광단지 구분기준	37
<표 II- 6>	해안관광지의 개발형태	44
<표 II- 7>	해수욕장 중심형 해안관광지의 도입시설	46
<표 II- 8>	마리나형 관광지의 시설구성	47
<표 II- 9>	종합형 해안관광지의 시설구성	48
<표 II-10>	주제별 도입활동 및 시설검토	48
<표 II-11>	활동에 따르는 도입시설 검토	49
<표 II-12>	인천 해양관광지 도입기능 및 시설	57
<표 II-13>	해남화원 관광지 도입기능 및 시설	59
<표 II-14>	성산포 관광지 도입기능 및 시설	60
<표 III- 1>	전국관광단지 현황(2001년)	66
<표 III- 2>	충청남도 관광특구 지정현황(2001년)	68
<표 III- 3>	관광지 지정현황(2001년)	69
<표 III- 4>	관광지 연도별 국고지원 현황(1990~2000년)	70
<표 III- 5>	충남 개발완료·추진·예정 관광지 현황(2001)	72
<표 III- 6>	관광지별 투자실적에 대한 분석(2000년)	73
<표 III- 7>	서해안권의 관광지 현황(2001년)	75
<표 III- 8>	서해안권의 자연공원현황(2001년)	76
<표 III- 9>	서해안권의 자연휴양림·산림욕장 현황(2001년)	76
<표 III-10>	서해안권의 관광산업체 종사자수 현황	77
<표 III-11>	서해안권의 시·군별 관광객수 현황	78

<표 III-12>	충남지역 연도별 관광객 방문 추이(1991년-2000년)	79
<표 III-13>	충남지역 관광지 이용성향	81
<표 III-14>	배후도시권, 관광권상의 세력권	82
<표 III-15>	안면도의 관광자원 현황	84
<표 III-16>	안면도 기암괴석 현황	86
<표 III-17>	안면도 지정해수욕장 현황	87
<표 III-18>	안면도 비지정 해수욕장 현황	87
<표 III-19>	안면도 항포구 현황	88
<표 III-20>	안면도 관광자원 분포 현황	89
<표 III-21>	안면도의 관광성향	91
<표 III-22>	안면도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	92
<표 III-23>	안면도 자연휴양림 이용객 현황	92
<표 III-24>	안면도 관광서비스시설 분포 현황	93
<표 III-24>	안면도 관광지 개발 대상지 분석	94
<표 III-25>	안면도 관광지 개발 도입시설 분석	96

그 립 목 차

[그림 II-1] 관광개발 공간의 배치론적 접근	9
[그림 II-2] 거점관광개발의 개념체계	10
[그림 II-3] 관광수요시장과 관광거점의 조화·조정관계	11
[그림 II-4] 관광공급대상설정의 구성요소	16
[그림 II-5] 거점관광개발 모형	24
[그림 II-6] 거점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루트 선정 절차도	30
[그림 II-7] 최근 관광지 개발 동향	32
[그림 II-8] 관광지 지정절차	39
[그림 II-9] 관광지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제도	41
[그림 III-1] 전국 관광단지 분포 현황도(2001년)	67
[그림 III-2] 서해안권의 관광산업체 종사자수 비교도	78
[그림 III-3] 안면도 관광자원 분포도	90
[그림 IV-1] 안면도 관광지 축진을 위한 접근 틀 개념도	105
[그림 IV-2] 안면도 거점관광개발을 위한 접근개념도	107
[그림 IV-3] 안면도 거점관광개발을 위한 접근개념도	108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관광산업은 21세기의 전략산업으로서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모든 국가는 자국의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 나가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는 인간의 관광활동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정부는 국가의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전국 관광지 및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3차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제적 수준의 해양관광단지 조성, 해양과 온천을 연계한 국민휴양관광지 확충, 백제문화권의 관광자원개발 지속 추진, 농·산·어촌 및 해양생태자원의 환경친화적 관광개발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문화관광부, 2001).

관광지 개발¹⁾은 자연공원, 관광단지, 관광특구, 온천지구, 골프장, 관광농원, 자연휴양림 등과 더불어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면도와 같은 지정관광지의 경우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광지의 지정은 최초 1969년 1월 21일 충남 대천해수욕장, 구드래관광지 등이 지정되었다. 관광지는 지역특성을 살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권한을 1994년 6월 30일자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2001년 6월말 현재 전국에 지정된 관광지는 모두 203개소 이르고 있다.

충남도내 관광지 지정수는 2001년 현재 23개소에 13.195km²로 전국 면적 148,550 km²의 11.7%로 해당하며 산악형, 내륙형, 내수면형, 해안형 등 다양한 자원유형별로 관광지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충남에서 지정된 관광지중에서 구드래, 태조산, 각

1) 관광지는 일반적으로 자연공원, 관광단지, 관광특구, 온천지구, 골프장, 관광농원, 자연휴양림 등의 통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인 안면도관광지는 법적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이다.

원사, 곰나루, 금강하구둑 등 몇 개의 관광지를 제외한 대부분은 60%이하로 개발이 추진되거나 관광지로 지정만 되어 있을 뿐 아직까지 개발을 착수하지 못하기도 하고, 개발이 중지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해안시대를 대비하여 안면도에도 관광지를 지정하여 국제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개발의 추진이 부진한 실정이다. 안면도관광지는 2002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개최로 165만명이 방문하여 73만명 목표에서 164만명이 방문하여 228%를 초과하여 달성하는 성공적 개최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관광객의 급증 등 서해안의 관광환경의 변화는 태안해안권에 거점 관광지를 조성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안면도 관광지는 접근이 양호해지고 이미지가 제고되어 관광지 개발조건이 양호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꽃박람회장의 활용과 안면도 관광지구의 외자유치 문제에 대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을 문제를 제기하는 제약조건 등이 되어 관광지 개발의 촉진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이 승인된 안면도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증가할 국내외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해안의 국제적 거점관광지로서 조성하여 지역의 관광개발을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최근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지 개발사업을 통하여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별 관광지 개발 현상은 향후 더욱 심화 될 것이며, 지역중심의 단계적이고 차별된 관광지 개발은 국토의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과 2002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관광지 개발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안면도를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되도록 촉진함에 있어,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의 기회요인을 극대화한다는 인식에서,

- 지역의 관광지 개발에 대한 제반이론을 고찰하고
- 안면도와 주변지역의 관광환경여건을 분석하며
- 기존에 수립된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계획 추진의 문제점을 검토
- 향후 관광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

함으로써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실무작업을 지원하는 기초연구를 통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중장리 일원
- 면 적 : 안면도관광지(5,170,982㎡) 및 주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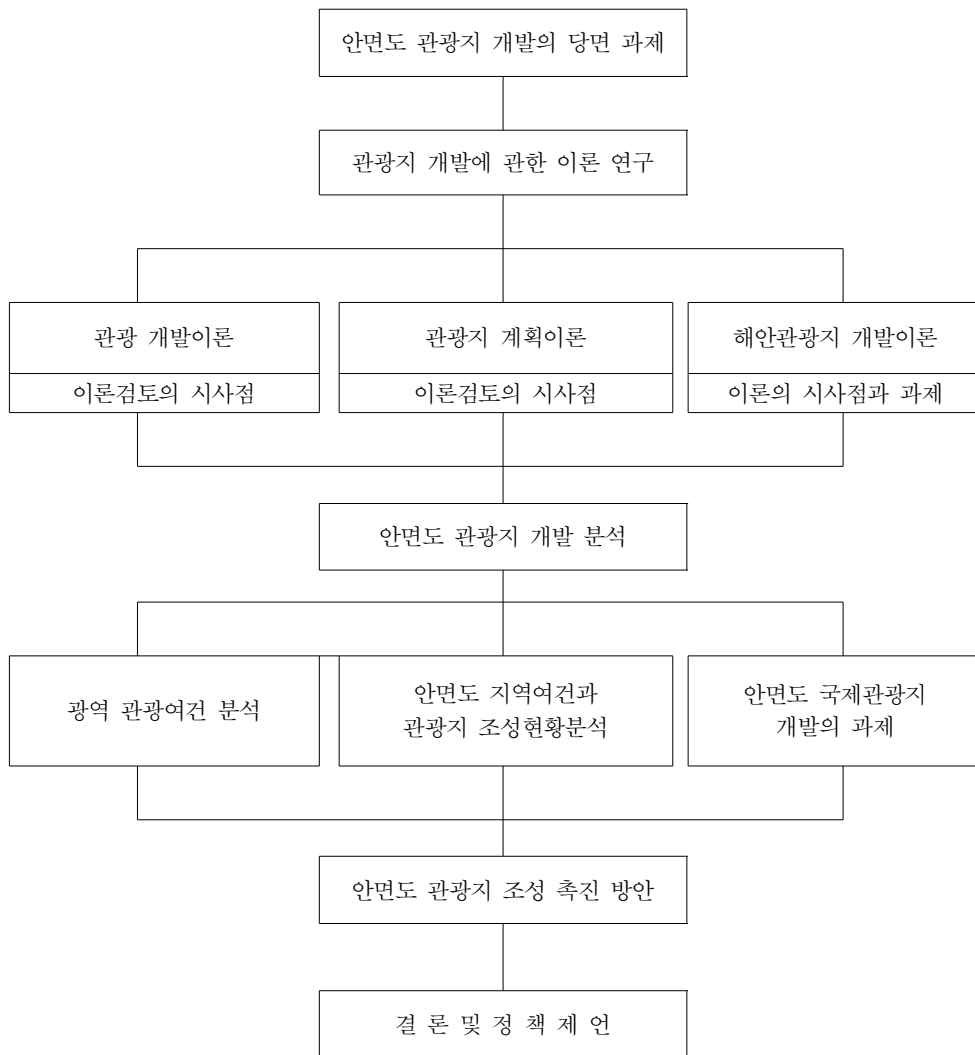
2) 시간적 범위

- 추이분석 : 1990년 ~ 2000년
- 자료 기준년도 : 2001년

3) 내용적 범위

- 지역의 관광지 개발에 대한 이론적 접근
- 안면도 관광여건 분석
-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위한 기존계획의 개선방안
- 결론 및 제언

2. 연구 수행체계



Ⅱ. 관광지 개발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관광개발의 개념과 거점관광개발 모형

1) 관광개발의 개념과 접근방법

관광개발(tourism development)의 정의는 “관광자원의 특성을 살려 관광상의 편의를 증진시켜 관광자의 유치와 관광소비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이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관광개발의 대상이 되려면 과거에 존재했던 단순한 관광개발과 관광지 관리보다 더욱 균형있는 관광개발의 개념적 구성이 요구된다. 즉, 관광개발의 개념적 구성은 관광개발의 대상지역부문, 관광개발상의 공간관계, 그리고 관광지역의 발전형태(발전단계)는 세 가지로 요약되며, 이들 상호관계가 강조되어야 한다(前田勇, 1984).

관광개발은 관광지역에 관광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형태의 물리적 개발뿐만 아니라 관광지역내의 관광요건을 제공하는 특별한 시설개발을 포함한다. 여기서 관광요건은 상부구조(superstructure)와 하부구조(infrastructure)의 두 가지 기본범주로 나눌 수 있고, 하부구조는 상부구조보다 선행되어야 하며, 관광자와 지역주민의 욕구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관광대상의 개발은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사업개발로 구분되는데, 관광자원개발은 개별단위 관광매력물(대상물), 관광지(역), 관광단지, 관광개발소권, 그리고 관광권을 개발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관광사업개발은 관광숙박·상업시설의 개발을 비롯한 관광기반시설개발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광개발은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사업개발 사이에 조화·조정이 되지 않아 제반 문제를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개발영역 설정도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관광개발은 지역개발의 유력한 수단이 되며, 지방화시대에는 그 중요성을 더하여 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관광개발의 경제외적 효과인 사회·문화·환경효과가 강

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발전을 위한 관광개발은 경제적 효과에만 착안할 것이 아니라 인간 생활이 질적 향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관광개발 과정이 관광공급대상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과 관광지역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자원개발이 이루어져 관광활동 및 시설이 획일적이고 지역적으로 특화되지 못해 다양하게 변화하는 관광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개발에 준거한 지역관광의 특화 및 거점개발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관광개발의 영역은 개발대상의 하위부분에 속하는 세 가지 유형의 관광지역을 가지는데, 첫째는 여러 관광목적에 위해 매우 중요한 표적시장으로서의 도시지역이다. 둘째는 주변지역과 지역사회 서비스센터 사이를 연계하는 지역이다. 셋째는 자체가 최종목적지이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의 관광을 위해서 매우 중요시되는 하위 관광지역을 의미한다.

지역관광개발은 아마도 지역지구제(zoning)를 통해 개발목표의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탄력있는 관광환경과 취약한 관광환경을 매우 제한함으로써 관광활동을 어떤 지역에 집중 또는 분산하도록 고무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관광개발의 영역에 속하는 각 하위단위 관광지역을 연계시키는 전체적 개발계획이 중요시되는데, 이는 새로운 관광지역에 잘 응용될 수 있다.

지역관광개발은 지역사회관광개발 보다 광범위하여 지역사회관광지를 통합하는 접근방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개발초기에 대부분의 관광개발계획에서는 특별한 관광시장이나 관광자원에 초점을 맞춘 비통합적 접근방법을 수용하였다가 점차 지역과 환경관계를 고려한 통합적 접근방법을 수용하여 관광개발이 진행된다.

거점관광개발은 관광거점의 특성에 따라 국가거점관광개발과 지역거점관광개발로 이원화되지만 실제 개발계획에 있어서는 구분이 용이하지 않다. 개발주체적 측면에서 보면 국가거점관광개발은 중앙정부가 되고, 지역거점관광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개발형태라 할 수 있다. 또한 거점관광개발의 형태측면에서 보면 관광특구형, 관광단지형, 위락단지형, 그리고 자연공원내 집단시설지구형 등이 대표적이지만 관광특구형은 개발의 특성보다는 진흥정책에 특성이 강한 국가단위의 관

광거점이라 할 수 있다.

관광개발의 접근방법은 공간구조론적 접근방법, 관광자원론적 접근방법, 수용력적 접근방법 등으로 구분된다. 공간구조론적 접근방법은 관광공간의 배치, 발전적·진화론, 그리고 시스템적 접근으로 나누어진다. 관광자원론적 접근방법은 관광수요시장 특성, 관광대상지역 특성, 관광행동의 특성에 따른 접근으로 구분되고, 수용력적 접근방법은 물리·생태적 수용력, 관리지향적 수용력, 심리적 수용력 접근 방법으로 구분된다.

<표Ⅱ-1>

관광개발의 접근방법

구 분	특 징
공간구조론적 접근방법	① 관광공간의 배치론적 접근 : 집중, 분산, 그리고 조합 전략 ② 관광공간의 발전적·진화론적 접근 : 시간과 공간을 통한 관광공급대상지역의 공간발전에 따라 개발 ③ 관광공간의 시스템적 접근 : 관광혜택요소, 관광공급대상요소, 관광수요시장요소, 그리고 관광공간환경 등의 공간시스템
관광자원론적 접근방법	① 관광수요시장 특성에 따른 접근 : 이용자중심형, 중간형, 자원중심형 ② 관광공급대상지역 특성에 따른 접근 : 고밀도위락지역, 일반 옥외위락지역, 자연환경지역, 자연독특지역, 원시지역, 그리고 역사·문화지역 ③ 관광행동 특성에 따른 접근 : 주류형, 체재형
수용력적 접근방법	① 물리적·생태적 수용력 접근방법 ② 관리지향적 수용력 접근방법 ③ 심리적 수용력 접근방법

자료 : 김홍운 공저, 관광개발론, 형설출판사, 1996.

특히, 관광개발에 있어서 관광공간의 배치론적 접근은 집중형·분산형 공간배치로 양분되는데, 관광공간분포의 집적정도에 따라 관광공간체계가 달리 형성된다. 관광공간의 배치론적 접근은 집중전략(concentration strategy), 분산전략(dispersion strategy), 그리고 조합전략(combination strategy)으로 나눌 수 있다(P. E. Murphy, 1987).

① 집중전략(concentration strategy)

집중적 관광개발은 중핵지역(core area) 또는 특별한 관광지구(tourist zone)의 형태로 관광공급대상지역 기획의 보편적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관광자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다른 시설과 서비스로부터 분리시키는 수법으로 전체 관광공간 구조내에서 체계적으로 조화되고 계획된다면 관광개발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업무지구(service business zone)를 조성한다. 결국 집중전략의 기획접근방법은 Smith(1980)의 관광중핵모형(tourism core model)을 공식화하고, Pearce(1978)의 선형 집적인 위락업무지구(recreation business district ; RBD)를 포함하고 있다.

② 분산전략(dispersion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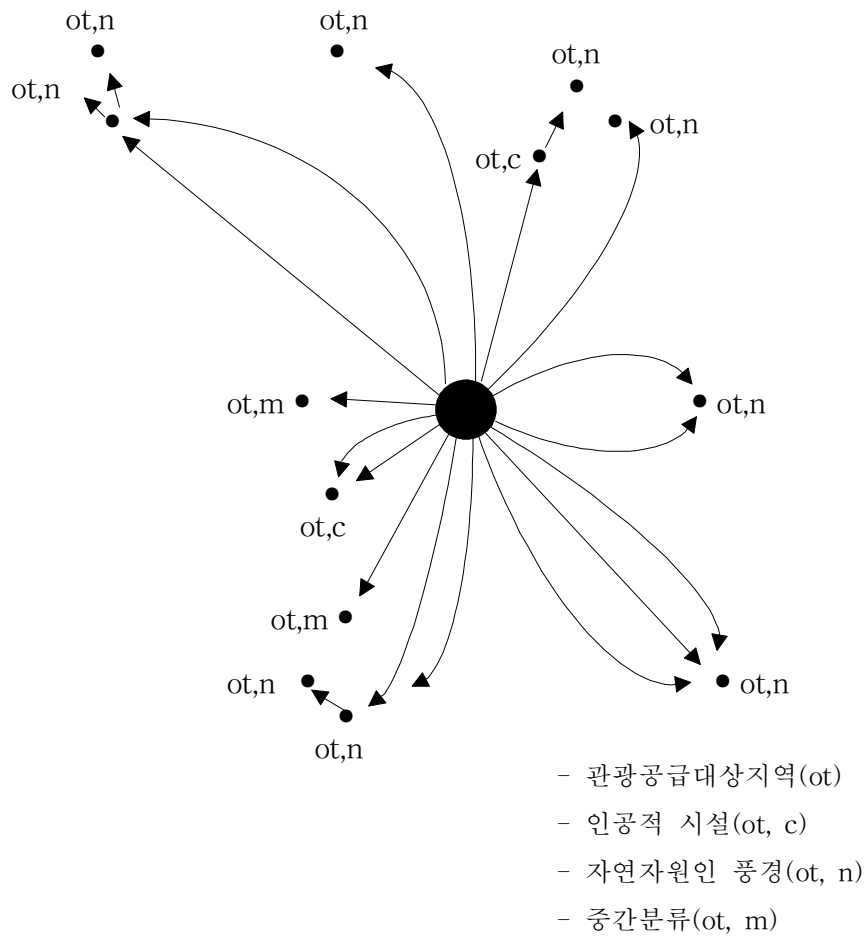
집중전략이 관광공급대상지역에 압력 요소가 된다면 대안전략으로서 분산전략이 고려될 수 있다. 분산전략은 관광공간과 주거·생산공간과의 혼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거점의 혼잡을 감소시키고 외곽지역 이점을 주기 위한 다핵이론에 근거한다.

③ 조합전략(combination strategy)

집중과 분산전략이 반드시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관광공급대상지역의 수용력 범위 내에서 최대의 개발효과를 위해 집중전략과 분산전략의 각 요소들을 수용하는 수법이다. 집중개발에 기초한 성장거점전략(growth center strategy)은 규모의 경제 및 집적효과를 가져오는 반면에 특정관광공급대상지역에 대한 급속한 개발로 대상지역의 사회문화·경제·환경문제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분산전략을 이용함으로써 특정관광공급대상지역에 더 이상의 개발을 억제하고 다양한 공간입지의 관광개발을 통해 특정관광공급대상지역과 여타 외곽관광지가 계속 성장하도록 하는데 조합전략의 중요성이 있다.

[그림 II-1]

관광개발 공간의 배치론적 접근



자료 : 除野信道, 觀光社會經濟學, 東京 斗南印刷所, 1985.

2) 거점관광개발 체계와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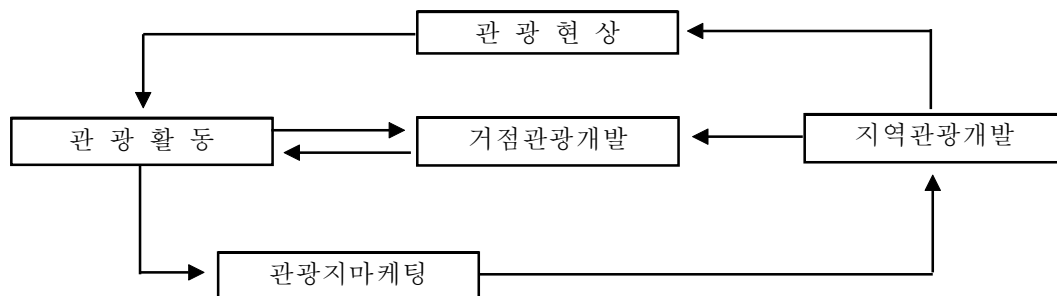
거점관광개발에서 거점(centre ; pole)은 관광자 및 관광대상(관광자원과 관광시설) 집중으로 관광상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환경적인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를 누릴 수 있는 관광중심지를 의미한다(S. Smith, 1983). 따라서 거점

관광지 개발의 의미는 광의로 거점관광개발대상(관광단지, 위락단지, 그리고 도립, 군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 등)을 적극적으로 진흥시키는 것이고, 협의로는 거점관광개발대상의 특성을 살려 관광상의 편익을 증진시킴으로써 현재보다 나은 지역관광자의 여가·관광욕구의 충족, 관광지역주민의 생활권 보장, 효율적인 관광자원개발수행(지방자치단체별 관광자원개발기회의 확대, 체계적인 관광지 관리프로그램 구축, 그리고 관광시설의 다목적 활용 지원 등), 그리고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한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거점관광개발은 관광현상 가운데 관광활동에 초점을 두고 관광지마케팅과 관광개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 관광개발(integrated tourism development)’이라 할 수 있으며, 관광현상이 일정시점에서 특정의 관광활동을 도출해 내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그림 II-2]는 관광현상 가운데 지역관광활동에 중심의 거점관광개발 개념체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II-2]

거점관광개발의 개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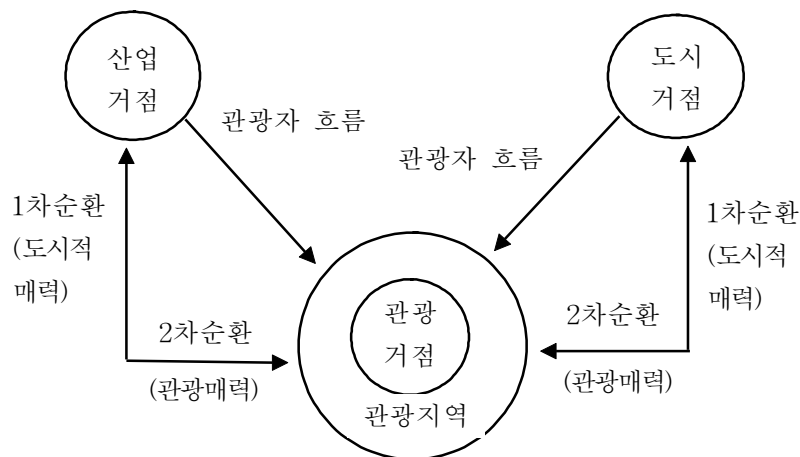


거점관광개발은 ‘장소정체성(place-identity)’으로 표현되는 형태의 관광을 위해 큰 역할을 한다. 장소정체성은 친숙한 환경에서의 추억으로부터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유지의 매우 능동적인 신념에 이르기까지 발전함으로써 결국 거점관광개발은 관광공급대상에 부여된 상징으로서의 관광자원개발에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거점관광개발지역이 특정관광상품에 의해 특화되는 과정은 비교우위론적 입장에서 설명되어진다. 우선 거점관광개발지역이 다른 관광지역보다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관광수요시장과 관광공급대상 사이에서 지역관광활동이 능동적으로 조화·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거점관광개발은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집단, 그리고 민간부문이 각각 또는 조합적으로 그들의 관광자원을 관리하고 적절히 확정된 관광지역 내에서 새로운 관광활동을 창출함과 동시에 관광지역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는 “내생적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점관광개발에서 조화·조정 과정은 관광자의 흐름이 여러 관광지역 또는 관광지구로 이루어진다. 관광수요시장도 여러 도시를 형성하며, 관광공급대상지역도 역시 여러 관광거점(tourist poles)을 가지게 된다. [그림 II-3]은 단일거점으로 단순화하여 그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관광자들은 물리적 또는 문화적 재균형을 위한 그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전형적인 관광지역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림 II-3] 관광수요시장과 관광거점의 조화·조정관계



관광개발의 일반적인 목표는 관광현상의 제반 환경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Getz는 지역사회개발, 유적 및 환경보전, 문화정체성 향상,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복지, 그리고 생활의 쾌적성 유지 및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McIntosh and Goeldner는 관광의 경제적 편익을 통해 관광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구조제공, 관광자와 관광지역주민을 위한 위락시설 제공 및 기반시설 개선, 관광지역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문자센터의 개발유형 확립, 관광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사회문화적·경제적 환경과 일치하는 개발프로그램의 확립, 그리고 관광자 만족의 최적화를 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관광개발의 목표에 준거한 거점관광개발의 목표는 ① 지역관광자의 여가·관광욕구 충족 ② 관광지역주민의 생활권 보장 ③ 효율적인 관광자원개발 수행(지방자치단체별 관광자원개발기회의 확대, 체계적인 관광지관리 프로그램 구축, 그리고 지역관광시설의 다목적 활용지원) ④ 지역발전(지역의 고용·소득효과 창출, 지방재정수입의 증대, 그리고 낙후지역균형발전)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광공급대상지역의 환대성(hospitality)에 매우 의존해야 하고, 관광자원개발대상(관광상품)의 선택도 특화된 지역의 고유성(authenticity)에 준거해야 한다.

거점관광개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잠재력은 다음 네 가지 조건에 의존하게 된다.

첫째, 다양한 관광자 유형에 부합하는 관광서비스와 관광시설의 제공이다. 이는 제공되는 관광서비스 및 관광시설의 질과 가격의 효과적인 결합조건이다.

둘째, 제공되는 관광서비스와 관광시설이 조합된 경우에는 숙련되고 경험있는 지역관광기획 및 지역관광마케팅조직체 - 지방자치단체의 공적부문과 지역민간부문-의 존재에 의해 거점관광개발이 고무될 것이다.

셋째, 지역거점 관광대상지와 관광시장의 지리적 입지로 효과적인 거점관광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넷째, 관광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투자재원의 특성(공적부문·민간부문)과 규모가 중요하다.

한편, 거점관광개발은 관광지역에서 관광거점 자체가 가지는 내부적인 지역관광 성장기능과 관광성장을 다른 관광지역으로 파급하는 외부적인 관광지 연계기능이 있는데, 두 기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관광성장을 유도하고, 관광성장잠재력을 다른 관광지로 확산시킨다.

둘째, 관광성장을 지속하는 규모의 경제성에 의한 공간적, 자원적 집적효과를 가진다.

셋째, 관광지의 고밀도 이용은 가격인하의 한 요인인 동시에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도 되므로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과적인 관광지 관리를 할 수 있다.

넷째, 지역전체관광산업의 평균성장률보다 더욱 빠른 관광성장률을 가진다.

다섯째, 다른 관광지와 연계성을 매우 높인다.

여섯째, 지역이미지 제고와 동시에 지역관광이미지를 특화시킨다.

끝으로 관광성장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관광지마케팅전략을 수용한다.

거점관광개발의 수행은 독특한 관광요소를 특화시킴으로써 특성계획과정(personality planning process)을 추구한다. 이 과정은 첫째로 관광자원개발대상지역의 자연자원 특징, 역사적·민속적·문화적 자원의 특징, 그리고 지형을 포함한 특별한 특징을 묘사한다.

둘째는 주요지구의 구획(plotting of critical zones)으로 주요지구는 많은 관광자를 유인하는 중요한 관광지역으로 출입루트와 같은 가시적 속성이 매우 중요시된다.

셋째, 각 주요지구내의 이용목표를 확립하는 것이다.

넷째는 이용목표에 기초한 전략프로그램의 공식화인데, 이 전략 프로그램은 거점관광개발지역의 제반 환경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므로 관광거점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관광특화를 모색해야 한다.

거점관광개발에 기능적 요소의 확립에는 관광자원개발기획 및 계획, 관광자원개발정책 및 규제, 개발상의 조사연구 및 예측, 관광지 마케팅, 그리고 관광지의 효율적 관리 등이 고려된다. 관광자원개발 기획 및 계획은 지역에 있어 미래 관광성장의 질과 범위에 대한 방향을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거점관광개발에 있어서는 수변, 해변, 그리고 민속적인 근린주구(neighborhood) 중심의 관광 단지개

발 기획, 주제공원을 중심으로 한 위락단지개발 기획, 역사·문화적 복원에 기초한 관광대상개발 기획, 그리고 고도의 과학기술을 수용한 관광대상개발 기획 등이 중심이 되는 지역특화적 관광자원개발기획 유형에 기초함으로써 중앙집권적 관광자원 개발기획이 가지는 문제점 -관광수요시장의 유동적이고 예측불가능한 특성에 조화되기 어려운 점, 인적 서비스가 불충분한 점, 관광공급대상의 특화가 어려운 점, 그리고 관광자와 관광지역주민 간의 상호유기적 관계의 확립이 어렵다는 점 등-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기획접근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3) 관광공급대상에 준거한 개발대상설정

관광공급대상은 거점관광개발의 전체관광시스템이 주요 기능을 가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의 대상설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관광공급대상은 관광체험을 위한 물리적 장소의 환경으로서 여러 관광자원에 의해 특화된다.

둘째, 관광공급대상은 집적되어야 한다.

셋째, 관광공급대상 입지요소는 관광수요시장, 접근성, 그리고 서비스센터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즉, 관광공급대상은 관광수요시장으로부터 최적의 거리에 입지해야 하고, 관광공급대상과 관광 수요시장 사이의 시간거리가 중요시되며, 모든 관광공급대상은 서비스센터를 필요로 한다.

넷째, 관광공급대상은 관광자 유치범위에 따라 다양하다.

다섯째, 관광공급대상은 주유형과 체재형이 서로 다른데, 두 유형은 양립하기 어려우며 각기 특별한 개발수법을 필요로 한다.

여섯째, 관광공급대상은 개발주체의 성격에 따라 변화된다.

끝으로 관광공급대상의 기능은 합리적으로 유지되고 그 형태는 변화된다.

관광공급대상의 범주화에 대해 Lew는 세 가지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표의문자적 관점(ideographic perspective)으로 관광공급대상을 개념화하는 가장 공통적인 방법이다. 즉, 장소의 일반적 속성과 자연미, 유명장소, 기후, 문화, 그리고

사회적 특징을 포함하는 속성을 언급한다. 또한 이 관점에 준거한 다른 접근방법은 환경분석인데, 실제 또는 가상적인 장소의 여러 환경범주 -자연적, 인공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기술적 환경-들도 그 범위와 정도에 따라 다양한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둘째는 구성적 관점으로 조직의 관리적 부문이 아니라 공간적 부문으로서 공간, 수용력, 그리고 시간적 특성에 초점을 둔다.

셋째는 인지적 접근방법으로 관광자의 인식과 체험에 따라 관광공급대상을 범주화한다. 이는 관광자의 체험적 속성에 준거하여 핵심유형을 분류하는데, 욕구, 동기에 기초한 심리적 요인에 따른 범주화는 그 욕구가 하나의 핵심유형을 의미하는 종합적 접근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핵심유형은 관광공급대상의 어떤 특징 또는 특성으로서 관광체험에 기초한 관광욕구와 동기가 개인적이므로 핵심요소도 그에 따라 변화한다.

거점관광개발에서 관광공급대상의 설정은 대상지역의 자연적·인공적·문화적 자원, 교통, 숙박시설, 관광서비스지원시설, 그리고 관광지마케팅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그림 II-4]와 같다.

거점관광개발의 관광공급대상요소는 토탈관광제품(total tourism product ; TTP)으로 다섯 가지 구성요소에 의해 인식된다. 첫째는 자연 및 인문적(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인공적)관광대상이다. 둘째는 관광공급대상지역 내에서 이용가능한 시설 및 서비스이다. 셋째는 관광공급대상지역의 접근성, 여행수단, 운영요소(시간/비용), 그리고 제약요소 등이다. 넷째는 관광공급대상지역의 이미지이다. 마지막으로 총여행비용 등이다. 이 요소들 가운데 앞의 두 가지는 관광공급대상지역 토탈관광제품(TTP)의 내부적 구성요소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관광공급대상지역의 실제 속성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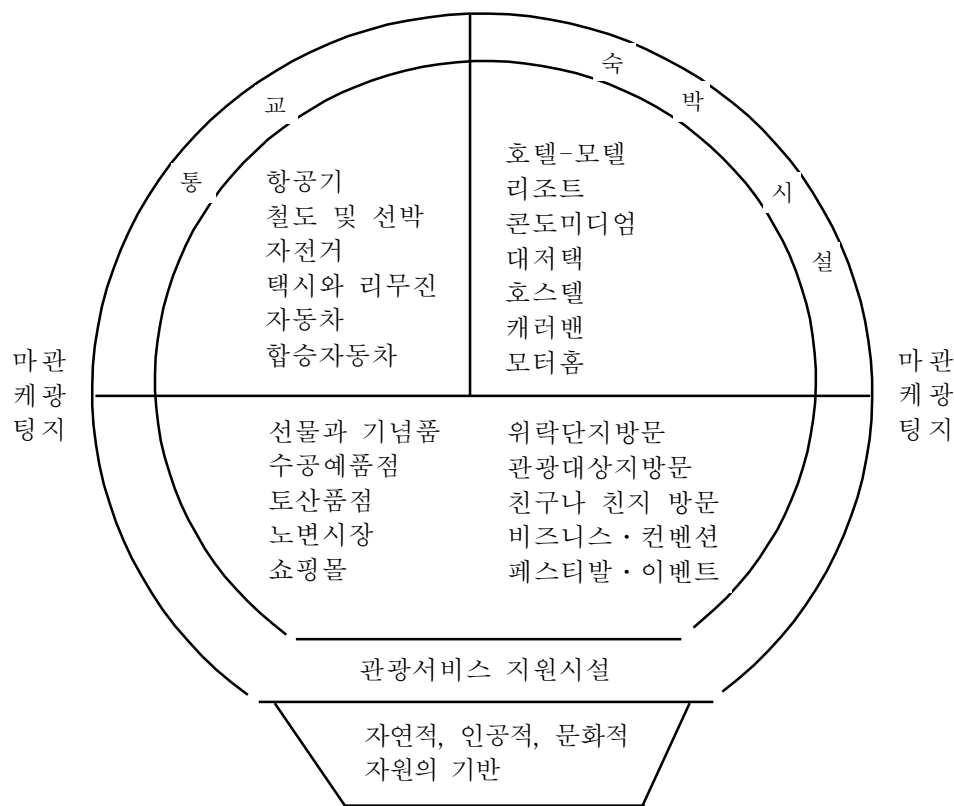
거점관광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관광공급대상설정의 주요 변수는 ① 관광자의 수와 유형 ② 관광개발의 단계 ③ 관광수요시장지역과 관광공급대상지구 사이의 경제발전 및 문화규범의 차이 ④ 관광인구밀도에 영향하는 관광공급대상지구의 물리적 규모 ⑤ 관광자의 관광제품 구매정도 ⑥ 관광지역주민의 관광시설 참여정도 ⑦ 지

방자치단체의 태도 ⑧ 지역관광자원개발정책 ⑨ 관광지마케팅과 이미지 ⑩ 관광공급대상지역에의 접근성 등이다.

한편, 거점관광개발의 대상설정에서 관광단지의 중심대상은 해양·산악 관광지역, 고대기념물·역사문화유적지이고, 위락단지의 중심대상은 주제공원, 야생적 관광대상(동물원, 사파리공원, 나비공원 등), 과학기술을 수용하는 관광대상, 그리고 오락 및 여가공원 등이다.

[그림 II-4]

관광공급대상설정의 구성요소



거점관광개발상의 시스템 구성요소는 ① 시스템의 출발점 ② 지리적 범위 ③ 시스템 형성단위 ④ 조직관리 ⑤ 활동 ⑥ 환경 ⑦ 변화와 발전추세로 구분되는데, 이

에 준거한 관광공급대상의 시스템 구성요소는 [그림 II-4]와 같다.

또한 새로운 관광공급대상개발 유형으로 첫째는 수변, 해변, 그리고 민속적인 근린주구 중심의 관광단지개발이다. 둘째는 주제공원을 중심으로 한 위락단지개발이다. 셋째는 역사·문화적 복원에 기초한 관광대상개발이다. 마지막으로 고도의 과학기술을 수용한 관광대상개발 등이다.

결과적으로 관광공급대상에 준거한 개발대상설정의 영향요소는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Fussell, Gold, Jafari, Gunn, Murphy, Middleton 그리고 Pearce의 연구에서 제시된 영향요소들을 요약하면 <표 II-2>와 같다.

<표 II-2> 관광공급대상의 시스템구성요소

시스템상의 구성요소	관광공급대상의 구성요소
① 시스템의 출발점	① 최초의 관광공급대상
② 지리적 범위	② 관광공급대상의 지리적 범위와 한계
③ 시스템을 형성하는 단위	③ 숙박시설, 부대시설, 기반시설을 포함하는 관광공급 대상과 관광자 선호를 포함하는 관광수요시장
④ 조직관리	④ 관광공급대상의 경쟁력 강화(시장경쟁력, 상대적 접근성, 관광수요분석) 및 자원관리
⑤ 활동(시간경과상의 시스템 적용방법)	⑤ 활동의 계절성, 일상적인 이벤트(페스티벌), 비일상적인 요소(기후 등)
⑥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외적 환경정도	⑥ 지역경제조건, 상대적인 입지, 관광지 선호도
⑦ 변화와 발전추세	⑦ 개발결과 : 여가욕구의 충족, 관광공급대상지역의 발전

이상의 제요소 가운데 거점관광개발의 관광공급대상에 준거한 개발요소로 수변, 해변, 그리고 민속적 근린주구 중심의 관광대상, 주제공원 중심의 위락단지,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에 기초한 관광대상, 고도의 과학기술혁신을 수용한 관광대상, 관광수용력, 연계관광지 유무, 관광시설의 적합성 관광대상의 매력도, 관광제품의 다양성, 그리고 계절적 특성 등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표 II-3>

관광공급대상에 준거한 개발대상설정의 영향요소

연 구 자	특성 및 영향요소
1) Fuss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밀도 위락지역 · 일반옥외위락지역 · 자연환경지역 · 독특한 자연지역 · 원시지역 · 역사·문화지역 · 저밀도 · 고비용 위락지역
2) Go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공급대상의 매력성 · 관광공급대상의 관리수준 · 대안관광지의 이용성 · 관광공급대상의 수용력 · 관광공급대상지의 기후 · 관광공급대상지역의 자연적·물리적 특성
3) Jafa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 음식, 교통, 여행사, 위락과 오락시설, 다른 여행서비스를 포함하는 관광상품과 서비스의 시장바구니
4) Smi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자수 · 사회·경제적 특징 · 체재기간 · 지출비용 · 여행계절 · 여행루트
5) Gun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모든 교통수단의 질과 양) · 관광대상(질적인 관광자 만족을 위한 관광자원과 시설) · 서비스(음식, 숙박, 관광제품의 질과 양) · 정보 및 촉진
6) Murph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관광제품) · 관광대상(관광자원, 환대) · 자본(관광시설, 접근성, 기반시설)
7) Middle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지의 관광공급대상(자연적, 인공적, 문화적, 사회적 관광대상) · 목적지의 시설 및 서비스(숙박시설, 식음료시설, 교통시설, 스포츠시설, 기타서비스) · 목적지의 접근성(기반시설, 장비, 운영요소, 규제) · 목적지의 이미지와 인식 · 가격요소(총여행비용, 숙박비용 등)
8) Pear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대상(자연적, 인공적, 문화적 특징물) · 교통 · 숙박시설 · 기반시설 · 지원시설(기타서비스와 시설)

자료 : 김홍운 공저, 관광개발론, 형설출판사, 1996.

4) 관광거점개발 모형의 구성

관광개발에서 김홍운·김사영(1996)의 거점관광개발 모형은 대부분 예측모형과 기획과정 및 관광시스템과 같은 이론적 측면의 도식모형으로 구성된다. 이들 두 기초적 모형은 이론적 모형에 대한 과정모형으로 언급되므로 거점관광개발모형도 과정모형에 준거하고 있다.

많은 관광관련모형은 전체시스템 및 하위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관광공간규모에 적용될 수 있다. Romsa는 위락단지개발을 위해 가장 적합한 관광공급대상지역을 결정함에 있어 고유한 물리적 특성, 관광시설의 종류 및 적합성, 그리고 지역의 문화적 환경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측정한 기획모형을 묘사하였다. Baud-Bovy는 관광제품분석을 중심으로 한 PASOLP(Product Analysis Sequence for Outdoor Leisure Planning)모형을 묘사했는데, 이 모형은 사회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기획모형이다. 또한 Taylor는 세분시장에 가장 적합한 관광공급대상개발이 되도록 기획을 유도한 시스템모형에 의해 관광지/시장조화모형(plant/market match model)을 개발하였다.

거점관광개발 모형의 구성요소는 개발목표, 개발주체, 개발형태, 개발영향요인, 그리고 개발접근방법에 대한 분석결과를 준거로 조화·조정과정을 거친다.

우선, 개발목표의 설정은 관광자원개발의 장·단기계획 및 정책을 규명하여 자연발생적 관광개발을 통제·조정하면서 필요한 관광시설을 제공함과 동시에 관광공급대상지역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자원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독특한 관광자원을 특화시키기 위해 관광목적지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관광시설개발에 그 초점을 둔다. 거점관광개발의 개발목표로는 지역관광자의 욕구충족, 관광지역주민의 생활권 보장, 지방자치단체별 관광자원개발기회의 확대, 체계적인 관광지관리 프로그램 구축, 지역관광시설의 다목적 활용 지원, 지역의 고용·소득효과 창출, 지방재정수입의 증대, 그리고 지역관광균형발전을 제시하여 분석한 결과 개발주체 및 개발형태에 따라 각각 상이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주체 및 개발형태도 매우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공공주도형, 민간주도형, 지역주민주형, 그리고 제3섹터방식이 있다. 공공주도형은 지방자치단체주도형과 중앙정부주도형으로 대별되고, 지방자치단체주도형은 다시 직영방식, 공사방식, 출자방식, 대행방식, 그리고 공공기관의 협동방식 등이 있다. 개발주체는 지방자치단체주도형, 지역민간기업주도형, 지역주민주도형, 그리고 제3섹터방식이고, 개발형태는 지역거점이라는 지역성을 가짐으로써 관광단지형, 위락단지형, 그리고 도립·국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발영향 요인 -관광수요시장요인과 관광공급대상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관광수요시장요인으로 여행동기, 여행동반자 수, 여행거리, 자유재량소득, 이용여가시간, 여행선호도, 지역관광이용권의 인구수, 여행비용, 여행체재기간, 그리고 이용교통수단을 변수로 조사 분석한 결과 여행동기, 여행거리, 이용여가시간, 지역관광이용권의 인구수, 그리고 여행비용 등이 모형의 구성에 적용된다.

관광공급대상요인으로 수변·해변·민속적 근린지구 중심의 관광대상, 주제공원 중심의 위락단지,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에 기초한 관광대상, 고도의 과학기술혁신을 수용한 관광대상, 관광수용력, 연계관광지의 유무, 관광시설의 적합성, 관광대상의 매력도, 관광제품의 다양성, 여행의 계절적 특성, 그리고 관광지마케팅과 이미지를 제시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에 기초한 관광대상, 고도의 과학기술혁신을 수용한 관광대상, 관광수용력, 연계관광지 유무, 관광시설의 적합성, 그리고 관광지마케팅과 이미지 변수가 적용되고 있다.

개발접근방법요인 -공간구조론적 개발접근방법요인과 관광자원론적·수용력적 개발접근방법요인-을 보면 먼저 공간구조론적 요인으로 관광대상의 집중입지, 관광대상의 분산입지, 관광대상지역의 부지규모, 경관 및 자연적 조건, 관광대상지역의 사회, 경제적 조건, 각종 교통과의 위치적 조건, 주변관광지와의 연계, 배후도시와의 거리 지역관광이용권의 공간범위, 지역관광이용권의 인구규모, 그리고 지역관광이용권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제시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관광대상의 집중입지, 관광대상의 분산입지, 관광대상지역의 부지규모, 경관 및 자연적 조건, 각종 교통과의 위치적 조건, 주변관광지와의 연계, 배후도시와의 거리, 지역

관광권의 인구규모, 그리고 지역관광이용권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이 적용되었다.

관광자원론적·수용력적 요인으로 관광자원의 유형, 관광시설의 종류, 주변토지 이용과의 관계, 개발상태, 개발기간, 그리고 관광자원개발에 관련된 제반 규제 등이 적용되었다. 거점관광개발 모형의 구성요소를 요약하면 <표 II-4>와 같다.

<표 II-4> 거점관광개발 모형의 구성요소

구 분		구 성 요 소
개발목표		① 지역관광자의 욕구 충족 ② 관광지역주민의 생활권 보장 ③ 지방자치단체별 관광자원개발기회의 확대 ④ 체계적인 관광지관리 프로그램 구축 ⑤ 지역관광시설의 다목적 활용 지원 ⑥ 지역의 고용·소득효과 창출 ⑦ 지방재정수입의 증대 ⑧ 지역관광균형발전
개발주체		① 지방자치단체주도형 ② 지역주민주도형 ③ 지역민간기업주도형 ④ 제3섹터방식
개발형태		① 지역관광단지형 ② 지역단위 위락단지형 ③ 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지구형
개발영향요인	관광수요 시장요인	① 여행동기 ② 지역관광이용권의 인구수 ③ 여행거리 ④ 여행비용 ⑤ 이용여가시간
	관광공급 대상요인	①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에 기초한 관광대상 ② 고도의 과학기술혁신을 수용한 관광대상 ③ 관광수용력 ④ 관광시설의 적합성 ⑤ 연계관광지의 유무 ⑥ 관광지마케팅과 이미지
개발접근 방법 요인	공간구조론적 요인	① 관광대상의 집중입지 ② 주변관광지와의 연계 ③ 관광대상지의 분산입지 ④ 배후도시와의 거리 ⑤ 관광대상지역의 부지규모 ⑥ 지역관광권의 인구규모 ⑦ 경관 및 자연적 조건 ⑧ 지역관광이용권의 사회 ⑨ 각종 교통과의 위치적 조건 경제적 조건
	관광자원론적· 수용력적 요인	① 관광자원의 유형 ② 개발상태 ③ 관광시설의 종류 ④ 개발기간 ⑤ 주변토지이용의 관계 ⑥ 개발규제

자료 : 김홍운 공저, 관광개발론, 형설출판사, 1996.

지역개발적 접근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점관광개발 모형은 개발주체 및 개발형태에 준거하여 개발목표의 최적화를 달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개발주체에 따른 관광공급 대상요인의 검토와 개발형태에 따른 관광수요시장요인의 검토 결과를 조화·조성시켜 공간구조론적 측면과 관광자원론적·수용력적 측면의 개발접근방법요인을 선택하는 개발수행과정을 통해 개발결과가 평가되도록 모형을 설정하고 있다. 설정된 모형은 제반 요인들의 분석 틀에 준거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모색되었다.

첫째, 참여성으로 개발목표의 설정범주에 관광자의 욕구와 관광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개발목표의 최적화이다.

둘째, 연계성으로서 개발주체 및 개발형태가 각각 차별화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조합되어 관광수요시장과 관광공급대상지역의 특성을 특화시킴으로써 개발형태의 상호보완적 관계속에서 연계되어야 한다.

셋째, 조화성으로서 관광공급대상요인, 관광수요시장요인, 그리고 개발접근방법요인에 준거하여 개발주체 및 개발형태에 따라 개발목표를 최적화시키도록 각 부문간의 연대와 기능의 분담이 통합·조정되어야 한다.

이상의 참여성, 연계성, 그리고 조화성에 준거한 거점관광개발 모형은 [그림 II-5]와 같다.

설정된 모형을 개발주체별로 구체화시켜 보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주도형은 개발목표로 관광지역주민의 생활권 보장, 지방자치단체별 관광자원개발 기회의 확대, 그리고 지역의 고용·소득효과 창출 등과 관계가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지역관광자의 욕구 충족 및 관광지역주민의 생활권 보장과 동시에 앞으로 지방화시대의 관광자원개발에서 중요시될 지방자치단체별 관광자원개발 기회의 확대가 강조됨을 의미한다. 관광공급대상요인은 관광시설의 적합성 및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에 기초한 관광대상과 관계를 보인다. 즉, 과거와 같이 지정에 그치는 공공주도형의 전시적 관광자원개발이 아니라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관광자원개발을 의미하고, 지역관광의 특화 차원에서 역사·문화자원이 복원에 기초한 관광대상개발이 강조된다.

개발접근방법에서 공간구조론적으로는 관광대상을 어떻게 입지시킬 것인가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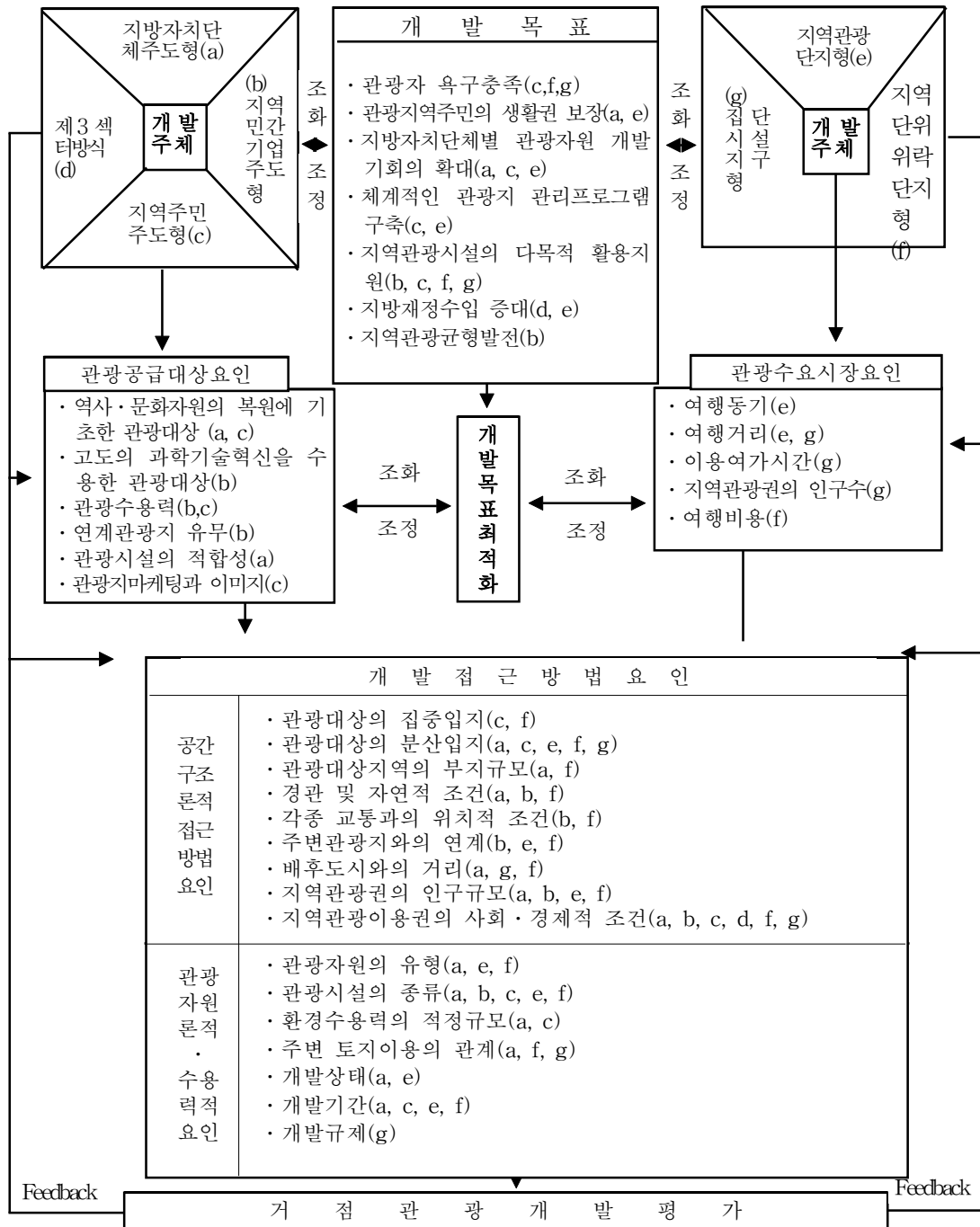
한 입지론적·배치론적 측면이 강하다. 과거와 같은 지역배분적 입지가 아니라 지방화시대의 지역관광촉진 측면에서 자치단체별 관광대상의 특화적 분산입지가 매우 중요시된다. 또한 관광자원론적·수용력적 접근에서는 관광자원의 유형, 관광시설의 종류, 환경수용력의 적정규모, 주변토지이용과의 관계, 개발상태, 그리고 개발기간 등과 관계가 있다. 설정된 모형에서는 과거처럼 수동적인 관광자원개발정책보다는 환경수용력의 적정규모 안에서 지역특화적 관광자원이 효율적으로 조합될 수 있도록 개발주체로서의 능동적인 역할과 기능이 강조된다.

둘째, 지역민간기업주도형은 개발목표요인으로 지역관광시설의 다목적 활용지원 및 낙후지역 균형발전과 관계를 보인다. 일반적인 관광자원개발에서 지역민간기업주도형의 개발목표는 단지 지역관광자의 욕구충족에 초점을 둔 기업경영적 측면만이 강조되었지만 앞으로 거점관광개발에서는 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관광시설의 다목적 활용지원이란 개발목표도 강조되어야 한다. 관광공급대상요인은 연계관광지 유무, 고도의 과학 기술혁신을 수용한 관광대상, 그리고 관광수용력 등과 관계되는데, 특히 지역민간기업주도형은 위락단지개발형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따라서 관광대상의 내용면에서 과거의 단순놀이시설보다 고도의 과학기술을 수용한 놀이의 장과 교육의 장이 동시에 추구되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개발접근방법요인에 있어서 공간구조론적 관광대상의 집중입지가 강조되었으나 설정된 모형에서는 지역관광수요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각종 교통과의 위치적 조건이 중요시된다. 또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지역관광이용권의 인구규모 및 사회·경제적 조건도 매우 중요시된다. 관광자원론적·수용력적 접근에서 지역민간기업주도형은 기업경영적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모형에서는 관광시설의 종류가 개발사업의 결정적 요소가 된다. 이러한 관광시설의 종류는 공간구조론적 요인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소이고, 지역관광이용권의 경제·사회문화적 수준과도 관계되는 다면적·복합적 특성을 포함하는 요소이므로 개발주체로서 지역민간기업주도형은 관광시설의 차별화 및 특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림 II-5]

거점관광개발 모형



자료 : 김홍운 공저, 관광개발론, 형설출판사, 1996.

셋째, 지역주민주도형은 사실상 독자적으로는 개발주체적 기능이 미약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민간기업과 조합되어 제3섹터방식에 의한 구성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역주민주도형은 지방자치단체별 관광자원개발 기회의 확대, 지역관광시설의 다목적 활용 지원, 관광지역주민의 편익, 그리고 체계적인 관광지관리프로그램 구축 측면에서 관광지역의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개발목표의 설정이 강조된다. 관광공급대상요인은 관광수용력,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에 기초한 관광대상, 그리고 관광지마케팅 및 이미지 등과 관계를 보인다. 이는 지역주민주도형이 지역공동의 편익과 지역특화적 관광공급대상의 장점을 강조하지만 주체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부문과의 효율적인 조합이 바람직하다.

개발접근방법에 있어서 지역주민주도형은 관광공급대상의 집중·분산정도에 따라 공간구조론적으로 집중·분산되는 관광자원개발접근을 지향한다. 이는 개발주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주도형은 지역관광이용권의 사회·경제적 조건에도 매우 많은 영향을 받는데, 이 경우 관광자원개발 그 자체가 관광지역주민의 사회·경제현상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관광자원론적 접근에서는 관광시설의 종류-지역관광자원에 준거한 관광시설의 특화-가 매우 중요시된다. 수용력적 접근에서는 환경수용력의 적정규모와 개발기간 등이 관계되는데, 이는 관광공급대상지역 자체가 생산의 장이자 놀이의 장이기 때문에 설정된 모형에서도 적정한 환경수용능력에 준거한 보전적 관광자원개발 측면이 강조된다.

끝으로 제3섹터방식은 부문간 조합의 특성에 따라 개발목표 설정에 차이가 있다. 과거 지역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조합되는 섹터방식에서는 지역관광자의 욕구충족만이 강조되었지만 앞으로 지방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 차원이 개발목표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설정된 모형에서는 지역의 고용·소득효과와 지방재정수입의 증대가 일차적 개발목표가 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관광자의 욕구충족도 중요한 요인이다.

개발접근방법에 있어서 제3섹터방식은 여러 개발주체의 조합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따라서 관광공급대상과 관련된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구조론적으로 집중적이거나 분산적이기보다 관광공급대상을 연계시키는 연계성이 강조된다. 관광자원론적·수용력적 접근의 중요도가 떨어지고, 개발주체가 관광공급대상과 관광수요시장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합되기 때문에 개발대상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광시설·관광자원의 차별화와 적정수용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한편, 개발형태별로 모형을 구체화시켜 보면 첫째, 관광단지형은 개발목표로 관광지역주민의 생활권 보장, 지방자치단체별 관광자원개발 기회의 확대, 그리고 지역의 고용·소득효과 창출 등이 강조된다. 즉, 관광단지형은 개발의 공간적 범위가 넓고 개발효과 또한 크기 때문에 개발목표의 설정도 단순한 관광자원개발적 접근보다 지역발전적 효과에 초점을 둔 특화적 관광자원개발이 바람직하다. 모형에서의 관광단지형은 관광지역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관광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지역의 고용·소득 효과 및 지방재정수입의 증대 등 개발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개발이 강구되어야 한다.

관광단지형의 개발주체는 지방자치단체주도형과 제3섹터방식이 적합하다. 관광공급대상요인은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에 기초한 관광공급요인과 관광시설의 적합성요인이 매우 중요시되며, 관광수요 시장요인은 여행동기와 여행거리에 대한 정확한 연구조사를 필요로 한다.

관광단지형은 개발접근방법상 개발기간이 장기적이고 개발비용도 많이 소요되며 개발대상면적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간구조론적 접근에서는 배치론적으로나 발전론적으로 매우 많은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공간배치론적으로 집중전략을 따르지만 단지내에서의 관광대상 배치는 분산입지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공간의 발전론적 접근에서는 주변관광지와의 효율적인 연계를 모색함으로써 관광지 라이프사이클 초기단계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시된다. 또한 관광자원론적 접근에서 보면 관광자원 유형 및 관광시설의 종류에 따라 산악·해양·문화중심형으로 세분화된다. 이 세분화 영역에 따라 관광단지의 특성도 달라질 것이다. 또한 수용력적 접근에서는 개발상태와 개발기간이 매우 중요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락단지형은 한정된 공간에 단기간 동안 집중적 투자를 하므로 개발목표는 무엇보다도 지역관광수요의 특성에 부합되어야 한다. 특히, 위락단지 가운데 주재공원이나 여가단지 등은 관광수요 시장지역과 밀접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광시설의 다목적 활용(놀이의 장, 교육의 장, 그리고 미래 체험의 장 등) 지원 역시 중요시된다.

위락단지형의 개발주체는 지역민간기업주도형과 지역주민주도형이 적합하다. 관광공급대상요인은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에 기초한 관광대상, 고도의 과학기술혁신을 수용한 관광대상, 관광수용력, 연계관광지의 유무, 그리고 관광지마케팅과 이미지 등의 요인이 매우 중요시되며, 관광수요시장요인은 여행비용 요인만이 강조된다.

위락단지형은 개발접근방법상 공간구조론적으로 관광대상지역의 부지규모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는 위락단지형의 특성상 공간규모 및 시설규모가 단지의 관광가치를 결정짓는 중요요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접근성(각종 교통과의 위치적 조건)이 중요시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에 의해서 관광수요의 유발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단지의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 특히 위락단지형은 일반적으로 당일관광에 준거하므로 배후도시와의 거리 및 지역관광이용권의 인구규모도 공간구조론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다. 관광자원적 접근에서 위락단지형은 여가단지, 교외공원, 그리고 주재공원으로 세분화되는데, 이는 관광자원의 유형 및 관광시설의 종류에 따라 차별화 된다. 또한 각 세분유형들은 수용력적 측면의 주변토지이용과의 관계 및 개발기간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끝으로 자연공원내 집단시설지구형은 여행상품개발에 있어서도 중요한 관광거점 지역(자연공원지역 내에서 보전보다 개발이 우선되는 지역이므로 관광자에게 관광욕구를 충족시키는 목표도 중요시되고, 대상지역에는 긍정적 파급효과도 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집단시설지구형은 자연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적인 개발목표보다도 전체대상지역시스템 내에서 개발목표의 종합화가 요구된다.

집단시설지구형의 개발주체는 지방자치단체주도형과 제3섹터방식이 적합하다. 관광공급대상요인은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에 기초한 관광대상과 관광시설의 적합성이 중요시되며, 관광수요시장요인은 여행거리, 이용여가시간, 그리고 지역관광권의

인구수 요인 등이 강조된다.

집단시설지구형은 개발접근방법상 자연공원 내에 위치하게 되므로 자연공원 이용특성에 따라 공간구조론적으로 관광대상을 분산입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연공원내 집단시설지구로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배후도시와의 거리등에 따라 시설개발의 특성이 차별화되어야 한다. 관광자원론적·수용력적으로 자연공원법 내에서 이용가능하고 개발과 보전 차원에서 개발이 우선시되는 관광자원개발지역이므로 수용력적 측면에서 주변토지이용과의 관계 및 개발에 관련된 제반 규제요인이 매우 중요하다(김홍운, 김사영, 1996).

5) 이론검토의 시사점

관광자원이나 매력물은 분산되어 독립적으로 있기보다는 모여 있거나 연계되어 있을 때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나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지역별 관광지 광역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관광지간 상호 보완적이 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에서 반영하고, 지역내 전반적인 관광지 관리기능을 제고하도록 한다. 특히 관광지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광역권내에서 지역간 협동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광역관리체계 하에서는 각 관광지는 개발정도나 이용도에 따라 차별화가 이루어져 과도한 관광지의 지정이나 단위 관광지 별 개발경쟁을 억제할 수 있어 환경훼손이나 시설의 사업성 증대차원에서도 유리하다. 일본의 고베시의 경우 관광시설의 개발은 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관광과에서는 관광진흥 측면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홍보, 공동홍보물 제작 등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인근의 세도나이가 전지역에 걸쳐 인접지역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국토연구원, 2001) .

관광개발에 있어서 집중과 분산전략은 최대의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적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집중개발에 기초한 성장거점전략(growth center strategy)은 규모의 경제 잇점 및 확산효과를 가져오게 하며, 반면에 분산전략은 이용함으로써 특정관광공급대상지역에 더 이상의 개발을 억제하고 다양한 공간입지의 관광개발을 통해 특정 관광공급대상지역과 여타 외곽관광지가 계속 성장하도록 하는데 조합전

략이 중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안면도와 같이 자연환경이 양호하게 보존된 지역에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거점관광개발에 의한 접근 방법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단위 관광지 개발계획에서는 주변의 타 관광지와의 광역적 연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일 관광지 중심의 시설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따라서 유사한 시설의 중복개발 및 과도한 시설개발로 관광객 저조에 따른 경제성 미흡으로 기존 관광지 투자의 기회는 물론 신규관광지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국비 등의 분산지원으로 공공자금 지원의 효용성이 감소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관광지는 계절성, 요일성 등으로 단순히 피크시를 중심으로 시설개발을 하기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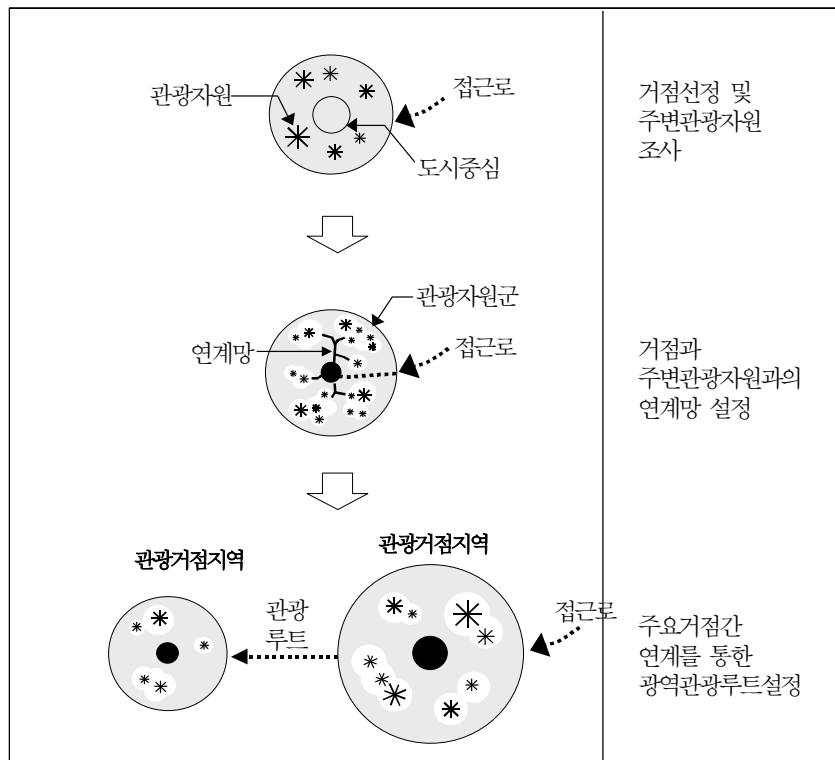
따라서 개발계획이나 조성계획의 수립 시 현재의 단일 관광지 중심의 과도한 시설계획에서 탈피하여 광역적인 차원에서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거점지역에 관광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다양한 관광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계절성을 극복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며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거점지역 또는 거점관광지 이외의 지역에서는 기본적 편의시설만 소규모로 개발하도록 한다. 이러한 거점개발방식의 도입은 환경보전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며 사업의 수익성을 증대하여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거점개발 방식에 있어서 거점지역의 선정은 반드시 관광지일 필요도 없으며, 인근에 도시가 있는 경우 도시시설을 적극 활용한다면 도시도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고 관광지에서는 비수기로 인한 시설의 유향화를 방지할 수도 있다(국토연구원, 2001).

안면도는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된 꽃지지구로 중심으로 국제관광지를 조성중에 있고, 주변에는 각종 민박형 숙박시설과 휴양시설들이 관광개발의 기준이나 지침이 없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에 의한 관광지 개발방식의 채택이 필요하다. 이렇기때문에 국제관광지 조성지구를 집중지구로 하여 주변의 다양한 관광자원들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분산하는 허니포트형(honey-pot) 관광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꽃지를 중심으로한 국제관광지가 관광핵심 거점이 되고 주변의 관광자원

간의 연계망을 설정하여 주요 거점간을 연계하는 광역관광루트를 설정하여 환경친화적이면서 지역특성의 자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관광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관광개발의 접근개념은 다음 [그림 II-6]과 같다.

[그림 II-6] 거점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루트 선정 절차도



자료 : 충청남도·국토연구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구상 및 지정타당성 조사연구, 2001.

2. 관광지 개발개념과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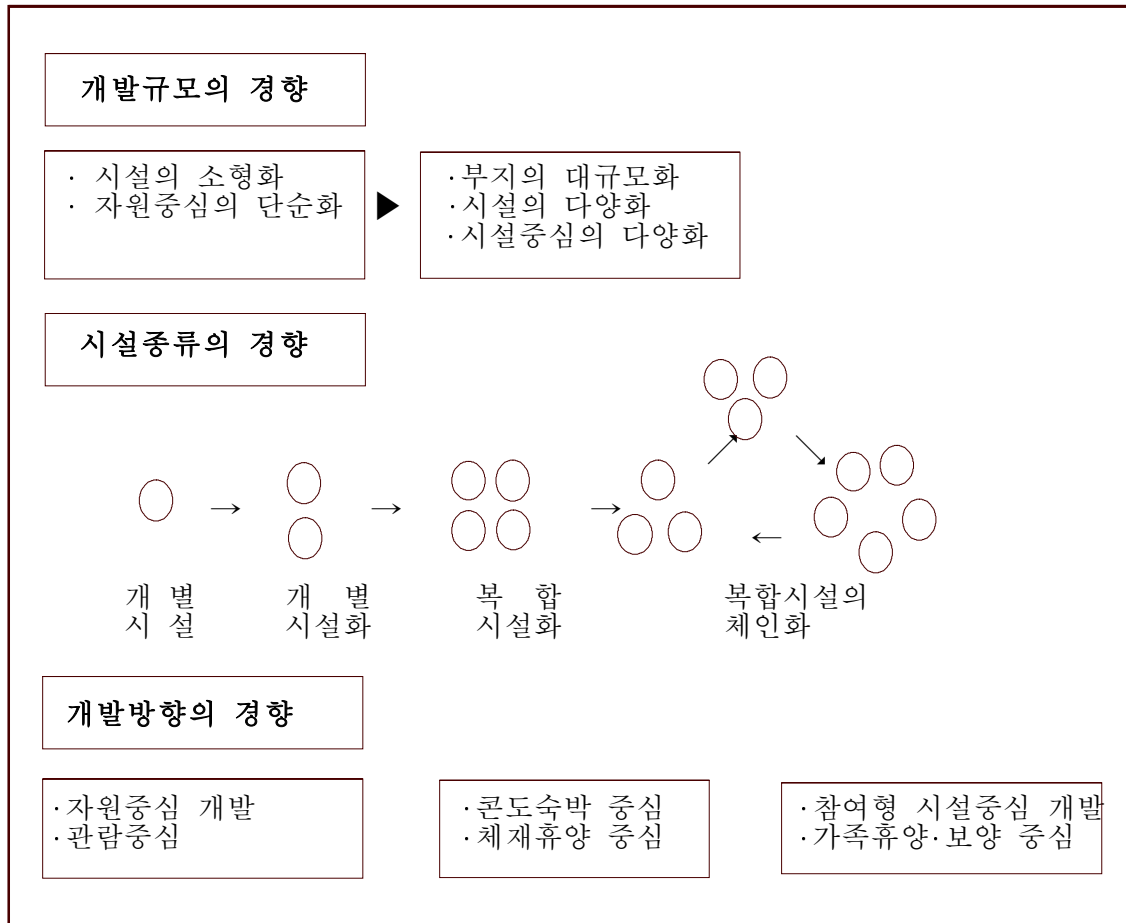
1) 관광지의 개념과 개발동향

관광지는 관광객이 그의 일상생활 공간을 떠나서 자신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일정시간 동안 체재하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관광지 개발은 관광자원의 현재 상태를 인간의 지혜, 노력, 자본투입으로 현재 현상보다 나은 지역으로 개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관광지는 관련법규에 따라 자연공원,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시공원, 유원지, 농어촌 휴양지 및 온천지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그 성격에 따라 주제공원, 휴양지, 레포츠시설, 공원 및 기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안면도 국제관광지의 경우는 관련법규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지정되어 개발되고 있다.

최근 관광지의 개발사례는 소형이 개발규모, 자원중심의 개발에서 점차 시설의 다양화, 시설부지의 대형화로 탈바꿈하고 있다. 시설종류의 개발경향은 개별시설 중심개발에서 점차 복합시설의 개발로 이어지며 체인화함으로써 비수기의 문제점과 지역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관광지의 개발경향은 기존의 자원중심, 관광중심의 개발에서 콘도 등 숙박중심의 체재형 시설로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참여형 시설중심, 스포츠위락시설중심, 가족전문 휴양시설로 변모할 것이다(임주환외, 1998).

바람직한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는 종래의 관광지개발과는 다른 컨셉트를 적용하고, 전통적인 관광지개발 정책과는 다른 차별화된 관광정책(differentiating tourism policy)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경성관광(hard tourism)보다는 연성관광(soft tourism)의 개념에 착안하여 공격적(적극적)개발보다는 방어적(통제적)개발을 추구하고, 신속적이기보다는 점진적이어야 하며, 분야별 개발보다는 통합적 개발을 지향하고, 소비주의 보다는 가치의식을 추구하고 성장보다는 발전, 자연문화자원의 남용보다는 유산의 보존에 치중하는 정책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의 지속가능한 관광지개발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원리는 다음과 같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 : 임주환외, 관광지개발론, 백산출판사, 1998.

첫째, 새로운 경제질서에 부합될 수 있도록 '환경의 질' 보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것은 물리적·양적·환경파괴적인 극대화 개념을 경성관광을 삼가고 조용히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사색적 관광, 환경과 문화재의 보존과 보전의 조화, 관광객과 지역주민간의 진정한 상호작용을 도모,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질적인 접근인 연성관광을 지양하여야 한다. 연성적 관광만이 환경적 충격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둘째, 관광의 진정한 원료인 자연환경과 인간, 그리고 경제간의 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은 인간과 경제에 대한 생명막의 구실을 한다는 자연법칙(law of nature)에 의거하여 균형개발, 유기적인 조화가 강조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환경은 인간과 경제의 모체이기 때문이다.

셋째, 지나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자연에 대한 귀향심과 퇴행심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자연지향적 관광지개발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관광자원의 개발은 생태적 훼손을 일으키지 않는 새로운 관광코스과 목적지가 되기 위하여 기능적 연합과 공간적 집락을 형성하여 집중에서 분산을 도모하여야 한다.

넷째, 시장경제의 맹점인 공해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관광기업의 녹색마케팅(green marketing)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녹색마케팅은 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으로서 이 마케팅은 사회 생태적 마케팅의 성격을 띠고 있다. 녹색마케팅은 산업사회의 특징인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자연의 파괴,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소비자 집단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환경보호와 환경오염의 방지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성에서 나타난 것이다.

다섯째, 어떠한 지역에서도 관광객, 관광지, 지역주민의 요구간에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의 관광지개발에서는 관광객이든 관광지든, 나아가 관광지 지역주민이든 어느 한쪽의 이익극대화를 도모하는데 주력하였고, 이로 인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이 다르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도 마찰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향후의 지속가능한 관광지개발은 개발에 따른 환경적 편익과 부작용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관광지개발에 있어서는 그 참여주체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광공기업과 민간기업, 관광객 그리고 환경관련 기관간의 이질적·독자적 개발보다는 협동적 노력을 통하여 개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광지 개발과 운영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관광지의 기능체계는 기본적으로 수요(시장)측면과 공급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급측면의 4개의 구

성요소는 교통, 매력물, 서비스와 정보·관측으로 이루어져 있다. 군(Gunn)이외에도 자파리(Jafari), (1982) 밀과 모리슨(Mill & Morrison) (1985)등도 약간의 견해차이는 있지만 구성요소들을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다. 군(Gunn)이 주장한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관광자)이 수요측면에서 단지 주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언급하는 것은 시장의 중요성을 과소평가 하는 것과 같다. 관광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나 관광을 할 수 있는 수요가 없이는 관광이 개발되어질 수 도 발전할 수 도 없다.

여기에서 계획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관광자들의 거주지, 선호 참가하는 행태, 그리고 지출 규모 등을 들 수 있다. 계획가는 시장(관광자)이 관광의 공급측면의 요소들과 어떻게 관련 되었는가를 반드시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매력물은 각종의 물리적 환경이나 멋진 건축물 등은 관광자들을 결국 목적지까지 끌어들이는데, 관광의 기능적 체계측면에서 보면 매력물을 식별하고 계획·관리해야 한다. 매력물은 누가 소유하고 있고, 또 공급을 하는가에 관계없이 방문자를 유치하여 활동에 참가하게 한다.

셋째, 서비스 시설은 경제적 투입이라는 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호텔, 모텔, 음식점, 음료시설 등의 서비스 시설이다. 관광객들이 이들 서비스와 시설을 얼마만큼 이용하느냐가 이들 시설의 공급에 있어서 관건이 된다.

넷째, 교통은 관광발생지와 목적지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으로 아주 중요하다. 육상, 항공, 수상에 갖추어진 교통시설, 교통수단의 다양성, 교통편의 편리성 등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 곧 접근성에 해당한다. 접근성은 관광목적지의 번영에 중요한 성패요인이 된다.

다섯째, 정보 및 관측활동에서 사람들은 관광경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근거로 목적지와 일에 대한 의사를 결정한다. 이들에게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 및 설명을 통하여 관광자들의 만족수준을 높이고, 관리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관광지는 사람들의 욕구에 맞추어 체험획득을 위한 기회의 제공과 자원의 생태계 및 물리적 조건에 보조를 맞추면서 수평적인 조화의 논리로 유도되어야 한다.

따라서 합리적 관광지 계획은 합목적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수요의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결과적 활동의 추적에 앞서 인간욕구에서 기인된 심리적 현상의 규명으로 잠재적 수요뿐만 아니라 장래 수요행태의 전망을 시도하고 다음에 공급의 측면에서는 특성별 자원의 분류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용객과 자원 양자의 관계성에 의해 개발과 보존의 균형체계가 달성되도록 되어야 한다. 아울러 경제적 접근법의 채용으로 과학적 기법에 의한 논리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관광지와 같이 계획과정에 관광위락인구(이용자)와 자원을 취급하는 방법에 따른 일반적 접근론으로서는 자원지향적 접근법과 활동성과지향성 접근론, 경제적 접근론, 행태지향적 접근법등 크게 4가지의 대안적 접근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자원지향적 접근방법은 물리적 자원조건에 의한 자연자원이 관광위락의 욕구와 선호행태 및 그 양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는 접근론이다. 이는 이용자의 욕구와 위락동기의 측면보다는 자연적 행태요소의 고려를 전제로 하여 위락장소의 양적인 공급과 자원의 특정관리가 강조되며 계획과정은 관련 지역주민의 의사반영으로 생태계의 결정론에 좌우되게 된다. 이는 민간자본에 의한 자발적 관광위락단지 개발계획에 통제·규제적 기능과 국립공원 및 역사적 장소 등의 개발계획에 채용되는 방법으로 자원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계획과정과 의사결정의 조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용자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체험을 느끼게 하는 기회제공을 위한 장소의 연출에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2) 관광지 개발을 위한 지정 및 개발절차

관광지의 법적인 의미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 제2조 6항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관광지 또는 지정관광지로 불린다. 관광지의 지정은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하며 개발제한 요소가 적어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관광정책상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관광객의 관광활동에 필수적인 진입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식

음료대,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관리사무소, 안내도 등 기반시설과 야영장,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력단련시설장, 탈의장, 물품보관소 등 공공편익시설은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외 이용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등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하는 지역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관광지를 확대·개발함으로써 국민이 자유롭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관광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정책과 관광진흥을 통한 지역소득 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관광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 관광진흥법 제2조 7항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시설 기준을 보면 관광지는 당해 지역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 및 면적이 <표 II-5> 가목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나목 내지 마목의 요건은 갖추지 아니한 지역을 뜻하며, 관광단지는 당해 지역 안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 및 그 면적이 <표 II-5>의 가목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관광지 지정시설 요건은 관광객의 이용에 충분한 화장실 주차장, 상하수도 시설 등 관광객의 이용에 기본적인 공공편익시설만 갖추면 관광지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반면에, 관광단지는 공공편익시설 외에 다양하고 보다 고급의 숙박시설, 휴양·놀이시설 등을 갖추고 면적도 1km² 이상이 되어야 하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관광지는 특정 또는 유명한 자연적·문화적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하여 관광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익시설을 갖춘 지역을 말하며, 관광단지는 특정 또는 유명한 자연적·문화적 관광자원이 없더라도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 개발하는 관광지 보다 대규모로 개발되며 고급의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 개발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관광지의 유형 및 시설의 종류에서 관광지의 유형 분류에 대한 뚜렷한 기준은 없다. 유형구분은 흔히 대상 관광자원의 자연성에 따라 크게 자연자원 의존형과 인공자원 의존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자원의 성격에 따라 세분된다. 먼저 자연자원 의존형은 산악형, 내수면형, 해안형, 온천형 관광지로 구분될 수 있으

며, 인공자원 의존형 관광지는 도시관광지와 관람형 관광지 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관광시설의 기능, 체제시간, 이용객 수, 시장유형 등에 따라 관광지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지역경제발전 측면에서 단순한 지역주민의 여가를 위한 공간과 산업자원으로 구분도 가능하다.

<표 II-5>

관광지·관광단지 구분기준

시설구분	시 설 종 류	구 비 기 준
가. 공공 편의시설	화장실·주차장·전기시설·통신시설·상하수도시설 및 관광안내소	각 시설이 관광객의 이용에 충분할 것
나. 숙박시설	특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가족호텔·전통호텔·일반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3종류 이상일 것
다. 휴양놀이 운동시설	민속촌·해수욕장·수렵장·동물원·식물원·수족관·온천장·동굴자원·수영장·농어촌휴양시설·산림휴양시설·박물관·미술관·활공장·자동차야영장·관광유람선 및 종합유원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유원시설업의 설비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2종류 이상일 것
	골프장·스키장·요트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종합체육시설·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의 등록기준, 한국마사회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기준 또는 경륜·경정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1종류 이상일 것
라. 접객시설	관광공연업장·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점·관광유흥음식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의 기정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충분할 것
마. 총 면 적		1,000,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주 : 마목의 총면적은 시·도지사가 당해 지역의 개발목적·개발계획·설치시설 및 발전 전망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4.

우리 나라에서는 다양한 법률에 의거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관광지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들 관광지는 전반적으로 관광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정·운영되고 있는 관광지 유형을 보면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 관광단지,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공원, 유원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자연공원, 온천법에 의한 온천지구,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스키장, 골프장 등이 있다. 이러한 분류는 관광지 조성근거가 되는 법적인 측면에서의 구분으로 실제 유원지, 관광지, 관광단지 등은 이용행태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시설의 규모와 종류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 중 본 연구의 대상인 지정관광지는 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어 관광 및 휴양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곳이라 정의하고 있다. 관광지 지정 요건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천연적인 조건과 역사적 유물·문화재·전설 등의 관광자원이 있는 지역으로서, 주위 환경이 관광 및 휴양에 적합하며 접근수단의 개발이 용이한 지역과 관광정책상 관광지로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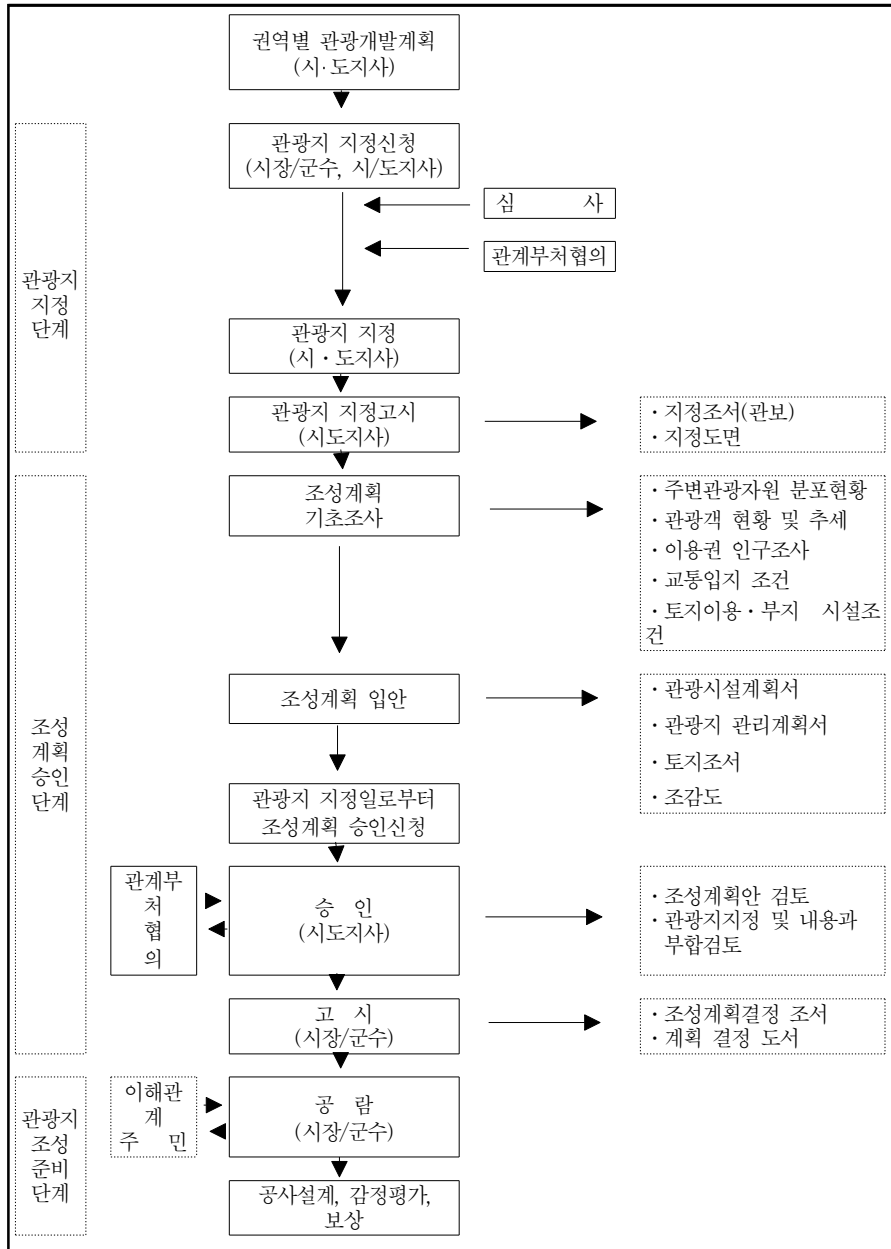
따라서 시·도지사가 관광지를 지정할 목적으로 시설용지지구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의 관광지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주무부장관인 문화관광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게 된다.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의 목적은 첫째, 관광자원의 가치상실이나 훼손을 최소화하여 경관미를 보전하기 위함이며, 둘째, 관광자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셋째, 국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건전한 여가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넷째,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 및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것이다.

관광지를 지정하는 절차는 관할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부처의장과 협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준도시지역내 시설용지지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 없이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 그 이유는 관광지를 지정할 목적으로 시설용지지구를 지정할 때 이미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II-8]

관 광 지 지정 절차



관광지 개발에 과정상의 문제점 중에서는 개발 투자미흡, 국가지원금 부족 등 관광지 개발상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48.9%), 다음으로 조성계획(27.2%), 운영 및 관리(12.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시·군 담당자들은 실제 개발단계에 나타나는 문제점 즉, 투자유치의 어려움, 개발 지연 등을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는 반면, 관광 전문가들은 사업성 검토와 전문성 결여 등의 조성계획의 문제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관광지 개발상의 문제점에서 첫 번째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재정 문제를 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민자유치가 가장 문제라고 응답하였다. 국비와 지방비는 산발적인 지원으로 체계적이고 원활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²⁾ 이와 함께 국비의 경우 많은 관광지 지원에 따른 소규모 지원을, 지방비는 너무 적은 금액의 지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민자의 경우 민자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이유로는 민간개발업자의 사업부도, 투자 지연 등 최근의 경제불황(43.6%)이며, 다음으로 타 사업에 비해 사업성 부족(33.0%), 기타 부동산 투자 등 다른 부가·연계 사업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9.6%), 민자유치와 관련한 행정절차 등이 까다롭고 복잡해서(6.4%) 등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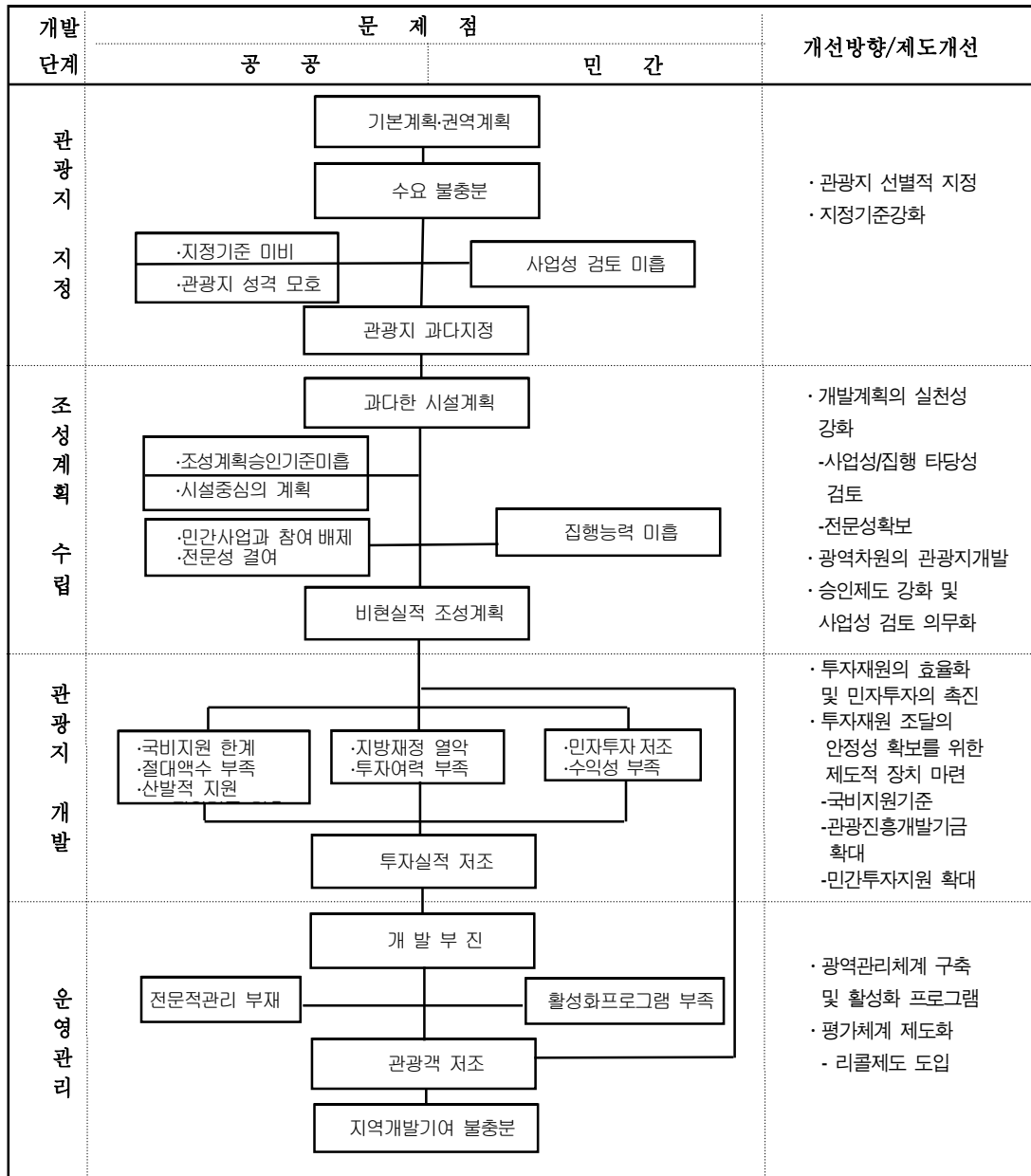
특히, 전문가들이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실성 결여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유로는 사업성검토미흡(28.0%)이 가장 큰 원인이며, 다음으로는 유사한 시설의 과다도입(25.5%), 조성계획 시 복잡한 행정절차(16.0%), 조성계획 담당자의 비전문성(16.0%)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성계획 수립 시 중요한 고려사항은 사업타당성 조사(43.6%)와 수요조사(25.5%)와 함께 환경여건분석과 관광행태 분석도 아울러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광지들이 차별화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정된 유사시설 도입(50.0%), 사업운영 미흡(23.4%)을, 현재 개발과정의 문제로는 지역주민과의 마찰, 복잡한 행정절차, 공공차원의 계획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로는 예상보다 저조한 방문객 수 34.4%, 비수기문제 25.8%, 비전문적인 운영방식 18.3%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수기 문제를 제외한 저조한 방문객에 대해서는 83.0%가 관광지별 차별성의 부재라고 답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소규모 시장규모, 주변 관광지와의 경쟁, 홍보 및 광고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국비문제 중 총 29명(30.9%), 지방비문제 중 총 36명(38.7%)이 재원별 문제점 중 산발적으로 지원되는 국비·지방비 문제점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그림 II-9]

관광지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제도



자료 : 윤양수, 지역개발측면에서 본 문화 관광사업 실태와 대책, 국토연구원, 2001.

또한, 관광지 개발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지정관광지의 차별화 미흡과 과도한 관광지 지정, 관광지 조성계획의 현실성과 타당성 결여, 저조한 관광지 개발투자, 방문객 저조와 관광지 활성화 대책 미흡 등을 지적하고 있다(국토연구원, 2001).

3) 이론검토의 시사점

우리나라의 관광지에서 지정관광지로 구분되는 안면도 국제관광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이고, 관광진흥법상은 관광지로 지정되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관광지의 최근 개발사례는 소형의 개발규모, 자원중심의 개발에서 점차 시설의 다양화, 시설부지의 대형화로 탈바꿈하고 있다. 기존의 자원중심, 관람중심의 개발에서 콘도 등 숙박중심의 체재형 시설로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참여형 시설중심, 스포츠위락시설중심, 가족전문 휴양시설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장래의 관광환경변화에 적합한 안면도 국제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관광지개발과는 다른 컨셉트를 적용하고, 전통적인 관광지개발과는 다른 차별화된 관광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관광지 개발개념에 있어서 기존의 경성관광(hard tourism)보다는 연성관광(soft tourism)으로 전환하고, 분야별 개발보다는 통합적 개발을 지향하고, 소비주의보다는 가치의식을 추구하고 성장보다는 발전, 자연문화자원의 남용보다는 유산의 보존에 치중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지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관광지 개발과 운영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관광지의 기능체계는 기본적으로 수요(시장)측면과 공급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에는 공급측면의 4개의 구성요소는 교통, 매력물, 서비스와 정보·편축 등의 구성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관광지와 같이 계획과정에 관광위락인구(이용자)와 자원을 취급하는 방법에 따른 접근론에 의한 자원이향적 접근법과 활동성과지향성 접근론, 경제적 접근론, 행태지향적 접근법등 크게 4가지의 대안적 접근방법에서 안면도 국제관광지

의 경우는 자원이향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이용자의 욕구와 위락동기의 측면보다는 자연적 행태요소의 고려를 전제로 하여 위락장소의 양적인 공급과 자원의 특정관리를 강조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민간자본에 의한 자발적 관광위락단지 개발계획에 통제·규제적 기능을 계획에 적용하여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승인된 관광지 조성계획을 관광환경의 변화와 지역 관광여건의 현황과 변화를 고려하고, 외자 또는 민자유치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고려하여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해안관광지 개발이론가 사례

1) 해안관광지의 개념과 개발형태

해안관광지의 개념은 해안에서의 자연경관 감상과 함께 활동성레저가 주를 이루는 관광지로 이해되고 있다. 즉 비치나 마리나를 핵으로 다양한 해양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숙박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점에서 기존 산악형 관광지와는 구별되고 있는데, 바다 특유의 기상 및 해상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용일수가 짧은 것이 단점으로, 이를 극복하고 사업채산성을 높이기 위해 실내스포츠(Indoor sport)시설 및 영화관 등의 다양한 위락시설을 배치하고 각종 강습강좌 및 시뮬레이션(Simulation)시설, 컨벤션센터(Convention center) 등이 복합적으로 설치되기도 한다.

해안관광지 개발은 일반적으로 육지부, 해안지역, 해양지역의 3개소의 공간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육지부 개발이라 해도 바다와 일체가 된 자연경관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매립에 의한 인공섬이나 마리나의 경우에는 인공적인 해안선과 육지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해안역 개발은 마리나(Yacht Harbour) 및 해수욕장(Beach)을 중심으로 레스토랑, 수영장 등의 시설이 추가 되어 이루어진다. 물론 해

양스포츠키의 발전기지 역할도 하고 낚시나 해양공원의 장으로서도 중요하다. 해상개발은 오래 전부터 소형관광유람선 및 낚시배로부터 호화 여객선에 의한 세계일주 여행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이용이 있었으나 근래에 들어와서는 선박이라고 하는 시설 측면뿐만 아니라 이벤트 유치, 다양한 프로그램의 요트활동 등의 소프트웨어 측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II-6>

해안관광지의 개발형태

형 태		내 용	
개발 형태	해수욕장형	모래사장을 살린 해수욕장을 핵으로 하는 기지	
	마 리 나 형	활동적 수면을 살린 마리나를 핵으로 하는 기지활동	
	종 합 형	해수욕장과 마리나를 포함한 종합적인 기지	
이용 형태	당 일 형	시장에서 1시간권	
	주말 이용형	시장에서 2-3시간권	
	체 제 형	시장에서 6시간권	
규 모 별	소 규 모	동시수용력: 0.1~0.3만인급, 연간이용자: 5~10만인급	
	중 규 모	동시수용력: 1~3만인급, 연간이용자: 50만인급	
	대 규 모	동시수용력: 3~5만인급, 연간이용자:100만인급	
개 발 방 법	신규개발형		새로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수용에 대응
	기 능 전	현 상 유 지	안정할 만한 대상이었으나, 개발은 눈에 띄지않고 시장성이 나쁘고 수요를 거의 기대하지 못한다.
		보 수	지반이 참하된 기존지구의 재개발 규모를 확대하지 않고 변경하거나 개수
	환 점	개수 /확대	기존개발지구의 개수를 피함과 동시에 개발지구를 확대하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
		고 도 이 용	도시부와 도시근교에 있어서 재개발로 레저기능을 회복

해안관광지 개발의 형식에 관해서는 크게 해수욕장 중심형, 마리나형, 종합리조트
형 등으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 개발방법에 따라 기존 시설의 개수 및 확대형, 어항
등의 타 시설을 전용하는 기능전환형, 신규개발형 등의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다. 또한 이용자들의 특성에 따라 당일 이용형, 주말 이용형, 장기 체제형 등으로 규모에 따라서는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리조트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구분되고 있는 해안관광지 개발 형태별 분류 및 특징에 관한 사항은 <표Ⅱ-6>과 같다.

2) 해안관광지의 형태별 개발방향

이들 각각은 지역이나 크기는 국가적인 상황, 지역의 자연적인 조건, 사회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개발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해수욕장 중심형 개발의 형태를 보이는 곳으로는 해운대와 경포대 해수욕장 지구가 있으며, 마리나형은 부산 수영만 지구를, 종합리조트형으로는 충무 도남, 제주 중문관광단지를 들 수 있다.

① 해수욕장 중심형 관광지

지형적으로 모래해변이 길고 넓으며, 조용한 바다와 비교적 온화하고 쾌청일수가 많은 기후여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해수욕을 중심으로 한 해양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개발에 적합한 형태이다. 활동 종류는 해수욕이 주가 되나 급류타기, 담수풀장 등의 육상위락단지의 활동종류도 함께 구성할 수 있으며, 각종 이벤트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해변축제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또한 비수기 대책의 일환으로 낚시나 모래스키(Sand buggy), 랜드요트(Land yacht)등의 활동을 도입하기도 한다.

해수욕장 중심형 관광지의 도입 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은 <표Ⅱ-7>과 같다. 이와 같은 시설의 도입과 레저 활동의 편의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넓은 모래사장이 요구되며, 배후지와 기온, 바람, 태풍, 천기일수 등의 기상조건, 수온, 수질, 조류, 파고, 해양지질 등의 해양조건 등이 고루 갖추어져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해수욕과 활동을 공유하는 레저활동들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해변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공유 활동의 도입을 위해서는 서로 활동장에서의 중복이 생기거나 어업, 양식 등 생산활동과 마찰의 우려가 있으

므로 사용해양 및 육지의 설정에 유의해야 한다.

<표Ⅱ-7>

해수욕장 중심형 해안관광지의 도입시설

구 분	필 요 시 설
수 영 시 설	수영해수역, 보트전용 출입구역, 다이빙대, 임대 보트, 용구대출소, 담수풀장, 미끄럼대, 보트세일링 구역, 서핑구역, 방파제
위생/탈의시설	탈의장, 귀중품 보관소, 화장실, 샤워장, 세면장, 욕실
휴게/편의시설	간이휴게소, 식당, 매점, 음수전, 피크닉장, 광장, 벤치, 시계탑, 보관시설, 수영용품 대여소
관 리 시 설	관리사무소, 감시전망대, 구호소, 파출소, 매표소, 유실물 관리소, 미아보호소, 안내소, 식당, 보호 울타리
경관/보호시설	수림지, 야생지, 화단
놀 이 시 설	어린이 놀이장, 야외 경기장, 피크닉장, 야외공연장, 산책로
교 통 시 설	도로, 주차장, 대중교통터미널
숙 박 시 설	호텔, 여관, 민박, 캠핑장, 휴양촌, 보양촌, 연금생활자촌

② 마리나형 관광지

마리나형 관광지 개념은 개별시설인 마리나를 핵으로 하고는 있으나, 부대시설 설치와 일체적인 주변정비를 통해 바다를 배경으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및 레저활동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마리나 기지로서의 시설집적 및 변창과 지역과의 연계를 어떠한 방법으로 고려할 것인가가 주요 관건이 된다.

입지조건에 따른 분류로는 자연지형을 이용한 형태와 매립 등에 의한 신규개발형, 기존의 어항을 이용한 재개발형 등으로 구분이 된다. 개발주체에 따라서는 공공개발형과 민간개발형으로 나누어지며, 이용보트의 특성에 따라 소형보트 중심 또는 소형요트 중심, 마리나와 중·대형보트 중심 또는 중·대형요트 중심 마리나로 나누어진다.

<표Ⅱ-8>

마리나형 관광지의 시설구성

구 분			구 성 시 설
기 본 적 기 능	외 형 시 설		방파제, 이안제, 돌제 등 파랑방어 및 해안보호시설
	보 관/계류시설	수역	고정잔교, 부잔교, 계선항, 부표, 급수/급전 시설
		육역	선박보관소
	상하이동시설		램프(Ramp), 지게차, 크레인
	수리/급유시설		기계수리시설, 선박수리시설, 급유시설
	클럽하우스		레스토랑, 탈의장, 보관함, 샤워실, 쇼핑시설, 매점, 연수실, 화장실, 로비
	관 리 시 설		관리사무소, 구난구조시설, 통신시설, 감시전망대, 관제시설, 기상 및 해상정보제공시설
부 가 기 능	주 차 시 설		주차장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시설		담수풀장, 테니스코트, 낚시터, 유원지, 이벤트광장
	숙 박 시 설		임대별장, 리조트 호텔

③ 종합형 해안관광지

종합형 해안관광지는 연중 온화하고 저습한 기상조건, 대도시 시장과의 근접성, 교통조건의 편리성 등 혜택받은 환경조건,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장기체제를 염두에 둔 종합적인 관광지 개발을 지향한다. 본격적인 종합관광지를 위해 육상에 골프장, 승마 클럽 테니스 클럽 등 각종 스포츠 시설, 박물관, 고급의류, 악세사리 등의 쇼핑시설, 공예품 및 미술품 전시판매장, 식도락을 위한 레스토랑 및 식당 등을 집적시킨 도시 시설 및 여가시설의 설치도 필요하게 된다.

유럽의 경우는 해양성 관광지가 주류를 이루나 일본의 경우는 지형적인 여건으로 산악고원형 관광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 나라는 산악형 관광지가 주류를 이루는데, 해안관광지는 대규모의 평탄한 용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지가도 그만큼 비쌀 뿐만 아니라 방파제 등의 주변시설의 설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표Ⅱ-9>

종합형 해안관광지의 시설구성

구 분	주 요 시 설 형 태
해양레크리에이션 시설	마리나, 해수욕장, 해안공원, 바다낚시공원, 다이빙대, 보트세일링 구역, 서핑구역, 담수풀장, 유람선, 해양조류공원
주변레크리에이션 시설	골프코스, 승마장, 테니스코트, 라켓볼장, 롤리스케이트, 볼링장, 공원, 실내체육관, 유원지, 산책로, 야간 레저시설
관광/문화 시설	회의장, 극장, 음악홀, 야외음악당,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수족관, 관광잠수선, 해중전망탑, 해상자료관, 선박박물관, 어업자료관, 지방특산물 전시장
숙 박 시 설	호텔, 콘도미니엄호텔, 여관, 연금생활자촌, 민박, 휴양소, 별장, 리조트맨션, 캠프장, 방갈로
행정/서비스시설	행정기관, 관광안내소, 여행사 대리점, 대중교통시설, 경비행장, 택아소, 하수처리장, 주차장
의 료/건강시설	병원, 진료소, 요양소, 의료원
상 업 시 설	음식점, 토산품점, 식료품점, 일용잡화점, 고급잡화점

<표Ⅱ-10>

주제별 도입활동 및 시설검토

주 제	도 입 활 동	시 설
물 (바다)	스킨스쿠버다이빙, 스노켈링, 수상스키, 제트스키, Ballon Tour, Para Sailing, 수영, 보트타기, 낚시, 겨울바다구경, 조정, 카누타기, 유람	수상분수쇼, 수상스타디움, 수변조각공원, 유람선, 관광돛단배, 산호초, 페달보트
갯벌 (해변)	Air Boat타고 갯벌질주, 관찰, 해산물 채취대회, 해변에서 Race, 해변승마코스, 해변콘서트, 레이저쇼, 연날리기, 불꽃놀이, 캠프파이어, 기타 special events개최, 갯벌바자회, 체력단련, 낙조구경	보트, 해변무대시설, 체력단련코스
야간 (night)	Night Magic Show, 야간식물원관람, 밤낚시, 야간관광코스개발, 야간에 개장하는 주제공원관람, 야간축제행사, 문화행사참가	식물원, 주제공원시설
악천우 또는 비수기	실내 Water Fun Park, 실내 Sauna, 승마, 눈썰매, 스키, 스룹, 겨울바다낚시, 겨울수상활동, 전시관, 박물관 관람	유홍위락시설, sports complex, 승마course, 인공눈썰매장, 겨울등반course, Ice rink (호수), Race Park

<표Ⅱ-11>

활동에 따르는 도입시설 검토

활동구분	주요도입활동	주요도입시설
관람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탐방 · 야생동물, 조류, 식물, 해양관찰, 견학 · 역사유적지탐방 · 드라이브여행 · 특정목적지의 위락시설 관람 	해중전망탑, 해상, 산악전망탑, 수족관, 전망시설, 유적지, 사적지, 자연탐방로, 하이킹코스, 관광도로, 해양순환도로, 방목장, 주제공원(민속촌, Race Park, Water Park, Sea Life Park 등), 화훼단지, 조각공원, 수변공원
휴양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 · 휴식, 휴게 · 쇼핑 건강진단, 산림욕 · 스포츠활동 · 연수, 집회, 교육활동 · 산책, 전망 	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 해상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 야영장 등의 숙박시설, 골프장, 마리나, 해수욕장, 옥외 pool 피크닉장, 다목적 잔디광장, 테니스 코트, 낚시터, 레스토랑, 연수원, 청소년종합센터, 인공호수, 휴양촌, 재래식 수렵장
운동 및 놀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활동 · 수상활동(Motor boating, Water Skiing, Jet Skiing, Para Sailing, Yachting, Sailing, Winf Surfing 등) · 수변활동 · 유희(오락, 볼링, 당구, 양궁, 사격, 승마 등) 	실내체육관, sports complex, 낚시장, 계류장, 물놀이장, 수상교육시설, 야외운동공원, Skate Rink, 승마course, Ski장, 눈썰매장, 경마장, 자동차 경주장
교양 및 문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관람 · 행사참가 · 정보교류 	커뮤니티센터, 컨벤션센터, 기념공원, 도서관, 박물관, 실내외잔시관, 미술관, Art center, 문화이벤트 플라자, 방송국, 상설시장, 뮤지극장, 영화관, 야외concert hall

그러나 관광패턴의 변화, 경제적 수준의 상승,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관심 등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에서도 해양관광지개발을 시작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특히 국내관광시장이 협소하고 계절적 변동이 심할 경우에는 단일 아이템(Item)에 의한 위험요소를 줄이고, 다양한 관광계층을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대규모 시설의 설치에 따른 초기투자에 대한 계획이 마련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다. 해양종합 리조트단지에 필요한 시설로는 다음 <표Ⅱ-9>와 같은 것들이 있다.

또한, 수변관광지의 도입활동 및 시설은 대상지구의 자연, 인문조건, 이용상황 등

을 기초로 도입활동 및 시설을 검토하고, 관광객육구에 부합되는 기본시설, 보완활동시설 등을 결정한다. 이러한 도입기능 선정의 지구여건과 개발성격에 적합한 기능 등을 도입하여 주변지역과의 연계이용체제를 감안하여 선정하게 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표Ⅱ-10> 및 <표Ⅱ-11>과 같다.

3) 해안관광지 개발사례

(1) 해외 해안관광지 개발사례

① 미국 : 미션베이파크(Misson Bay Park)

미션베이파크는 세계 최대의 Water Park이다. 1930년에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1945년에 간척에 착수했다. 현재도 시설건설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장대하고 거대한 사업이다.

개발자금은 시의 일반회계와 공채에서 마련되어지고 공채의 상각은 육지지역에 사업을 행하는 사업체(호텔, 레스토랑, 시월드 등)에서 차지료, 매상세 등에 의한 수입으로 변제를 하고 있다. 현재 수입이 채무를 상회하고 있어 이 잉여자금으로 공원유지, 관리,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 요트하버, 캠프장, 골프장, 시월드, 마리나, 해수욕장, 점프보드 등이 정비되어 등선연장 40km에 달하는 일대 리조트 관광기지로 되어 있다. 구체적인 개발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개발타입 - 임해복합개발형(마리나+파크)
- ☐ 주도적인 사업의 주체 - 산디에이고시, 민간기업
- ☐ 기본적 개발개념 - 세계최대의 복합적 수상레크레이션 기지의 개발
- ☐ 개발 개요
 - 캘리포니아주 산디에고 중심부에서 북서 약 8km에 있는 약 1,861m²의 광활한 세계최대의 수상공원
 - 산디에이고가 자랑하는 레크레이션 지대이므로, 해수욕장, 골프장, 요트하

버, 캠프장 등 바다에 관한 시설과 수상활동을 위한 장비가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음

- 9개의 해수욕장이 준비되어 있고 모래사장 가까이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피크닉과 레크레이션 공간이 있음

□ 개발경위

- 당초에는 산디에이고천의 홍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주정부가 투자를 하였음

□ 주된 사업 특색

○ 시설정비

- 요트클럽(1,500척), 보트 마리나 (2,500척), 보트 등의 마린레저 관계 시설
- 기타 시월드(32만 m^2), 녹지공원, 골프코스(18홀), 호텔 등

○ 토지소유

- 전체 약 1,861만 m^2 (이중 수면부위 약 890만 m^2)중에 동쪽은 산디에이고시, 서쪽은 캘리포니아주가 소유해, 주가 소유한 것은 시에 대여하고 있음

○ 재원·재정

- 산디에이고시 특별회계
- 공원조성에 2,700만달러 투자
- 공원지역유지관리에 연간 800만 달러 소요
- 호텔, 마리나, 시월드 등의 공원내 사업자로부터 시에 연간 900만 달러의 수입이 있음
- 공원지역내의 호텔은 방값 7%, 식사대 3%, 매점매상의 7%를 시에 납입함

○ 입장관광객

- 전지역에 연간 1,400만명
- 시월드 입장객은 200만명

☐ 장래계획

- 공원지역내의 25% 이상은 앞으로도 영리기업에서 사용하지 않음
- 수질오염, 해양침식의 방지
- 피에스타섬의 개발: 약 182만m²의 섬을 5-10년간에 걸쳐 피크닉 랜드, 조깅코스, 싸이클링코스, 스위밍클럽 등을 비영리사업으로 개발함

☐ 평가포인트

- 공공사업이면서 수입원을 확보, 공공투자분을 회수하고 있음
- 대도시근교의 레크레이션 기지로서 대량의 집객력을 가지고 있음
- 공급과 민간사업자의 이해를 일치시키고 있음
- 행정의 강력한 사업추진체제를 가지고 있음
- 개발테마에 합치한 집객시설이 입지해 있음

② 프랑스 : 뽀르 까마르끄

뽀르까마르끄는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의 랑그독 지방에 있으며, 이 지역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7대 리조트 거점개발 프로젝트의 하나이다. 구체적인 개발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발유형 - 임해복합개발형(마리나+주택)

☐ 주도적인 사업주체 - 남브 아레스 루 비간 상공회의소

☐ 기본적 개발개념 - 전국민을 위한 리조트 개발

☐ 개발개요

- 랑그독 지방의 7개 리조트지 하나로 로뉴 하천구역의 일대의 습지대를 리조트로 개발한 것임
- 1965년 정부가 단지구의 개발방침을 결정해 1985년까지 350억 프랑이 투입되었음
- 현재에는 지중해 최대의 마리나(4,200척)를 보유하고 있는 종합마린 리조트기지로 되어있음

○ 개발면적: 120만m² (수면 70만m², 육지 50만m²)

○ 항만: 4,200척

□ 개발경위

○ 1963년 랑그독 루시옹 연안리조트 개발을 추진키 위한 특무행정기관을 설치하였음

○ 1965년 부터 정부에 의해 개발 투자가 시작되었음

□ 평가포인트

○ 프랑스 국내 뿐만아니라 유럽전역에서 높은 평가와 인기를 얻고 있음

○ 주택의 분양, 마리나 임대수입 등에 의해 투자회수를 하고 있음

○ 우수한 경관을 가졌음

○ 마리가나가 공영, 임대방식으로 이용성이 높음

○ 랑그독 루시옹 지방전체를 개발대상으로 한 프로젝트의 일부로 자치단체의 전면적 협력을 얻고 있음

○ 지가폭등을 막기 위해 분양시기를 조절하고, 맨션의 구매력 저하를 막음

○ 지역의 상징으로서 저층의 해변주택군을 배치해 랜드스케이프의 처리가 잘 되어 있음

③ 일본

일본의 경우는 수변리조트가 발달되어 있는데 大洗地域, 熱海地域, 江島地域, 天保山 港口村, 兵庫縣 淡路島 등이 있다. 세부적인 개발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1 大洗地域 리조트

□ 위치 : 일본 茨城縣 大洗町

□ 면적 : 0.77 km²

□ 개발주체 : 茨城縣 문화복지사업단과 大洗町이 중심

□ 개발내용

- 大洗 해수욕장, 大洗 해안 어린이나라(수족관, 풀장), 礒兵 해수욕장(매립 후 마린비치), 大貫 해수욕장, 해양박물관, 골프장, 캠프장, 문화센터(컨벤션 시설), 싸이클링 코스, 유람선 터미널, 기타 부대시설
- 이용현황
 - 연간 3백만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그 중의 80%의 가량이 해수욕장을 이용하고 30% 정도가 숙박을 하고 있는 추세임
- 기타 사항
 - 동경에서 2시간 권내에 위치되어 있으며 1983년 大洗町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개발이 추진되었음. 현재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워터프런트 개발지에서 長期潛在型의 종합리조트로의 개발을 구상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컨벤션 기능을 유도할 계획임

③-2 熱海地域 수변리조트

- 위치 : 일본 靜岡縣 熱海市
- 면적 : 0.029 km²
- 개발주체 : 인공연안의 조성공사는 靜岡縣이, 배후지 시설개발은 熱海市가 담당
- 개발내용
 - 長兵, 綱代, 中野 해수욕장, 일광욕 광장, 풀장, 관광항구 시설
- 이용현황
 - 50일의 개장기간에 15만명이 이용
- 기타사항
 - 동경에서 1시간권 이내에 위치되고 있으며 일본의 대표적이 온천관광지로서 保養地 기능에다 해안의 경관자원을 이용, 활동적 위락기능을 첨가한 개발형태로서 1985년에 개장되었음
 - 주변 해수욕장과 熱海市의 관광항구, 初島の 도서자원을 결합한 해안레저기지로써 개발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성, 문화성을 특징으로 한 컨벤션 기

능까지도 수요하는 관광도시로서의 성장을 제시하고 있음

③-3 江島地域 수변리조트

- ☐ 위치 : 일본 神奈川県 勝澤市
- ☐ 면적 : 0.052 km²
- ☐ 개발주체 : 동경올림픽의 요트경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神奈川県이 중심
- ☐ 개발내용
 - 요트시설을 중심으로 한 23.8억원을 투자, 계류시설(부잔교, 고정잔교, 계선항), 상하가시설(사로, 인양시설), 서비스시설(수리 및정비소, 급수시설), 안전시설(감시탑), 부대시설(클럽하우스, 주차장, 쇼핑시설, 교육훈련시설, 관리사무소) 등을 개발하였음
- ☐ 이용현황
 - 수도권 주민중 주부, 학생을 위주로 한 년 5,077천명이 이용하고 수도권에서 1시간권 이내에 위치되어 있으며 1964년 개장이래 요트시설 중심의 각종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공공주도형 관리로 인한 서비스부문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③-4 天保山 港口村 개발계획

- ☐ 위치 : 일본 大阪市 天保山 公園
- ☐ 면적 : 13.2 km²
- ☐ 개발주체
 - 大阪市가 25%, 민간(16개사)이 75%를 출자하여 제3섹터 방식으로 개발된 대판 워터프런트개발(주)
- ☐ 개발계획
 -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생물 전시관을 포함한 마린월드, 항만의 특성을 살린 상가시설, 세계 각국의 식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식당거리, 특산품 및 의류잡화 등의 쇼핑거리, 수족관, 광장, 지하주차장, 요트, 수상버스, 순환

여객선 등을 도입할 계획으로 1988년부터 착수되었음

☐ 기타사항

- 대판의 재개발 기본방침에 의해 「만남의 광장」성격의 도시 워터프런트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개발대상지가 좁은 점을 감안하여 광장밑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한 계획으로서 총 사업비는 약 213억엔으로 추산하고 있음

③-5 兵庫縣 淡路島 수변리조트

☐ 위치 : 일본 兵庫縣 淡路島

☐ 면적 : 0.2 km²

☐ 개발주체 : 公兵과 民間이 결합한 제3섹타 개발방식으로 개발

☐ 개발계획

- 중점개발지역으로 9개지구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수변공원, 운동장, 승마장, 수상극장, 해양연습장, 스키장, 풀장, 관광농원, 회의장, 식물원, 헬스센터, 마린스포츠센터, 전망대, 조형공원, 도예관, 해양박물관, 야조공원, 다목적공원, 해상식당, 연수시설, 싸이클장, 민속관, 청소년 자연관찰촌 등을 계획하고 있음

☐ 기타사항

- 1988년 종합보양지역정비법에 의거한 기본구상 승인 후, 10년간 총 4천억엔을 투입할 계획으로서 「담로지역의 양호한 지역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였음
- 아름답고 긴 해안선과 고속교통의 연계화를 활용한 광역적인 해양성 리조트 개발을 목표로 하며 관서국제항공의 해상접근유도, 지역산업경제화 문화를 조화시킨 리조트기지를 구상하고 있음

(2) 국내 해안관광지 개발사례

① 인천 국제해안종합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1990)

- ☐ 목적 : 수도권 주민과 국외국인의 관광휴양활동이 가능한 국제적 규모의 위락공간조성과 이를 통한 지역사회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음
- ☐ 위치 : 인천직할시 중구 영종동, 용유동 일원
- ☐ 면적 : 72.66 km²
- ☐ 기간
 - 1단계(1990-1997) - 교통망확보와 선도적 중심사업 추진
 - 2단계(1998-2006) - 관광지 개발사업의 본격가동 및 추진
- ☐ 투자계획 : 24,679억원(공공 2,467억원 민자 22,028억원)

<표Ⅱ-12>

인천 해양관광지 도입기능 및 시설

구 분	도입기능 및 시설
도입주제별시설	인천 해양단지, 영종 다이내믹센터, 만국도시, 백원 스키휴양촌, 용유 해변휴양촌, 왕산 해변휴양지
숙박시설	호텔(15동 8,704실), 휴양 콘도미니엄(9동 6,486실), 유스호스텔(2동 563실), 관광여관(2동 563실), 야영장 6개소
교양·문화시설	청소년 종합센터, 박물관, 수족관, 전시기념관, 영화관, 소인국, 드라마센터, 커뮤니티센터, 수변음악당, 예술인 거리, 옥외공연장, 근로체험장, 해양정보센터, 전망대, 식물원, 전통 연극공연장, 컨벤션센터
스포츠·위락시설	마리나, 보트계류장, 수영장, 테니스 코트장, 의료보양센터, 해양·항공스포츠 클럽, 골프장, 승마장, 대소형 자동차 경주장, 경건장, 다목적 운동장, 잔디스키장, 재래수렵장, 스케이트장
편익관리시설	종합정보안내센터, 방송국, 우체국, 은행, 진료시설, 파출소, 소방서, 기타 공원 서비스시설 및 공급처리시설

☐ 개발방향

- 21세기를 향한 국제적 수준의 특색있는 종합적 관광휴양단지를 조성
- 수도권 및 서해안권의 관광휴양공간 부족현상의 해소
-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도모 및 복지사회 건설을 지향

☐ 도입활동

- 영종도와 용유도지역을 중심으로 산, 물(바다), 갯벌(해변), 야간, 악천후 또는 비수기 등에 대비한 주제별 기능도입
- 자원을 중심으로 한 해변 휴양지, 종합휴양, 교양문화, 스포츠 등의 시설을 도입

- ☐ 개발주체 : 인천시 공영개발사업단이 개발을 총괄하고 별도의 관광지 관리공단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3섹터 개발방식을 도입

② 해남 화원 관광단지 개발계획(1991)

- ☐ 목적 : 서해안 종합개발과 연계한 大佛工團 배후 거점관광단지로 개발

- ☐ 위치 : 전남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주광리, 화봉리 일원

- ☐ 면적 : 11.7 km²

- ☐ 기간 : 중기 목표년도 - 1996년, 장기 목표년도 - 2001년

- ☐ 개발계획 : 7,522억원(정부 360억원, 관광공사 1,223억원, 민자 6,039억원)

☐ 개발방향

- 국민관광, 사회관광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종합휴양지로 개발
- 서다도해권의 관광거점화를 도모하여 장기체제형 관광지로 개발

☐ 도입활동

- 해변 리조트와 연중이용, 장기잠재, 보건휴양을 유도하는 개발방침에 따라 운동놀이호활동, 교양문화활동, 관리서비스활동으로 구분
- 숙박기능과 수상 및 해변레크레이션 기능, 위락 및 스포츠 기능, 교육문화 기능, 조경휴식기능, 공공 및 지원 서비스 기능으로 각각의 시설을 유치

<표Ⅱ-13>

해남화원 관광지 도입기능 및 시설

구 분	도입기능 및 시설
숙박기능	호텔(5동 1,470실), 가족호텔(2동 458실), 유스호스텔(2동 458실), 콘도미니엄(2동 458실), 여관(8동 3,600실), 기업휴양촌(107개소 1,500실), 종업원 기숙사
수상·해변	마리나, 수변오락장, 야시장, 바다 낚시장
위락·스포츠	수중공원, 주제공원, 잔디스키장, 종합스포츠시설, 골프장, 실내운동센터
교육·문화	동식물원, 민속촌, 관광공원
조경·휴식	야영장, 조각공원, 조경휴식지
공공·지원	관광센터, 근린공공시설, 교통시설, 보건휴양시설, 기타

- ☐ 개발주체 :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서남관광개발공사를 모체로 설립된 법인을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혼합 개발방식으로 추진

③ 제주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개발계획(1988)

- ☐ 목적
- 일출봉을 중심으로 한 자연환경보전과 자연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 제주도 동부지역의 체류형단지를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
- ☐ 위치 :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오조리, 성산리, 고성리, 신양리 일원
- ☐ 면적 : 5.05 km²
- ☐ 기간 : 중기 - 1966년, 장기 - 2001년
- ☐ 투자계획 : 1,311억원(중앙정부 57억원, 제주도 516억원, 관광공사 14억원, 민자 690억원, 기투자액 34억원)
- ☐ 개발방향
- 자연경관의 회복, 해변지역의 개발제한, 야생동식물과 서식지의 보호, 해

양레크레이션 활동의 유치, 참여하는 관광활동의 유도, 기존취락의 정비, 환경오염방지 등을 주요골자로 개발

□ 도입활동

-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자연조건과 이용행태분석을 토대로 한 입지지향형과 계획가의 창조적 직관으로서 활동을 선정하는 발상적 방법을 절충하여 도입활동과 시설을 선정

- 개발주체 : 지방자치단체(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자율성과 독립성이 부여된 개발전담기구를 설립하고 민간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

<표Ⅱ-14>

성산포 관광지 도입기능 및 시설

구 분	도입기능 및 시설
숙박기능	여관(13동 536실), 관광호텔(1동 222실), 방갈로(2동 240실), 콘도(2동 240실), 별장(15동 46실), 가족호텔(1동 96실), 야영장(280개소)
상업기능	활어센터, 수산물 전시판매장, 종합휴게소, 상가, 대중상가, 은행, 우체국, 렌트카·자전거 대여소
활동 및 위락	계류장, 마리나, 수변공연장, 기계유희시설, 승마장, 스포츠센터, 테니스장, 어린이 놀이터, 롤라스케이팅장, 수영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보트세일링장, 운동장
휴양기능	잔디광장, 휴게광장, 화훼광장, 피크닉장, 놀이마당, 관광농원, 해수욕장, 해양박물관, 승마로
공공기능	주차장, 주유소, 소방서, 중앙관리사무소, 광장

4) 이론 검토의 시사점과 과제

이상과 같은 해안관광지의 개발사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해안과 관련정도, 배후지와의 기능연계 등을 고려하여 상업·업무, 문화,

위락, 주거 시설과 공공시설이 복합된 혼합용도개발방식(Mixed Use Delopment)에 의한 해변공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내륙부와 차별화 되는 해변공간의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쾌적성과 장소성을 중시하고, 해변으로서 개방성, 보행자 위주의 동선체계 및 오픈스페이스의 확충과 더불어 자연 및 역사경관의 보존을 중시하고 있다

셋째, 집객력을 재고하기 위한 문화공간, 생활화된 해변공간을 연출하므로써 지역민과 관광객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여타지역과는 차별화되는 관광개발의 추진하고 있다.

넷째, 계획수립과 개발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준비하고, 사업추진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산발적인 개발은 지양하고, 사업화 단계에서도 장기적 안목에서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대부분의 해변개발 사업은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특성과 함께 초기단계의 성과가 후속적인 개발의 결과를 좌우하게 되는바, 당해지역의 자력개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직·간접적 행정, 재정적 지원과 민간의 경영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업추진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여섯째, 토지이용의 측면에서는 대부분 해변부의 공공 공간화를 지향하고, 지속적인 토지의 이용과 관리를 위해 전담추진기구를 조직·운영하고 있다. 또한, 해안관광지 개발의 이론검토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① 획일적 사업추진방식에 의한 해변의 사유화

우리나라 관광지의 대부분은 관광지로 지정되면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일부토지를 매입하여 부지조성과 함께 공공시설(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을 개발하고, 일부지역에서는 대상지내 공유지를 매각·처분함으로써 초기의 투자비를 회수한 후, 토지소유자 또는 민간개발자가 자력으로 개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경우로 일부 해안관광지는 지정 후 수년에 걸쳐(일부지역은 단기간 내 토지를 전면 매수하거나 하천, 해안을 매립하여 부지조성과 일부 편의시설 및 공공

시설을 개발한 후 민간에 전면 매각하는 소위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이들 중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토지의 전면매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일시에 초기투자비의 회수와 일정이상의 재정수입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해안관광지 전체가 수많은 토지소유자에 의해 사유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토지매각 대상자를 실제 개발 여력이 있는 투자에만 국한 할 수 없는 현 실정에서는 해안관광지의 토지소유자에 의한 개발사업의 추진여부는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토지소유자들에 의한 토지전매행위로 의해 토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방치된 공간으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해안관광지로의 개발이 유보되고 있는 동안 관광지 진입부 등 주변지역에는 숙박시설, 상업시설들이 산발적이고도 임의적으로 들어서게 되어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를 도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② 해안부의 접근성 및 전망차단

획일적인 사업추진방식에 의해 사유화된 해안관광지는 해안의 전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또는 좋은 전망지점을 독점하기 위해 가급적 해안선에 근접해서 건축물을 입지시키려는 것과 고층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관광객의 접근권을 제한하게 되어 공공적인 공간으로서 기능을 가져야 할 해안부가 특정 시설이용객만을 위한 토지이용의 전유화라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며, 동시에 내륙부에서 해안부로 시각단절은 물론 주변자연경관과 불균형을 낳게 된다는 바 공공성이 결여된 해안공간으로 전락하게 된다.

해안부로의 일반대중을 위한 접근로 개설의무와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건축물 높이의 후퇴 등에 대한 규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한 해안부의 사유화로 인한 접근성과 전망의 차단은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③ 자원의존적인 해안시설개발로 인한 비수기 문제 발생

해안관광지 시설개발에 있어서 대부분의 관광지 경우 숙박시설(호텔, 콘도미니엄, 여관, 방갈로 등)을 중심으로 상업시설(대부분 횡집), 해수욕장 등 해변·수상 활동 시설과 이를 지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편의시설 위주의 개발에 그치고 있다.

이는 동일지역 생활권내 유사한 시설지구와 경합을 초래하고 있으며, 비수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해안관광지는 하절기에 일시 이용 후 방치 되고 마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때문에 기존의 해안형 관광지의 대부분의 해변자원은 단순하고도, 평면적인 이용과 단일목적형, 단기적 통과형, 하계일시 집중·이용형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다.

④ 해안관광지개발에 관한 인식부족

근래에 와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개발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 바 실제로는 당해 지역내 개발되는 관광지의 자원 및 시설공간개발에만 주력할 뿐 당해 지역주민의 여가와 생활환경개선이 관광지 개발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우수해서 지정된 해안관광지의 경우 해안자원에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 생활전반에 걸친 지역성을 함축하고 있는 훌륭한 문화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지개발이라는 명목아래 타지 관광객에게 그 자원을 내주게 되면서 당해 지역주민에게는 더 이상 생활·문화공간의 터전으로 이용 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관광지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는다.

⑤ 생태적 특성을 무시한 관광지개발

해안지역의 경우 생태적 특성상 나타나는 갯벌이나 습지, 사구 등을 인공지반화하여 시설을 개발하거나, 송림 및 특정 수목의 자생지의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서 인접시설물을 설치한 결과관광객의 이용압력을 감당하지 못한 채 자원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

시설지구 조성시에도 해안환경의 생태적 특성과 시설밀도, 그리고 물의 특성 등에 따른 신중한 고려없이 숙박, 상업, 공공시설지 위주로 토지 이용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해안에 접한 육지부 못지 않게 생태적으로 중요한 해역의 이용에 있어서도 이용행위에 따라 적정 수역의 이용·관리가 되지 않아 제 활동간의 상충과 해안역의 오염을 초래하기도 한다.

Ⅲ. 안면도 관광지 개발 현황분석과 과제

1. 거점 관광개발을 위한 광역관광여건 분석

1) 전국 거점 관광지 개발현황

전국 거점관광지의 대상은 우선 관광단지와 규모가 큰 지정관광지가 될 수 있다. 관광단지는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을 말하며, 지금까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총 9개 관광단지가 지정되어 있다.

2001년 6월 현재 제주 중문, 경주 보문, 원주 월송, 평창 봉평 관광단지는 일부시설을 완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김천온천관광단지는 기반시설을 공사하고 있다. 해남화원, 경주감포 관광단지는 토지매입 준비중에 있으며, 인천 용유·무의와 평창 용평 관광단지는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관광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사회간접자본시설로 규정하여 민자를 적극 유치케 하고 있으며,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며, 조세특례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문화관광부, 2001).

이들 관광단지에서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제주 중문관광단지, 전남 해남 화원관광단지, 경북 감포관광단지, 인천 용유·무의 관광단지가 있다. 이들중 인천의 용유·무의 관광단지와 전남 해남 화원관광단지는 서해안에 위치한 관광단지이다.

<표 III-1>

전국관광단지 현황(2001년)

단지명	위 치	개발면적 (km ² /만평)	투자규모 (억원)	개발기간	2000까지 개발실적 (억원)	'01년도 투자계획 (억원)	개발주체
보 문	경북 경주시 신평동, 천군동 일원	10.681 (323)	7,753	'73~2001	4,898	413	경북관광 개발공사
중 문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색달동 일원	3.562 (108)	13,988	'78~2001	6,226	669	한국관광 공 사
해 남 화 원	전남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화봉리 일원	5.084 (154)	7,528	'91~2004	466	254	한국관광 공 사
감 포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나정리 일원	3.975 (120)	7,455	'97~2005	76	45	경북관광 개발공사
원 주 월 송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일원	11.211 (339)	10,250	'95~2010	4,603	331	한솔개발 주식회사
김 천 온 천	경북 김천시 부항면 파천리 일원	1.424 (43)	4,994	'97~2004	333	976	주식회사 우촌개발
평 창 봉 평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무이리, 진조리 일원	3.978 (120)	7,953	'94~2004	4,461	414	(주)보광
인 천 용유, 무의	인천 중구 을왕동 덕교동, 무의동 일원	7.030 (213)	30,900	'97~2012	행정절차 추진중	-	미정
평 창 용 평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수하리 일원	17.189 (520)	12,223	'86~2015	"	-	(주)용평 리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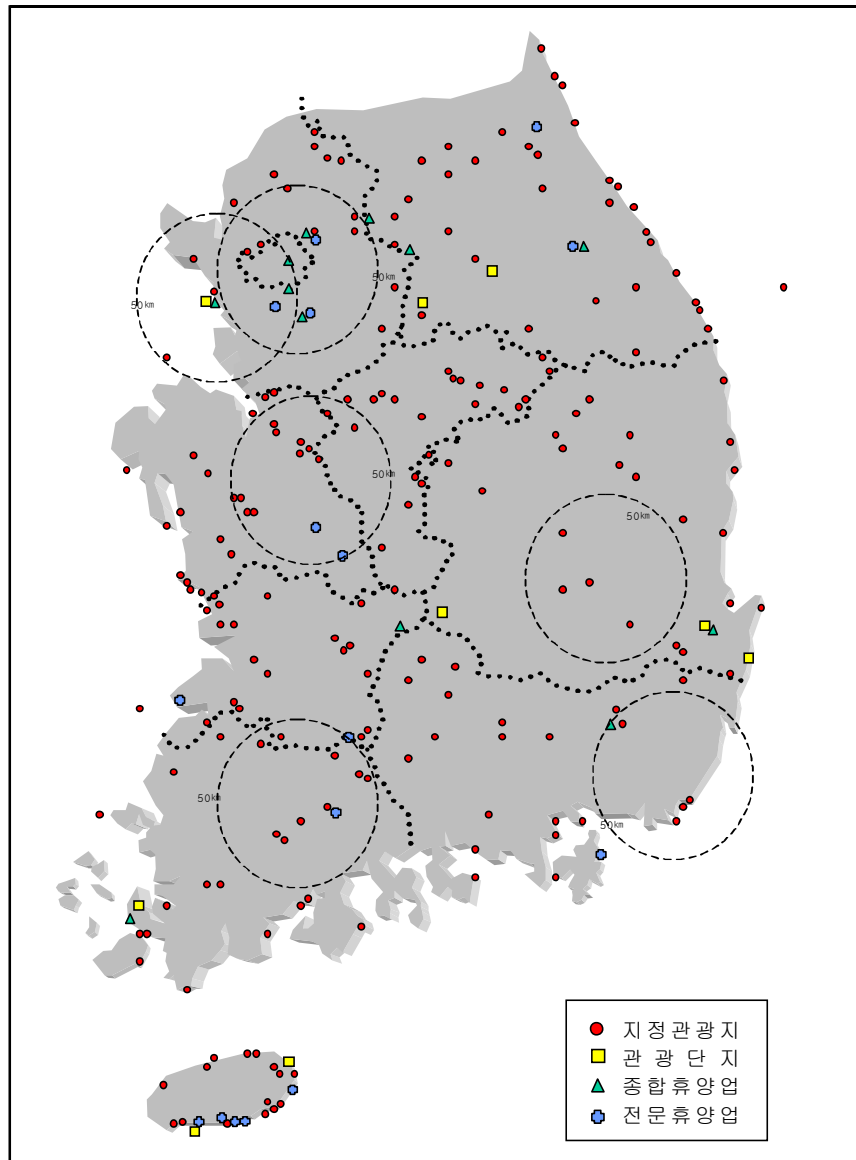
자료 : 문화관광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1.

또한, 거점관광개발의 기능을 하는 것이 관광특구이다. 관광특구는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오는 일정구역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여 관광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1993년에 도입된 제도로써 법령상으로는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곳을 말한다.

관광특구는 제주도, 경주시, 설악산 등 5곳이 1994년 8월 31일 처음으로 지정된 이래, 2001월 6월 26일 인천 중구 신흥·신포·동인천동의 패션, 쇼핑, 밀집지역, 연안동의 어시장, 해수탕 등 친수공간, 북성동의 차이나타운, 문화·공원지역을 고려한 월미관광특구의 지정 등 21곳이 지정되었는데, 충남의 보령관광특구와 아산관광특구 2곳이 지정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정관광지, 관광단지,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등 거점관광지로서 역할을 하는 관광지의 위치도는 다음 [그림Ⅲ-1]과 같다.

[그림 Ⅲ-1] 전국 관광단지 분포 현황도(2001년)



자료 : 윤양수, 지역개발측면에서 본 문화관광사업 실태와 대책, 국토연구원, 2001.

<표Ⅲ-2>

충청남도 관광특구 지정현황(2001년)

특 구 명	지 정 지 역	면적 (km ²)	지정 시기	비 고
아산시온천	충남 아산시	3.71	'97.1.18	온양, 도고, 아산온천지
보령해수욕장	충남 보령시	2.52	'97.1.18	대천, 무창포지역, 죽도

2) 충청남도 관광지 개발현황

충남도내 관광단지는 없고, 지정된 관광지수는 <표Ⅲ-3>과 같이 2001년 현재 23개소에 13.195km²로 전국 관광지면적 148,550km²의 11.7%로 해당하며 산악형, 내륙형, 내수면형, 해안형 등 다양한 자원유형별로 관광지가 지정되어 있으나, 구드래, 태조산, 각원사, 곰나루, 금강하구둑 등 몇 개의 관광지를 제외한 대부분은 60%이하로 개발이 추진되거나 관광지로 지정만 되어 있을 뿐 아직까지 개발을 착수하지 못하기도 하고, 개발이 중지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지정관광지중 충청남도 서해안권에서 거점관광개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관광지는 안면도국제관광지와 보령대천해수욕장이 있다. 안면도 국제관광지는 면적규모가 3,096,828m²이고, 보령의 대천해수욕장의 면적은 2,150,000m²이다. 이들 두 관광지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후 방문관광객이 급증하여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서해안권 거점관광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이들 두 관광지가 가지고 있는 관광기능과 자연·인문·자원과 입지적 특성을 보완하면서 경쟁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안면도 국제관광지와 대천해수욕장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충남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의 개발을 위하여 1990년부터 신규 개발관광지와 계속되는 관광지 개발에 연차별로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신규 관광지 개발을 위한 국고지원은 무창포해수욕장, 대천해수욕장, 안면도국제관광지, 금강하구둑, 마곡사, 공주문화관광단지, 칠갑산도립온천, 춘당대해수욕장, 마곡온천관광지 등에 국비

와 지방비를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표Ⅲ-3>

관광지 지정현황(2001년)

관 광 지 명	위 치	면 적	지 정 일	관광지성격 및 주요 개발내역
계	23지구	13,195,070		
삼 교 호	당진 신평	160,608	'83. 10. 10	가족휴양 중심관광지
구 드 래	부여 구교	148,515	'69. 1. 21	"
신 정 호	아산 방축	271,169	'71. 5. 20	"
태 조 산	천안 유량	331,000	'85. 7. 24	청소년 수련시설
예 당 저 수 지	예산 음봉	186,000	'86. 6. 28	가족휴양 중심관광지
곰 나 루	공주 웅진	139,000	'87. 7. 24	"
용 연 저 수 지	천안 목천	267,004	'88. 7. 12	"
무창포해수욕장	보령 웅천	310,000	'86. 8. 20	해수욕장 중심관광지
대천해수욕장	보령 신흥	2,150,000	'83. 11. 29	"
안 먼 도	태안 안면	3,096,828	'91. 2. 22	국제적 관광휴양지
덕 산 온 천	예산 덕산	723,575	'87. 6. 3	온 천 자 원 개 발
죽 도	보령 웅천	62,083	'90. 4. 19	해양스포츠및휴양시설
각 원 사	천안 안서	82,294	'90. 4. 19	가족휴양 중심관광지
아 산 온 천	아산 음봉	844,000	'91. 3. 15	온천숙박 중심관광지
금 강 하 구 덕	서천 마서	177,600	'93. 9. 22	해양 및 놀이시설
마 곡 사	공주 사곡	126,000	'93. 11. 9	가족휴양 중심관광지
칠갑산 도립온천	청양 장평	130,480	'95. 10. 5	온 천 자 원 개 발
천 안 온 천	천안 목천	740,914	'96. 7. 29	온 천 자 원 개 발
	성남			
마 곡 온 천	공주 사곡	638,000	'96. 9. 16	"
공 주 문 화	공주 웅진	1,330,000	'96. 10. 24	백제문화 중심관광지
	봉정·검상			
춘장대해수욕장	서천 서면	299,000	'97. 4. 21	해수욕장 중심관광지
간 월 도	서산 부석		'99. 4. 21	가족휴양 중심관광
난 지 도	당진 석문		'99. 4. 21	해수욕장 중심관광

자료 : 충청남도, 제3차 충청남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안), 2001.

<표Ⅲ-4>

관광지 연도별 국고지원 현황(1990~2000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관광지명		투 자 액		
			계	국 비	지 방 비
1990	전국	7개소	7,522.00	3,776.00	3,776.00
	충남	예당저수지	353.00	176.50	176.50
1991	전국	16개소	7,552.00	3,776.00	3,776.00
	충남	용연저수지	600.00	300.00	300.00
		곰나루	600.00	300.00	300.00
1992	전국	7개소	4,439.00	2,139.00	2,300.00
	충남	신정호	623.00	300.00	323.00
1993	전국	11개소	7,592.00	3,796.00	3,796.00
	충남	안면도	1,150.00	575.00	575.00
1994	전국	19개소	20,650.00	10,325.00	10,325.00
	충남	안면도	3,240.00	1,620.00	1,620.00
1995	전국	20개소	12,500.00	6,250.00	6,250.00
	충남	무창포해수욕장	1,000.00	500.00	500.00
1996	전국	17개소	9,407.00	9,407.00	-
	충남	금강하구둑	854.00	854.00	-
		마곡사	1,000.00	1,000.00	-
		삼교호	46.00	46.00	-
1997	전국	34개소	13,956.00	13,956.00	-
	충남	안면도	750.00	750.00	-
		대천해수욕장	500.00	500.00	-
		마곡사	143.00	143.00	-
		삼교호	90.00	90.00	-
		금강하구둑	300.00	300.00	-
		예당저수지	500.00	500.00	-
1998	전국	42개소	16,811.00	16,811.00	-
	충남	대천해수욕장	720.00	720.00	-
		마곡사	499.00	499.00	-
		예당저수지	405.00	405.00	-
		삼교호	90.00	90.00	-

구 분	관광지명		투 자 액		
			계	국 비	지 방 비
1999	전국	40개소	19,811.00	19,811.00	-
	충남	안면도	1,455.00	1,455.00	-
		마곡사	141.00	141.00	-
		대천해수욕장	300.00	300.00	-
		춘장대	670.00	670.00	-
		칠갑산도림온천	257.00	257.00	-
2000	전국	50개소	53,290.00	24,698.90	28,591.90
	충남	안면도	6,123.00	2,000.00	4,123.00
		대천해수욕장	2,000.00	1,000.00	1,000.00
		마곡사	434.00	217.00	217.00
		춘장대해수욕장	1,660.00	830.00	830.00
		삼교호	1,500.00	750.00	750.00
		칠갑산도림온천	1,700.00	850.00	850.00

자료 : 문화관광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1.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온 관광지 개발도 1990년의 예당저수지를 비롯하여, 용연저수지, 곰나루, 신정호, 안면도, 무창포, 금강하구둑, 마곡사, 삼교호, 예당저수지, 춘장대, 칠갑산도림온천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이 진입도로 및 주차장과 관광편의시설을 위한 공공투자비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투자내용은 <표Ⅲ-4>와 같다.

충남의 지정관광지 개발은 2001년에 총 23개 지구 16,097km² 관광지에 총 41,735억원을 공공 6,198억원, 민자 35,537억원을 2011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며, 2000년까지 22개지구(완료 2, 추진중 20)에 대하여 7,977억원(공공 2,184, 민자 5,793)을 투자하였고, 2001년도에는 개발추진지구 15개소에 대하여 5,177억원(공공 283, 민자 4,894)을 투자하였다(충청남도, 2001).

충남의 지정관광지의 개발실적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업기간과 총투자사업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규모를 살펴본 결과, 관광지에 대한 총투자사업비가 안면도 국제관광지는 11,129억원, 대천해수욕장 관광지는 8,291억원의 투자와 개발기간이 20년 이상이었다. 이는 국가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³⁾하고 있는 관광단지의 중문관광단지

의 13,988억원, 경주 보문관광단지의 7,704억원의 투자사업비와 20년 이상의 개발기간에
서도 비슷한 대규모의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나타났다(한국관광공사, 1993).

또한, 이보다는 약간 낮은 투자규모이지만 공주문화단지 3,108억원, 덕산온천
3,045억원, 천안온천 4,935억원, 아산온천 3,515억원, 마곡온천 1,383억원 등으로 이
들도 정부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북 김천온천의 4,994억원과 제주 성산
포관광단지의 4,800억원의 투자사업비에 10년 이상의 사업으로 규모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5> 충남 개발완료·추진·예정 관광지 현황(2001)

구 분	지구수 (개소)	면 적(km ²)	사업비 (억원)
계	30	16,097	41,735
개 발 완 료	2	480	33
개 발 추 진	21	12,707	41,702
개 발 예 정	7	2,910	-

자료 : 충청남도, 도정백서, 2001.

이렇게 규모가 비교적 큰 관광지 개발사업들은 사업의 목표년도가 가까운 현재
의 시점에서 투자실적이 40.0%이거나 어느것은 20.0%이하의 낮은 추진률을 보이
고 있어 사업의 손익분기시점이 장기간이 필요한 사업이 관광개발 사업인 것을 고
려할 때, 향후 원활한 지정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는 투자규모를 고려한 개발이 필
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재까지의 추진비율에 대한 투자실적의 분석을 통하여 앞의 분석결과를 다
시 비교해 보면, 대천해수욕장, 아산온천, 덕산온천, 안면도관광지, 천안온천 등 대규모
의 관광지일수록 비교적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투자비율에서는 40.0%이하와
20.0%미만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3) 관광단지라 함은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을 말한다.

<표Ⅲ-6>

관광지별 투자실적에 대한 분석(2000년)

지역	관 광 지 명	총투자 사업비						투자실적					
		계(A)	공공		민자		계		공공		민자		
			사업비 (B) (억원)	비율 (A/B) (%)	사업비 (C) (억원)	비율 (A/C) (%)	사업비 (a) (억원)	비율 (A/a) (%)	사업비 (b) (억원)	비율 (B/b) (%)	사업비 (c) (억원)	비율 (C/c) (%)	
천안	태조산	16	16	100.0	-	-	16	100.0	16	100.0	-	-	
	용연저수지	82	28	34.1	54	65.9	28	34.1	28	100.0	-	-	
	각원사	562	-	-	562	100.0	462	82.2	-	-	462	82.2	
	천안온천	4,935	-	-	4,935	100.0	346	7.0	-	-	346	7.0	
	소 계	5,595	44	0.8	5,551	99.2	852	15.2	44	100.0	808	14.6	
공주	곰나루	20	16	80.0	4	20.0	16	80.0	15	93.8	1	25.0	
	마곡사	320	135	42.2	185	57.8	34	10.6	3	2.2	31	16.8	
	마곡온천	1,383	10	0.7	1,373	99.3	30	2.2	2	20.0	28	2.0	
	공주문화단지	3,108	1,870	60.2	1,238	39.8	20	0.6	20	1.1	-	-	
	소 계	4,831	2,031	42.0	2,800	58.0	100	2.1	40	2.0	60	2.1	
보령	대천해수욕장	8,291	1,690	20.4	6,601	79.6	2,922	35.2	948	56.1	1,974	29.9	
	무창포해수욕장	930	148	15.9	782	84.1	539	58.0	126	85.1	413	52.8	
	죽도	328	-	-	328	100.0	5	5.2	-	-	17	5.2	
	소 계	9,549	1,838	19.2	7,711	80.8	3,466	36.4	1,074	58.4	2,392	31.2	
아산	신정호	75	19	25.3	56	74.7	19	25.3	19	100.0	-	-	
	아산온천	3,515	-	-	3,515	100.0	1,365	38.8	-	-	1,365	38.8	
	소 계	3,590	19	0.5	3,571	99.5	1,384	38.6	19	100.0	1,365	38.2	
부여	구두래	9	9	100.0	-	-	9	100.0	9	100.0	-	-	
서천	금강하구둑	360	166	46.1	194	53.9	283	78.6	166	100.0	117	60.3	
	춘장대해수욕장	533	134	25.1	399	74.9	13	2.4	13	9.7	-	-	
	소 계	893	300	33.6	593	66.4	296	33.1	179	59.7	117	19.7	
청양	철갑산도립온천	665	23	3.5	642	96.5	13	-	13	100.0	-	-	
예산	예당저수지	56	45	80.4	11	19.6	32	57.1	23	51.1	9	81.1	
	덕산온천	3,045	1	0.1	3,044	99.9	930	30.5	1	100.0	929	30.5	
	소 계	3,101	46	1.5	3,055	98.5	962	31.0	24	52.2	938	30.7	
태안	안면도	11,129	1,612	14.5	9,517	85.5	346	3.1	333	96.2	13	3.8	
당진	삼교호	144	54	37.5	90	62.5	83	57.6	46	55.4	37	44.6	

주 : 충청남도, 도정백서, 2000 자료 분석

더불어 마곡온천, 공주문화단지 등의 개발도 20.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최근에 개발이 착수된 마곡온천을 제외하고 앞의 관광지와 마찬가지로 규모가 크면서도 민자유치사업이 많기 때문에 개발의 투자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예산과 태안 등이 비록 지정관광지만을 한정하고는 있지만 관광개발에 대한 총사업비의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이들 지역 중에서 추진실적 비율이 낮은 지역으로는 천안(15.2%), 공주(2.1%), 태안(3.1%) 등으로 이들 지역이 충남의 대외적인 관광도시의 명성을 유지하는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충남의 지정 관광지에 공공과 민자에서 투자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시·군별 공공투자 부문에서 총투자사업비가 20.0%미만을 차지하는 지역은 천안(0.8%), 보령(19.2%), 아산(0.5%), 청양(3.5%), 예산(1.5%), 태안(14.5%)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총사업비 중에서 공공부문의 투자실적이 20.0%미만을 차지하는 지역은 공주(2.0%)로 이는 공주문화단지에서 공공투자부문이 1,870억원으로 사업의 60.2%를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관광지 개발에 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는 민자유치의 총투자사업비에서는 천안(99.2%), 보령(80.8%), 아산(99.5%), 청양(96.5%), 예산(98.5%), 태안(85.5%) 등이 80.0%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민간부문의 총사업비중 투자실적이 20.0%미만의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역은 천안(14.6%), 공주(2.1%), 서천(19.7%), 태안(3.8%)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천안온천, 마곡사, 마곡온천, 죽도, 안면도 등 관광지에서 민자유치가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민자유치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3) 서해안권 관광자원 개발현황

서해안권내 지정관광지는 2001년 현재 15개소에 9.53km²로 산악형, 내륙형, 내수면형, 해안형 등 다양한 관광자원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충남의 자연공원 현황으로 계룡산을 포함한 국립공원 2개소, 도립공원 3개소, 군

립공원 1개소등 6개소에 470.534km²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국립공원 1개소와 도립
공원 2개소가 서해안권에 위치하고 있다.

<표 III-7> 서해안권의 관광지 현황(2001년)

시 군	관광(단)지명	위치	지정년월일	면적(km ²)	개발기간	주요시설현황
서산시	간월도	서산 부석 간월도	00. 5. 4	0.1498	2000-2006	공공편의시설, 호텔, 여관, 상가, 휴양문화시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보령 웅천	69. 1.21	2.1500	1998-2010	호텔, 콘도, 상가, 피크닉장, 휴게숙
	무창포 해수욕장	보령 신희	86. 8.20	0.3100	1988-2001	호텔, 콘도, 상가, 야영장, 오토캠프장
	죽도	보령 웅천	90. 4.19	0.0733	1994-2004	콘호, 호텔, 요트클럽하우스, 수영장, 상가
당진군	삼교호	당진 신평	83.10.10	0.1606		
	난지도 해수욕장	당진 석문 난지도	00. 9. 7	0.1400	1983-2003	상가, 음식점, 전망대, 잔디광장, 여과
서천군	춘장대 해수욕장	서천 서	97. 4.21	0.2990	1998-2006	가족호텔, 향토음식점, 해수풀장, 야영장, 상가
	금강하구둑	서천 마서	93. 9.22	0.1776	1994-2004	호텔, 향토음식점, 상가, 잔디썰매장, 야영장
아산시	신정호	아산 방축	71. 5.20	0.2711	1985-2001	휴게소, 전문음식점, 야영장, 피크닉장
	아산온천	아산 음봉	91. 3.15	0.8440	1992-2001	종합온천장, 유희시설, 호텔, water park, 상가
예산군	예당저수지	예산 음봉	86. 6.28	0.1430	1986-2005	공공, 상가, 숙박
	덕산온천	예산 덕산	87. 6. 3	0.7235	1992-2001	호텔, 콘도, 스포츠센터, 온천장, 유스호스텔
태안군	안면도	태안 안면	91. 2.22	3.8154	1991-2011	숙박시설, 골프장, 실버타운, 해양스포츠
청양군	칠갑산 도립온천	청양 장평	95.10. 5	0.1304	1996-2002	여관, 호텔, 콘도, 야영장, 종합온천장
부여군	구드레	부여 구교	69. 1.21	0.1485	1984-2000	민속공연장, 잔디광장

자료 : 충청남도, 도정백서, 2001.

<표 III-8>

서해안권의 자연공원현황(2001년)

구분	공원명	위치	지정일자	면적 (km ²)	입장객수 (천명)		
					1995	2000	2001
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태안군	78.1	328.9	485.4(연중)	329.8 (7-8월)	351.7 (7-8월)
도립공원	덕산도립공원	예산군 덕산면	73.3	21.1	187	912	935

자료 : 충청남도, 도정백서, 2001.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현황으로 서해안권내 자연휴양림은 명대계곡, 용봉산 희리산, 영인산, 안면도, 칠갑산, 만수산 등 6개소와 성주산, 아미산, 남산, 장항송림, 성흥산성 등 5개소의 산림욕장이 운영 중이다.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의 주요 시설로는 편의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숲 속의 집, 산책로, 수목원, 산림박물관 등 자연을 관찰하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공간을 갖추고 있다.

<표 III-9>

서해안권의 자연휴양림·산림욕장 현황(2001년)

구분	명칭	위치	지정일	면적(m ²)
자연휴양림	명대계곡휴양림	보령시	1998	164,000
	용봉산휴양림	홍성군	1993	188,000
	희리산휴양림	서천군	1998	143,000
	영인산휴양림	아산시	1997	131,000
	안면도자연휴양림	태안군	1992	176,000
	칠갑산휴양림	청양군	1990	76,000
	만수산자연휴양림	부여군	1990	130,000
산림욕장	성주산산림욕장	보령시	1991	500,000
	아미산산림욕장	당진군	1999	200,000
	남산산림욕장	홍성군	1996	150,000
	장항송림산림욕장	서천군	1997	190,000
	성흥산성산림욕장	부여군	1995	24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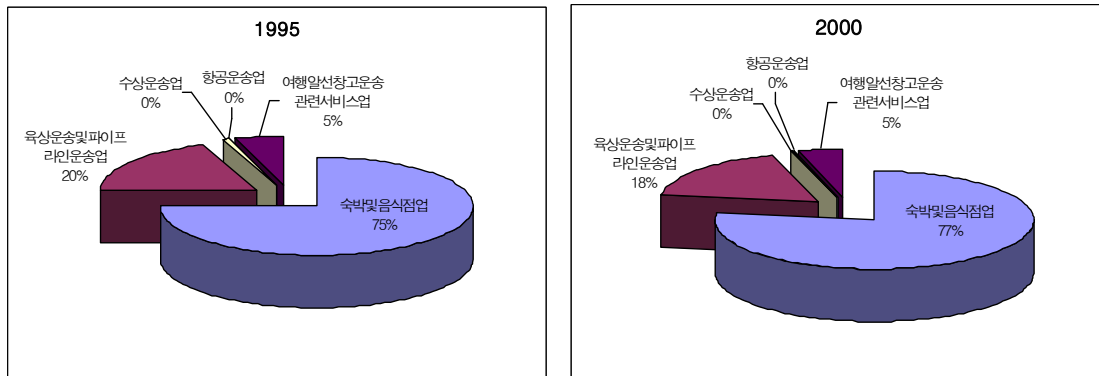
서해안권의 관광산업체 종사자수는, 2000년 현재 82,792명으로 충남의 산업체 종사자의 16.8%를 차지하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이 34,995개로 가장 많이 나타난 반면, 항공운송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종사자수로는 2000년 현재 아산시 8,069명, 서산시 6,511명, 보령시 5,527명, 당진군 4,957명 순이고, 태안군은 3,338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 서해안권의 관광산업체 종사자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숙박 및 음식점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 운송업	여행알선 창고운송관련 서비스업	소계	총종사자
충 남	1995	48,242	14,898	147	3,748	67,035	453,110
	2000	62,090	16,372	106	4,224	82,792	491,830
계	1995	28,504	7,422	147	1,934	38,007	241,386
	2000	34,995	8,188	106	2,057	45,346	249,169
보령시	1995	3,302	817	-	187	4,306	26,755
	2000	4,550	821	-	156	5,527	25,642
아산시	1995	6,422	1,239	7	229	7,897	53,775
	2000	6,406	1,477	4	182	8,069	5,8674
서산시	1995	3,435	988	44	295	4,762	31,090
	2000	4,800	1,134	70	507	6,511	34,665
부여군	1995	2,211	584	68	150	3,013	19,362
	2000	2,567	804	32	131	3,534	18,943
서천군	1995	1,798	700	-	467	2,965	16,878
	2000	2,122	604	-	524	3,250	18,943
청양군	1995	918	199	-	76	1,193	8,404
	2000	1,158	187	-	91	1,436	8,660
홍성군	1995	2,352	860	-	186	3,398	21,411
	2000	3,215	1,048	-	178	4,441	22,871
예산군	1995	2,590	764	-	122	3,476	22,513
	2000	3,287	921	-	75	4,283	20,945
태안군	1995	2,467	392	28	67	2,954	14,180
	2000	2,822	424	-	92	3,338	13,084
당진군	1995	3,009	879	-	155	4,043	27,018
	2000	4,068	768	-	121	4,957	28,893

[그림 III-2] 서해안권의 관광산업체 종사자수 비교도



서해안권의 시·군별 관광객수는 2000년에 보령시 14,104,100명, 태안군 8,799,488명, 아산시 6,792,242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의 관광산업체 종사자수를 비교해 볼 때 태안군이 관광객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서해안권의 시·군별 관광객수 현황

구 분	1995			2000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소 계	21,289,033	21,091,884	197,149	45,791,355	45,395,173	396,182
보령시	9,199,000	9,198,000	1,000	14,104,100	14,083,841	20,259
아산시	6,455,224	6,292,810	162,411	6,792,242	6,552,232	240,010
서산시	308,705	308,156	549	1,582,859	1,578,323	4,536
부여군	1,385,895	1,357,684	28,211	1,564,419	1,485,365	79,054
서천군	2,152,350	2,152,350	-	3,255,247	3,253,296	1,951
청양군	151,796	151,614	182	462,757	461,995	762
홍성군	-	-	-	1,115,944	1,115,056	888
예산군	1,460,605	1,459,965	640	5,269,405	5,233,471	35,934
태안군	6,707,485	6,527,040	960	8,799,488	8,797,586	1,902
당진군	1,667,973	1,664,766	3,207	2,844,894	2,834,008	10,886

자료 : 각 시·군 통계연보, 1996, 2001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1

4) 충청남도 관광객 현황과 관광지 이용행태

충남의 관광객 증가는 2000년말 현재 56,796천명으로 1988년 올림픽 이후를 기점으로 1993년 대전 엑스포를 거쳐 연평균 4.2%의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관광수입에 있어서도 1995년말 현재 315,388억으로 증가하였으나, 외국인의 관광수입은 1994년보다 오히려 감소한 추세이다.

<표 III-12> 충남지역 연도별 관광객 방문 추이(1991년-2000년)

구 분	관 광 객(천명)			관 광 수 입(억원)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1991	29,830	331	30,161	143,311	4,501	147,892
1995	31,942	224	32,166	310,390	4,998	315,388
2000	56,250	545	56,796	-	-	-

자료 :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각년도.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용교통편은 승용차와 승합차 등 자가용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1997년 전국 숙박관광의 54.9%와 당일관광의 68.2%⁴⁾를 비교해 볼 때, 승용차·승합차 등 자가용이 72.3%로 전국보다 높고, 대중교통은 23.6%를 나타내고 있다. 지정관광지의 경우 충남지역과 비교하여 대중교통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의 동반자 형태는 1997년 전국의 경우 가족동반의 경우 당일관광 43.5%와 숙박관광 47.4%였는데, 충남의 경우는 가족·친지가 54.2%로 가족동반의 관광객이 높았으며, 연인·친구는 33.8%이고, 지정관광지는 연인·친구가 38.1%로 충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동반자수는 충남이 3명~5명이 53.2%이고, 지정관광지는 61.5%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가족단위의 관광행태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관광객의 이용숙박시설은 1997년 전국의 경우인 친척/친구집(20.5 %), 여관/여인

4) 전국과의 비교는 한국관광연구원,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8.

숙(19.3%), 민박/캠핑(31.6%), 호텔/콘도미니엄(25.5%), 기타(3.1%)와 비교해 볼 때, 전국과 마찬가지로 민박/야영/별장이 30.4%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친구/친척집이 30.0%로 다른 숙박시설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는데, 지정관광지는 민박/야영/별장이 32.9%이고, 여관/여인숙이 23.5%로 비교적 저렴한 숙박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의 여행일정은 충남 전체의 경우 당일관광(41.1%), 숙박관광(58.9%)로 나타났으며, 숙박관광 중 1박2일이 29.4%, 2박3일이 21.3%의, 3박4일 이상은 8.1%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지정관광지는 숙박관광 중 2박3일 이상이 24.6%로 비교적 숙박기간이 긴일정에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충남 관광객의 여행목적은 1997년 전국의 경우에 당일관광시 자연/명승지 및 풍경관람(32.4%), 유흥/오락(24.9%), 낚시(9.9%), 고적/사적지/박물관 방문(7.8%), 온천휴양(7.0%), 등산/캠핑/하이킹(6.1%), 기타(11.9%) , 숙박관광시 자연/명승지 및 풍경관람(30.8%), 유흥/오락(18.69%), 수영/해수욕(11.9%), 고적/사적지/박물관 방문(9.1%), 등산/캠핑/하이킹(7.5%), 기타(22.1%)로 나타났다. 충남에서는 휴양/휴식활동(28.6%), 자연경관감상활동(28.0%), 역사문화 관광활동(23.8%), 각종 해양/수변관광활동(13.8%)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정관광지는 휴양·휴식활동(36.6%), 자연경관감상활동(22.3%), 각종 해양·수변관광활동(21.3%), 역사문화관광활동(10.9%) 등으로 충남의 전체지역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충남과 비교하여 지정관광지는 역사문화 관광활동이 낮은 것으로 있다. 충남의 관광발전을 위하여 해야 할 일에 대한 분석은 충남 전체는 관광상품의 개발(28.7%), 교통기반시설 확충(25.9%), 관광편의시설 확충(19.1%) 등의 순이며, 지정관광지는 교통기반시설 확충(28.2%), 관광상품의 개발(24.2%), 관광편의시설 확충(21.0%) 등의 순으로 기반시설 확충에 높은 비율을 나타내 지정관광지의 개발수준이 열악함을 반영해 주고 있다. 충남지역 관광객의 관광지 이용성향은 다음의 <표Ⅲ-13>과 같다.

<표Ⅲ-13>

충남지역 관광지 이용성향

변 수 명	구 분	충청남도		지정관광지	
		빈 도 (명)	구성비율 (%)	빈 도 (명)	구성비율 (%)
이용교통편	승용차/승합차(자가용)	383	72.3	90	71.4
	대중교통(철도, 버스 등)	125	23.6	34	27.0
	단체관광버스	17	3.2	1	0.8
	기타(도보, 자전거 등)	5	0.9	1	0.8
	소 계	530	100.0	126	100.0
동 반 자	혼자	26	4.9	6	4.8
	연인/친구	179	33.8	48	38.1
	가족/친지	287	54.2	62	49.2
	직장/여행사 등 단체	29	5.5	8	6.3
	기타	9	1.7	2	1.6
	소 계	530	100.0	126	100.0
동 반 자 수	1명 ~2명	91	26.3	17	20.5
	3명 ~5명	184	53.2	51	61.5
	6명이상	71	20.5	15	18.0
	소 계	346	100.0	83	100.0
이 용 숙 박 시 설 (당일제외)	친구/친척집	94	30.0	20	23.5
	호텔/콘도미니엄	48	15.3	12	14.1
	여관/여인숙	60	19.2	20	23.5
	민박/야영/별장	95	30.4	28	32.9
	기타(비숙박)	15	4.8	5	5.9
	소 계	312	100.0	85	100.0
여 행 일 정	당일	218	41.1	43	34.1
	1박 2일	156	29.4	36	28.6
	2박 3일	113	21.3	31	24.6
	3박 4일	23	4.3	9	7.1
	4박 5일 이상	20	3.8	7	5.6
	소 계	530	100.0	126	100.0
여 행 목 적 (복수응답)	자연경관감상활동	233	28.0	45	22.3
	역사문화관광활동	198	23.8	22	10.9
	가중 스포츠활동	13	1.6	7	3.4
	각종 해양·수변관광활동	108	13.8	43	21.3
	휴양·휴식활동	238	28.6	74	36.6
	특산물·기념품 구입 등	17	2.0	4	1.9
	기타	25	3.0	7	3.4
	소 계	832	100.0	202	100.0

변 수 명	구 분	충청남도		지정관광지	
		빈 도 (명)	구성비율 (%)	빈 도 (명)	구성비율 (%)
충남관광 발전을 위해 해야할일	교통기반시설 확충	133	25.9	35	28.2
	관광편의시설확충	98	19.1	26	21.0
	관광상품의 개발	147	28.7	30	24.2
	지역관광서비스의 개선	68	13.3	16	12.9
	충남관광의 광고 및 홍보	65	12.7	17	13.7
	기타	2	0.4	-	0.4
	소 계	513	100.0	124	100.0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 관광자원과 관광상품의 특화방안, 1999.

2. 안면도 지역여건과 관광지 개발현황 분석

1) 안면도 관광환경 분석

안면도는 입지조건상 서해안 개발과 더불어 수도권 전역과 충·남북, 호남권을 주요 이용권으로 하는 태안해안권의 광역관광권상의 중심 거점지로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접근조건상 서울기점 234km으로 차량이용시간이 3시간 30분에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2시간대로 단축되어 수도권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해졌다.

<표Ⅲ-14> 배후도시권, 관광권상의 세력권

구 분	도시세력권	관광세력권
30km	서산, 태안, 안홍	만리포, 몽산포, 연포, 원산도
60km	당진, 홍성, 예산	온양, 대천, 도고, 수덕사, 아산만
90km	천안, 공주, 부여, 수원	계룡산, 독립기념관
120km	서울, 대전, 인천, 전주	속리산, 용문산

주 : 직선거리기준

배후지역 현황으로는 태안군 지역의 대부분이 해발 100m 이하의 저산성 환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안선은 리아스식 해안지역과 소규모 간척지 및 외연도, 내·외파수도 등의 특징있는 도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도로는 국도 1개노선(32호선), 지방도 2개노선(603, 620호선), 군도 9개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면도 지역은 국도 중서부의 해안 끝에 입지하고 있으며, 타지역에 비해 육로로의 교통접근이 불리하였다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후 홍성IC로부터 접근성이 양호해졌고, 아직까지도 양호한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훌륭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커다란 관광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안면도내의 울창한 송림은 우리나라 최고의 삼림자원으로 송림속에서 쾌적한 휴양과 휴식을 즐기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휴양자원으로서 크게 선호될 만한 매력을 갖추고 있다. 안면도에는 백사장, 삼봉, 방포, 꽃지 등 해수욕장과 내파수도, 외파수도, 외연도 등의 도서와 정당리, 승언리의 적송림 그리고 춘란, 새우란 등의 희귀식물이 많다. 그리고, 할미바위, 할아비바위, 거북바위 등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대하, 해태 등의 지역특산물 등도 풍부하여 매우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안면도 지역에는 황도붕기풍어제, 조금막터, 쌀썩은여 등의 문화자원이 있으며 목장, 간척지, 염전, 규사광, 새우양식장 등 산업관광자원도 분포하고 있다(조재로, 1999).

자연자원으로 안면도의 해안은 태안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바와 같이 천해의 리아스(rias)식 해안을 이루고 있어 명승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북쪽에서 남으로 바라보면 4봉이고 남에서 북으로 추켜보면 3봉으로 보인다 하여 삼봉이라 이름지은 명사십리의 삼봉해수욕장, 봄부터 늦가을까지 수백척의 고깃배가 드나들고 특히 가을에 대하로 이름난 백사장 포구와 원래 흰모래 밭이라 하여 백사지라 이름지은 백사장해수욕장, 깊은 사연을 간직한 할아비·할미바위가 있는 방포, 서쪽을 바라보면 망망대해의 수평선이 있고 남으로는 바다 건너 보령시의 크고 작은 섬들이 가지런히 늘어선 섬들로 소해금강이라 찬미하기도 하는 영목,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고 동백나무를 비롯한 괴목 등이 자생하고 있으며 국내유일의 구석(조약돌)방파제가 있는 내파수와 바로 옆에 형제처럼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외파수도의 섬 등 넓고 긴 백사장과 기암이 해안경관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내륙지방의 정당리와 승언리의 울창한 소나무는 고유의 전원풍경을 느끼게 하고 이와 더불어 목가적인 초원과 구릉의 전개는 색다른 이색적 정서와 분위기를 연출하는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특히, 안면도 자연휴양림은 소나무가 잘 발달된 휴양림으로서 안면도가 자랑할만한 특화관광지로 손색이 없다.

인문자원자원으로는 황도의 당집과 봉기풍어제, 조금막터, 쌀썩은여, 조기노랭이 섬, 방포사지, 상여 등이 있다.

<표Ⅲ-15>

안면도의 관광자원 현황

자원유형	개소수	각 자원의 명칭
안면도 소나무림	2개소 (423ha)	정당리, 승언리
자연휴양림	1개소 (175ha)	안면도 자연휴양림 (산림전시관, 수목원, 야영장, 숲속의집, 삼림욕장 등)
해수욕장	12개소	백사장, 삼봉, 기지포(틀무시), 안면, 밧개, 두에, 방포, 꽃지, 셋별, 장곡, 장삼, 바람아래 등
해안경관지	6개소	삼봉, 방포, 꽃지, 백사장, 영목, 조기노루목
저수지	14개소	안면1,2,3, 창기, 미포, 덕뱅이, 그물목, 춘산골, 지루, 신야, 중장수로, 지포, 누동, 기골
기암	6개소	거북바위, 할미, 할아비바위, 남주바위, 등대석, 꽃바위, 문두절암
사적지	4개소	망수대, 쌀썩은여, 조금막터, 상여
절터	6개소	방포사지, 탑골사지, 귀곡사지, 창기절골사지, 중장절골사지, 동부터사지
기념물	2개소	내파수도 구석방파제, 모감주나무 군락지
전설	14개소	당산, 짓개, 쌀썩은여, 노루땅, 국사봉, 말운들, 팔학골, 할미·할아비바위, 각시터, 용천골, 구렁재, 삼봉, 용해, 창터와 불탄개

자료 : 조재로, “환경친화적인 관광지 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산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식물상으로는 안면도 승언리 방포해수욕장 옆의 모감주군락은 천연기념물 제138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지역의 우량소나무(일명 안면도소나무)는 천연림 및 유전자

를 보호할 목적으로 승언리 산 32~366 일대 약 115ha를 충청남도가 1978년 9월에 천연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귀중한 식물군에 속하는 것은 왕곰버들, 굴거리나무, 동백나무들이며 이외에 안면도의 특색식물은 새우난, 안면도 춘란, 수리딸기, 쥐꼬리풀, 단풍딸기, 수염치, 자풀, 삼백초, 은방울꽃, 등글레, 참나리, 우산나물, 병아귀꽃나무, 개산초나무, 사철나무, 마삭줄 등이 자생하고 있다. 식물중에서 한가지 아쉬운 것은 굴거리나무의 멸종이라 볼수 있다. 굴거리나무는 원래 중국 황해연안에서 성장한 식물로서 그 종자를 까마귀, 까치가 먹고 와서 방분하여 자생한 것으로 안면읍 중장리에 군락이 있어 천연기념물 137호로 지정되었는데 사람들의 남벌하여 멸종되었다.

동물상은 지역의 대부분이 완만한 구릉지로 동물의 서식조건이 불리하여 특색있는 동물상은 나타나지 않고 조류 및 곤충류를 중심으로한 국내 중서부 지방의 일반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해안 생태계는 섬의 동쪽 해안인 천수만쪽으로 주로 간석지로 이루어져 있고 파랑의 영향을 직접 받는 외양에 접한 서쪽 해안은 사빈 및 해안 사구가 발달되어 있다. 천수만 쪽의 갯벌은 오염 정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육상의 유기 영양물질이 끊임없이 공급되어 영양이 풍부하며 생물 생산성이 가장 높은 생태계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어 갯벌의 보존가치가 높다. 안면도 서해안에서 서식하는 동물상은 눈알고등, 물타리고등, 대수리, 맵사리, 콩게류, 민물게류, 조무래기 다개비, 별불가사리, 아므르불가사리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천수만 쪽에서는 바지락, 참갯지렁이류, 농게 등이 서식하고 있다(환경부, 1998). 안면도의 해안식물로는 갯눈쟁이, 통통마디, 나문재, 해홍나물, 수송나물, 섬갯장대, 갯땃꽃, 해당화, 물레나물, 갯까치수영, 순비기나무, 왕밀사초, 큰하늘지기, 향부자, 천문동 등 37종의 식물이 사구, 갯벌, 해변 가가운데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자생하고 있다(충청남도, 「島嶼誌」, 1993).

2) 안면도 관광자원과 관광행태 분석

안면도의 관광자원은 다양한 자연관광자원과 인문관광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잘 보존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제13호로 지정(1978. 10. 20)되었으며, 총면적 329.0km²로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고남면·남면·근흥면·소원면·원북면 등 1읍 5면에 걸쳐있다. 리아스식 해안선을 따라 기암괴석의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으며, 수심이 낮아 총 29개소의 지정·비지정 해수욕장이 발달되어 있다. 안면도내 해안국립공원에는 백사장·삼봉·방포 등 3개의 지정 해수욕장이 위치해 있다. 해안국립공원 내 방포해안에는 천연기념물 제138호인 무감주나무 400~500그루가 군락을 형성하며 자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면도 서쪽해안에는 기묘한 형상을 한 기암괴석들이 산재하고 있어 바다와 함께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표 III-16>

안면도 기암괴석 현황

구 분	특 성	위 치
거북바위	• 진기한 바위형상을 이룸	안면읍
할미·할아비 바위	• 거인처럼 우뚝 솟은 2개의 괴거석으로 일몰시 절경을 이룸	방포해안 서남쪽
남주바위	• 나들이 나오던 배의 난파로 죽은 고향을 그리는 남주의 형상	삼봉해안
등대석	• 해신이 배의 파손을 막아주려 이곳에 불을 밝혔다고 하며, 쫓대 형상을 하고 있음.	삼봉 남쪽 해안
꽃바위	• 온갖 해초가 바위에 엉켜 꽃송이를 연상케함	백사장
둔두절암	• 병풍을 두른 듯한 형상을 하고 있음	둔두리

자료 : 충청남도, 안면도 종합발전계획, 1999.

해수욕장으로 안면도 해안선의 총 길이는 약 181.8km에 달하며, 서쪽해안의 대부분은 천연 해수욕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안은 간만의 차가 심하나 경사가 완만하여 안전하고, 끝없이 펼쳐진 은빛 모래와 맑은 바닷물, 그리고 수온(水溫)이 알맞

아 해수욕장으로서는 최적지이다. 안면도에는 4개의 지정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60ha, 백사장 총 길이 8.9km에 달한다. 반면 비지정 해수욕장은 5개이며, 면적 47.5ha, 백사장 총 길이 10.5km에 이르고 있다.

<표 III-17> 안면도 지정해수욕장 현황

구 분	위 치		백사장 현황			해변형태
	소재지	태안읍에서 거리(km)	면 적 (ha)	욕장길이 (km)	폭 (m)	
계			260	8.9	300	규사양호
백사장	안면읍 창기리	26	36	1.2	300	규사양호
삼 봉	안면읍 창기리	28	114	3.8	300	규사양호
방 포	안면읍 승언리	34	14	0.7	200	조 약 돌
꽃 지	안면읍 승언리	35	96	3.2	300	규사양호

주: 꽃지해수욕장은 해안국립공원지역이 아님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1996.

<표 III-18> 안면도 비지정 해수욕장 현황

구 분	위 치	면 적(ha)	욕장길이(km)	최초개장연도
계		47	10.5	
안 면	안면읍 정당리	8	2	1991
빛 개	안면읍 승언리	10	2	1991
셋 별	안면읍 신야리	13	3	1992
바람아래	고남면 장곡리	6	1.5	1985
장 돌	고남면 장곡리	10	2.0	1988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1996.

또한, 안면도의 항포구는 백사장, 방포, 외도, 항포, 의점포, 가경주, 만수동, 영목, 탄개포, 고남, 장곰포, 죽고지, 대야도, 독개, 정당, 미개, 황도 등 소규모 항포구들이 산재하여, 활발한 어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안여객선, 유어선 등도 운행되고 있다. 특히, 백사장항은 대하집산지로 유명하고, 인근에 집단시설지구가 조성중이다.

<표 III-19>

안면도 항포구 현황

구 분	지정일	항내수면적	어선보유	기 능 시 설
백사장항	78. 4.24	221,000	59	급유소, 냉동공장, 위판장
방 포 항	95.10.30	410,000	36	
영 목 항	95.10.30	84,000	40	

자료: 충청남도, 「해안수산현황」, 1998.

특히, 안면읍 승언리에는 자연휴양림(185ha)이 위치하고 있으며, 수목원·야영장·전망대·주차장·통나무집·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있다. 이 휴양림의 가장 큰 특징은 해풍과 삼림욕장의 피톤치트(phytoncide) 향기와 각종 새소리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안면도 동쪽해안 천수만에는 넓은 갯벌과 연안습지, 소류지가 발달하고 있으며, 곳곳에 염전이 산재하고 있다. 또한 안면읍 승언리에는 두산목장, 고남면 장곡리·누동리에는 한국야쿠르트 목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원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승언리 내파수도는 조선시대 중국의 상선과 어선들이 폭풍을 피하거나, 식수공급을 위해 정박하던 섬이다. 동백나무가 자생하며 길이 300여 미터의 조약돌로 된 천연 그대로의 가치를 지닌 우리 나라 유일의 구석방파제(도지정 기념물 제64호)가 있다. 특히 황도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풍속이 있고, 임경업 장군을 비롯 5신 제례행사로 치뤄지는 봉기풍어제는 무형문화재 제12호로 길지받기(뱃신 내림받기)와 지숙경쟁(신모시기), 뱃기경주, 경변용신굿 등을 정월 초이튿부터 이틀간 시연하고 있다.

<표 III-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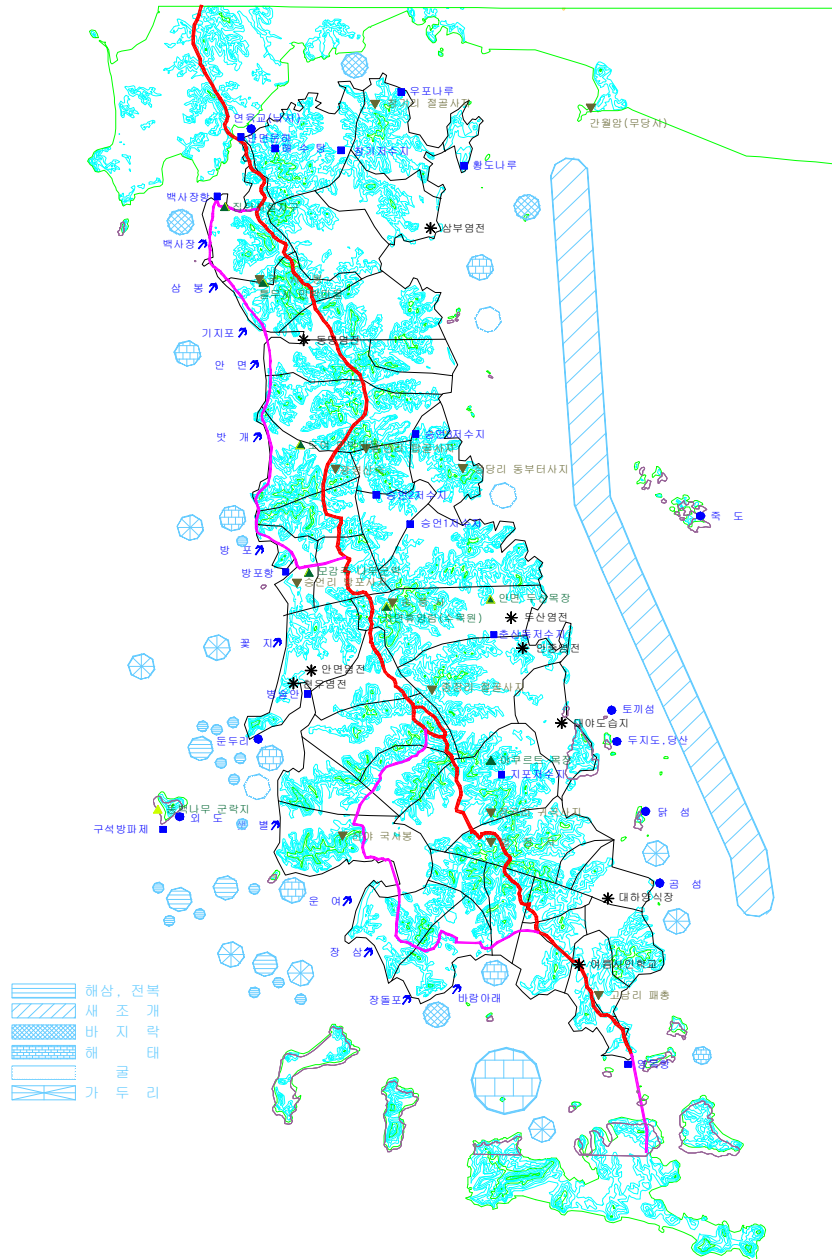
안면도 관광자원 분포 현황

자원유형	자 원 명	특 징	비 고
해수욕장	백사장, 삼봉, 기지포, 안면, 밧개, 방포, 꽃지, 섯별, 운여, 장삼, 장돌, 바람아래	서쪽해안을 중심으로 발달	기반 및 편의시설 미비
항포구	백사장, 방포, 황포, 영목, 독개, 황도, 우포, 가경주	백사장, 방포, 영목은 2중어항이나 대부분 소형항포구	유어 및 수산물시식
집단시설지구	백사장	백사장항 서쪽에 조성중	안면도 관광거점
염 전	안면, 천우, 동명, 삼부, 두산, 안중	일부염전에서만 소금생산	체험 및 학습장소
사적지	망수대, 쌀썩은여, 조금막터, 상여	역사문화 자원	생태·역사관광지로 개발
절(寺趾)	방포사지, 창기절골사지, 중장절골사지, 탑골사지, 동부터사지, 귀곡사지, 송풍사, 법정사	안면도 일원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나 대부분 알려지지 않고 있는 자원들임	체계적인 조사 미흡
해안경관지	삼봉, 방포, 꽃지, 백사장, 영목, 조기노루목	외북관광객들의 대표적인 자연경관 감상포인트	낙조나 관광포인트로 활용
목 장	안면두산목장, 한국야쿠르트목장	염전, 소류지 등과 인접	생태관광자원
습지	내륙 안면1·2·3, 창기, 미포, 먹뱅이, 그물목, 춘산골, 지루, 신야, 중장수로, 지포, 누동, 기골	농업용이나 습지화되고 있음	낙시
	연안 갯벌, 대야도습지	천수만쪽을 중심으로 발달	갯벌체험
섬	내파수도(외파수도), 외도, 죽도, 토끼섬, 두지도, 닭섬, 곰섬 등	대부분 무인도임	바다낙시
기암괴석	거북바위, 할미·할아비바위, 남주바위, 등대석, 꽃바위, 둔두절암	항포구나 해수욕장 인근에 입지	사진촬영, 낙시
민박마을	틀무시, 도여, 장돌포	해수욕장 주변을 중심으로 입지	방문객을 위한 숙박중심 기능수행
기념물	모감주나무 군락, 동백나무군락, 구석방과제	방포해안, 내파수도에 입지	체계적 관리미흡
휴양림	안면도 자연휴양림(산림전시관, 수목원, 야영장, 숲속의 집, 산림욕장 등)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개최예정지	휴양 및 숙박, 관람기능 수행
이벤트	2002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대하축제, 남사당놀이, 안면도 현대예술축제(무용, 전시), 사진촬영, 홍송축제, 젓갈축제, 해변시인학교, 황도봉기풍어제, 여름시인학교	대부분 여름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맞추어 개최	대부분 민간단체 중심으로 운영
먹거리	대하, 우럭회, 해삼물회, 와그락탕, 낙지전골, 조개탕, 동동주	해산물을 중심으로 발달	먹거리에 대한 정보부족
특산물	간척지 쌀, 고추, 보리, 마늘, 생강, 까나리액젓, 한우	안면도 주민의 주요 소득원	특판장 부재
전 설	당산, 젓개, 쌀썩은여, 노루땅, 국사봉, 말운들, 팔학골, 할미·할아비바위, 각시터, 용천골, 구렁재, 삼봉, 용해, 창터와 불탄개	안면도와 관련된 전설로 학생들과 외부방문객들을 위한 학습장소로 활용가능	전설내용 등에 대한 안내판 설치

자료 : 충청남도, 안면도종합발전계획, 1999.

[그림 Ⅲ-3]

안면도 관광자원 분포도



자료 : 충청남도, 안면도종합발전계획, 1999.

안면도 내에는 승언 1·2·3 저수지, 창기저수지, 지포저수지, 고남저수지, 춘산동저수지, 염전소류지, 사기점소류지, 큰·작은 먹뱅이지, 지루지 등이 있으며, 민물낚시터로 유명하다. 이외에도 대하, 꽃게 등 수산물과 까나리 액젓, 각종 어패류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대하회, 해삼물회, 동동주, 낙지전골, 우럭매운탕 등의 신선한 먹거리가 풍부하다.

안면도 관광객의 관광변화 전망으로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건설과 장항선 복선화로 안면도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과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개최로 방문객 급증하는 한편, 관광객의 증가를 대비한 환경친화적 관광개발 압력이 증대될 것이다.

<표 III-21>

안면도의 관광성향

구 분	관 광 성 향
현 재 의 관광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자연경관 감상위주의 관광 • 가족·친구 방문자가 1박 2일 코스로 방문하고 있으며, 주로 민박을 이용 • 안면도만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하기 위해 방문 • 자연휴양림과 해수욕장, 항포구를 중심으로 한 하계집중형 관광
앞으로의 변화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안 고속도로의 건설과 장항선 복선화로 안면도 관광수요 증가 •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과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개최로 방문객 증가 • 자연·생태·체험·문화관광활동에 대한 관광수요 증가 등으로 사계절 관광지화 • 관광객의 증가를 대비한 환경친화적 관광개발 압력 증대 • 항포구 및 갯벌체험을 위한 방문의 증가

안면도 지역의 하절기 지정해수욕장 관광객은 1998년 현재 2,823천명으로 1991년에 비해 305.6%(연평균 22.1%) 이상 증가하고 있다. 안면도 자연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도 1998년 총 77천명으로, 94년에 비해 177%(연평균 15.7%)의 높은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III-22>

안면도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

(단위: 천명,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연평균증감률 (91~98)
계	696	484	575	1042	1364	1,978	2,382	2,823	22.1
백사장	84	52	107	147	112	154	276	192	12.5
삼봉	232	191	196	263	376	497	671	424	9.0
방포	117	63	45	126	78	126	226	217	9.2
꽃지	263	178	227	506	798	1,199	1,209	1,990	33.5

자료: 태안군 문화관광과, 「내부자료」, 1999.

<표 III-23>

안면도 자연휴양림 이용객 현황

(단위:천명, %)

연 도	1994	1995	1996	1997	1998	연평균증가율
방문객수	43	59	68	74	77	145.6

자료: 충청남도 산림과, 「내부자료」, 1999.

안면도지역 관광서비스 시설현황으로는 숙박업, 숙박겸업 음식점, 해수욕장 운영 및 휴양림 관리 등이 해당되며, 해안선 주변으로 해수욕장과 함께 관광서비스 시설이 분포한다. 생활서비스시설과 비교할 때, 관광서비스 시설 분포가 주민생활권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관광서비스시설은 승언2리, 4리, 8리, 창기 5리, 6리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표 III-24>

안면도 관광서비스시설 분포 현황

구 분	숙 박	숙박 및 음식점	해수욕장 관리	계	백분율(%)
고 남 리	1	1	-	2	1.4
승언 1리	5	1	-	6	4.1
승언 2리	20	-	-	20	13.8
승언 4리	16	4	-	20	13.8
승언 8리	19	3	¹ (방포 해수욕장)	23	15.7
신야 2리	6	2	-	8	5.5
장 곡 리	17	-	-	17	11.7
정당 1리	12	-	-	12	8.3
정당 2리	4	-	-	4	2.7
창기 1리	1	-	-	1	0.7
창기 2리	2	-	-	2	1.4
창기 5리	28	1	¹ (백사장 해수욕장)	30	20.7
창기 6리	23	-	¹ (삼봉 해수욕장)	24	16.5
계	131	12	3	145	100.0

자료: 충청남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1998.

안면도 관광지를 방문하는 이용객은 대부분 이용객의 거주지는 서울·경기지역으로 충남지역은 약 15%가 이용하고, 평균체제일수는 2일 정도이며 가족단위로 찾는 사람이 60%로 많다. 평균 동반자수는 4~5명 정도이고 반이상이 승용차를 이용하고, 숙박은 대부분 민박과 캠핑으로 하계 집중현상을 보이며 여관 및 호텔, 콘도 등 고급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태안해안을 방문이유는 동해안에 비해 교통이 한산하기 때문이며, 내륙연계 관광지로는 온양온천, 수덕사, 덕산온천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충청남도, 1997).

3)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현황 분석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계획은 국제적 규모의 해양종합리조트 개발을 목표로 4계절 관광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의 추진경위는 어떠한지 살펴보면, 1990년에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 1991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후 관광지를 지정하였고, 1992년 안면도 관광지 조성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면적 : 3,096,828㎡)을 획득한 이 후, 1999년 안면도 관광지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로 관광지 조성계획이 변경승인(면적, 5,170,982㎡) 되었다. 계획 대상지는 현황분석는 다음 <표Ⅲ-22>의 분석내용과 같다.

<표Ⅲ-24> 안면도 관광지 개발 대상지 분석

구 분	입 지 특 성	개 발 잠 재 력	문 제 점
꽃지 중앙	• 꽃지 중앙 해안부 • 꽃박람회장 활용	• 서해바다 전망 양호 • 배후수림 비교적 양호	• 제방으로 모래 유실 • 모래사장 남북연계미흡
꽃지 북측	• 꽃지 북측해안부 • 완경사 평탄지	• 방포해수욕장, 꽃지 해변 등과 연계	• 수림형성미약 • 주차장변 개발확산 우려
꽃지 내륙	• 꽃지 중앙내륙부 • 완만한 구릉성 산지	• 휴양림지역과 연계 • 기존 산지도도로로 연결	• 사장, 해변등과 다소 이격
꽃지 남부	• 꽃지 남부둔두리산일대 • 경사형 돌출 산지	• 잡종지, 병술안만과 연계	• 급경사지분포 • 국립공원에 일부편입 • 해안암초 발달 • 규사광구설정
중장리 해수변	• 중장리 해수호변 평 탄 구릉지	• 해수호 가시권	• 사질토로 구성 • 수림형성 미약
중장리 내 륙	• 중장리 내륙양화산 일 대 경사형 산지	• 양화산 정상에서 전망 양호 • 수림양호	• 일부 사유지 편입

입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서해안의 바다를 낀 저산성 구릉지로 전원적, 목가적, 정적 분위기의 입지성을 보이고 있고, 배후도시의 발달이 미약하여 도시형 관광지 성격으로 부적합하다. 또한, 아직 오염되지 않은 천연 사장을 보유하여 꽃박람회를 꽃지지구로 중심으로 안면도 거점관광화 가능지역이다. 따라서 주변 관광자원인 휴양림, 목장, 해수호, 매립지, 염전, 어촌 등과 경합하지 않은 보완·연계 관광지로 개발이 필요하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21세기 국제적 리조트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외국투자자간 합작투자를 위해 안면도 관광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1999년까지 393억원을 투자하여 관광지내 편입용지와 지장물 보상, 진입도로, 주차장개설, 이주단지 및 집단묘지조성, 상수도시설 등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위 치 : 태안군 안면읍 승언·중장·신야리 일원
- ② 면 적 : 5,170,982m²
- ③ 주요 유치 목표 및 시설
 - 안면도 특성(Image)을 제고할 수 있는 주제활동을 우선적으로 선정
 - 하계집중형 해수욕 위주의 기존 관광지 개발에서 4계절 휴양지화
 - 장기체제 유도를 위한 다양한 숙박형태 도입
 - 주변 관광지 및 해안·도서지역을 연계하는 종합관광단지로 개발
 - 다양한 계층의 휴양·위락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활동 도입
 - 각 지구별 시설현황
- ④ 투자사업비 : 1조 1,129억원(공공 1,612, 민자 9,517)
 - 충청남도 : 공공기반시설 및 사유토지 매입(612억원), 토지출자(1,000억원)
 - 민 간 : 자금(민간 및 외자)과 기술투자

구 분		시 설 내 용		
테마 파크	공공편의 시 설	• 종합관리사무소 • 화장실	• 주차장(2) • 샤워탈의장	• 버스터미널 • 도로
	숙박시설	• 비치호텔(2동)		
	상가시설	• 전문상가	• 특산물판매장	• 해변상가
	운동오락 시 설	• 종합유희시설	• 모노레일정거장	
	휴양문화 시 설	• 휴게광장 • 조경휴게지	• 해변광장 • 야외공연장	• 상징광장 • 꽃지전망타워
	녹 지	• 녹지대		
실버 타운	공공편의 시 설	• 주차장(4) • 관광헬기장	• 화장실(2) • 도로	• 샤워탈의장
	숙박시설	• 유스호스텔 • 이주민단지	• 콘도미니엄	• 비치호텔(3동)
	상가시설	• 상가	• 종합관광센터	
	운동오락 시 설	• 모노레일정거장		
	휴양문화 시 설	• 휴게정 • 헬스크리닉센터 • 화훼식물원 • 매표소/안내소	• 노인휴양홈(9동) • 해변광장 • 온실	• 노인복지관 • 조경휴게지 • 관리동
	녹 지	• 녹지대		
엔터테 인먼트	공공편의 시 설	• 주차장(5) • 하수/폐기물처리장	• 화장실(3) • 도로	• 샤워탈의장(2)
	숙박시설	• 비치호텔	• 허니문호텔	• 컨벤션호텔
	상가시설	• 전문상가	• 해변상가	
	운동오락 시 설	• 오션돔(워터파크) • 모노레일정거장	• 마리나센터	• 종합위락센터
	휴양문화 시 설	• 휴게정(2) • 조경휴게지	• 전망대	• 해변광장
	녹 지	• 녹지대		

구 분		시 설 내 용		
골프장 지 구	공공편익 시 설	• 주차장(4)	• 관광헬기장	• 도로
	운동오락 시 설	• 클럽하우스 • 기타운동시설	• 골프연습장	• 골프코스
	휴양문화 시 설	• 휴게정(4)		
마린월드 지 구	공공편익 시 설	• 주차장(4) • 매표소	• 화장실(2) • 도로	• 관리운영센터
	숙박시설	• 관광호텔		
	상가시설	• 휴게매점	• 상가	• 전문유흥음식점(2)
	운동오락 시 설	• 수상스키/모터보트장 • 모노레일정거장	• 게임센터 • 곤도라스테이션(2)	• 어린이놀이시설
	휴양문화 시 설	• 돌고래/범고래쇼장 • 수족관 • 바다극장 • 상징/해변/휴게광장	• 물개쇼장 • 해양문화센터 • 해양동물연구센터 • 연못	• 바다사자쇼장 • 어패류전시관 • 입구광장(2) • 조정휴게지
	녹 지	• 녹지대		
병술만 해수호 지 구	공공편익 시 설	• 방조제 • 도로	• 산착장	• 방파제
	숙박시설	• 콘도미니엄		
	상가시설	• 해양관광센터		
	운동오락 시 설	• 곤도라스테이션(2)	• 마리나	
	휴양문화 시 설	• 유람선승선장	• 해양생태원	
	녹 지	• 녹지대/해면부		

자료 :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 변경, 1997.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으로 1997년에 수립된 안면도관광지개발 기본계획 변경에서는 테마파크지구(357,252㎡), 실버타운지구(919,515㎡), 엔터테인먼트지구(786,188㎡), 골프장지구(1,048,831㎡), 마린월드지구(385,546㎡), 병술만해수호지구(1,673,650㎡) 등 총 면적 5,170,982㎡(1,564,220평)을 개발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들 계획지구중에서 테마파크지구가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한 꽃지지구이다.

4.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의 과제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안고 있는 과제로는 관광지 개발의 접근 개념, 안면도 관광환경의 변화,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지역의 지형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1) 집중과 분산개발의 조화 개발 필요

대부분의 관광지 개발계획에서는 주변의 타 관광지와의 광역적 연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일 관광지 중심의 시설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따라서 유사한 시설의 중복개발 및 과도한 시설개발로 관광객 저조에 따른 경제성 미흡으로 기존 관광지 투자의 기회는 물론 신규관광지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국비 등의 분산지원으로 공공자금 지원의 효용성이 감소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관광지는 계절성, 요일성 등으로 단순히 피크시를 중심으로 시설개발을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개발계획이나 조성계획의 수립 시 현재의 단일 관광지 중심의 과도한 시설계획에서 탈피하여 광역적인 차원에서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거점지역에 관광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다양한 관광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계절성을 극복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며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거점지역 또는 거점관광지 이외의 지역에서는 기본적 편의시설만 소규모로 개발하도록 한다. 이러한 거점개발방식의 도입은 환경보전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며 사업의 수익성을 증대하여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거점개발 방식에 있어서 거점지역의 선정은 반드시 관광지일 필요도 없으며, 인근에 도시가 있는 경우 도시시설을 적극 활용한다면 도시도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고 관광지에서는 비수기로 인한 시설의 유휴화를 방지할 수도 있다.

또한, 단일 관광지 중심의 과도한 시설계획과 중복개발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단위 관광지 개발계획에서는 개발계획 수립 시 주변의 타 관광지와의 광역적 연계(지역내, 지역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일 관광지 중심의 시설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따라서 시설측면에서 유사한 시설이 개발되어 관광지별로 특화가 미흡함은 물론 관광지간 상호보완적으로 시설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관광지의 인접개발 및 유사한 시설의 중복개발은 관광객 부족에 따른 경제성 미흡으로 기존 관광지 투자의 기피는 물론 신규관광지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국비 등의 분산지원으로 공공자금 지원의 효용성이 감소된다고 할 수 있다(국토연구원, 2001).

안면도 관광지를 충남 서해안의 거점관광지로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대천해수욕장·보령관광특구와 아산관광특구와의 관계에서 경쟁관계가 아닌 차별화된 보완관계의 관광지로 개발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의 개발계획에는 경쟁과 보완관계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안면도 지역내의 관광개발에 있어서도 집중과 분산이 조화된 관광지 개발의 추진이 필요하다.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안면도는 민박이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안면도 전체가 관광숙박시설단지로 변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동향이 계속될 경우 안면도는 환경친화적 관광개발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관광지의 방문관광객의 관광동기에 관한 연구(민창기, 2001)에 의하면 자연에서의 휴식, 자기탐색, 가족관계 강화가 주된 요인이며, 이밖에 해수욕과 운동, 일상성 탈피, 지위향상(Prestige) 등으로 나타나 해양관광지는 자연자원의 우수성에 크게 의존하며, 자연자원을 주제로 한 관광명소의 존재 유무, 이들 자연자원 및 명소의 방문이 관광객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차별화된 해양관광지로 유지하여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개발의 핵심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안면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국제적인 리조트 휴양지가 있는 관광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광지를 거점관광지로 하여 관광기능과 시설물을 한

곳으로 중점지구로 개발시키고, 여기에서 안면도 지역의 다양한 소규모 관광자원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집중과 분산의 관광개발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2) 안면도 관광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계획으로 수정 필요

2002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이후, 서해안권에서 안면도 관광위상의 제고, 꽃지지구의 활용문제와 병술만·골프장지구의 환경문제, 실버타운지구의 타당성, 관광개발 여건 성숙에 따른 지역주민 참여 문제, 외자도입 및 민자유치의 문제 등이 현재 안면도 국제관광지가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안면도 국제관광지의 개발지구의 하나인 꽃지지구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 이후 이를 지속화하여 연계발전 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병술만·골프장지구와 꽃지 해수욕장은 환경단체가 환경친화적 개발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또한, 실버타운지구와 각 개발지구별 시설 중 모노레일과 같이 해안경관과 조화되지 않는 도입기능과 시설들은 개발의 입지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안면도의 관광위상 제고로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를 하여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참여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계획 뿐만 아니라 주변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도 지역주민 참여를 배제하고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안면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의식조사결과(충청남도, 1999)에 의하면, 관광객들이 안면도를 방문하는 동기는 안면도만의 매력과 독특한 분위기를 경험하기 위해 방문을 하는 것으로 안면도의 자연경관을 감상하기 위해 방문(69.9%), 어촌과 항포구를 체험하기 위해 방문(8.9%),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기분전환을 위해 방문(8.9%), 조용하게 쉬고 싶어서 방문(5.4%)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면도의 개발방향을 육지와는 다른 연안도서 특유의 자연환경 중심의 전원농어촌과 고급휴양지로 개발하여 연

환경중심의 전원농어촌(53.6%),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휴양지(26.8%), 양식·어선어업·레저타운 중심 해양휴양지(7.1%)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 후 급증한 관광객과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조화시키는 계획으로 수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안면도 관광지내 부지특성과 조화된 기능과 시설도입 필요

국토연구원의 관광지 실태와 대책의 연구에 의하면, 관광지개발에 있어 차별화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정된 유사시설 도입(50.0%), 사업운영 미흡(23.4%)이었고, 현재 개발과정의 문제로는 지역민과의 마찰, 복잡한 행정절차, 공공차원의 계획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로는 예상보다 저조한 방문객수 34.4%, 비수기문제 25.8%, 비전문적인 운영방식 18.3%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수기 문제를 제외한 저조한 방문객에 대해서는 83.0%가 관광지별 차별성의 부재라고 답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소규모 시장규모, 주변 관광지와의 경쟁, 홍보 및 광고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지의 지정기준은 시행규칙 별표14조에 제시된 바와 같이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관광안내소와 같은 공공편익시설의 요건만 갖추면 된다. 이러한 시설들은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광지 개발은 이러한 기초시설을 넘어서 관광단지적 성격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지 조성계획에 제시된 시설면적 비율은 12개소 중 9개소가 50.0%이상으로 시설개발 중심으로 되어 있어, 관광지의 지정목적이 관광자원의 정비보다는 이용을 위한 시설개발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가와 숙박시설 면적비율을 보면 더욱 분명해 진다. 사례지역 12개소 중 2/3인 8개소가 상가와 숙박시설 면적은 총 지정면적의 20% 이상이나 되며 5%이하인 곳은 2개소뿐이다(국토연구원, 2001).

특히, 해안관광지 개발에서 내륙과 차별화 되는 해변공간의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쾌적성과 장소성을 중시하고, 해변으로서 개방성, 보행자 위주의 동선체계 및 오픈스페이스의 확충과 더불어 자연 및 역사경관의 보존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안면도 관광지 역시 도입시설물과 해변은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해안의 지형적인 특성에 의한 시설배치 구성을 맞도록 바다와 내륙의 연계를 고려하는 환경친화적인 시설배치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안면도 관광지 역시 각 지구별 및 지구내 시설별 기능구성상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입기능과 시설배치를 재편성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특히, 부지전체지구를 운행하는 모노레일 시설은 해안의 경관을 고려하여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테마파크지구는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된 곳으로 향후 꽃박람회의 의미를 지속화 할 수 있도록 도입기능과 시설을 재검토 해야 하며, 동시에 실버타운지구의 화훼식물원과 온실 시설은 테마파크지구 시설과 중복되기 때문에 재검토되어야 하며, 주변의 안면도 자연휴양림과의 기능연계와 차별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지구별 기능 및 시설내용이 안면도를 대표할 수 있는 주제화된 특성을 도입하고, 주민참여형 관광시설과 프로그램이 도입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안면도 관광지 표적시장조사 및 이벤트 프로그램 계획의 부족

전국적인 관광지개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로 ‘관광지별 차별성의 부재’, ‘소규모 시장규모’, ‘주변 관광지와의 경쟁’, ‘홍보 및 광고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시장규모가 정해져 있는 가운데 너무 많은 유사한 관광지가 지정되어 개발이 되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는 있지만, 관광지별로 본다면 관광객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시설설치와 유치노력도 부족한 형편이다. 대부분의 관광지는 자원의존형의 관광지인데 산악형 등은 국립공원 등의 자연공원보다 자원의 매력도에서 떨어지고, 시설중심형에서는 민간차원의 관광지보다는 자원이나 시설 면에서 매력도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주도의 시설개발과 상가와 숙박시설 중

심의 소규모 개발은 급격히 변화하는 관광객의 욕구에 부응하기가 어렵다(국토연구원 2001).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에 있어서도 공급자 중심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관광수요시장을 고려한 주요 표적계층이 없이 전국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도입기능 및 시설을 결정하고, 이벤트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충분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기존의 개발계획 보고서에서 분석할 수 있다.

현재 안면도 관광지에 도입된 시설물은 대부분 다른 해안관광지 개발계획에 도입된 시설과 동일하여 현재 관광객의 수요에 부응한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안면도는 계절성 등으로 관광객의 방문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관광객 성향과 이용행태 등의 꾸준한 연구 및 조사활동과 관광지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 및 광고 활동과 더불어 비수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 등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방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지 주변의 유사 관광지나 관광명소, 이름난 먹거리 자원 등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각 언론에서 기사화 또는 보도되도록 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거나 기존 여행사와의 관광상품화를 추진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외 관광시장을 대상으로 이용 계층별, 계절별,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한 표적시장을 선정하고, 이에 맞은 도입기능과 시설, 각종 이벤트 행사 프로그램 및 이벤트 행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광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지역주민이 참여와 연계할 수 있는 시설공간과 프로그램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IV. 안면도 관광지 조성 촉진 방안

1. 안면도 관광지 촉진을 위한 접근 틀

안면도 관광지는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개발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계획은 국제적 규모의 해양종합리조트 개발을 목표로 4계절 관광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1990년에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 1991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후 관광지를 지정하였고, 1992년 안면도 관광지 조성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면적 : 3,096,828㎡)을 획득한 이후, 1997년 안면도 관광지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로 관광지 조성계획이 변경승인(면적 : 5,170,982㎡)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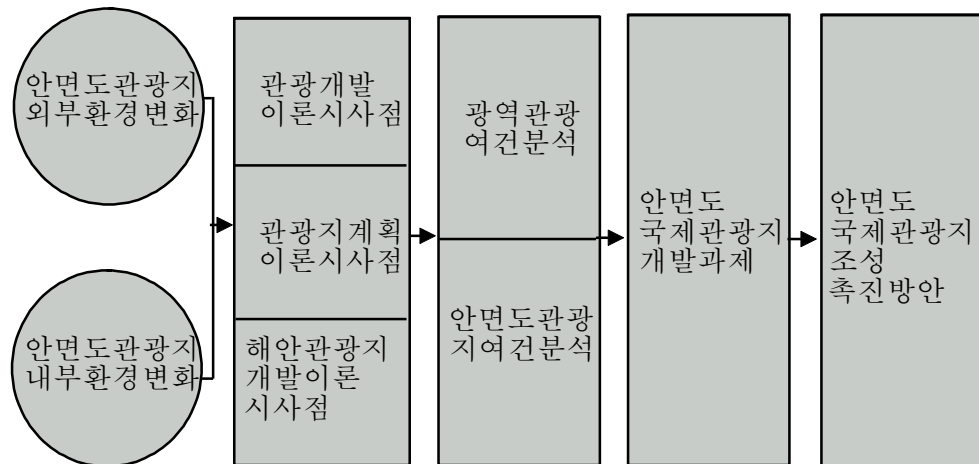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기존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던 내용들이 안면도와 주변지역의 관광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개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위한 여건 분석을 통하여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의 과제를 도출해보고, 도출된 과제를 해결하면서 관광지 조성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안면도 관광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는 관광개발 이론과 관광지 계획이론, 해안관광지 개발이론의 검토를 통해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론적 검토의 실증적 분석을 위한 안면도 관광지 개발의 여건분석에서는 거점 개발을 위한 광역관광여건을 분석하고, 충청남도과 서해안권의 관광여건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조성중인 안면도 관광지의 도입기능과 시설을 분석하기 위하여 안면도의 관광자원 현황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림 IV-1] 안면도 관광지 축진을 위한 접근 틀 개념도



2. 안면도 국제관광지 축진의 기본방향

안면도 국제관광지 축진의 기본방향은 관광개발과 관광지 계획이론의 접근방향과 해안관광지 개발이론과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의 분석에 대한 과제의 개선을 위한 개발의 기본방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안면도 관광환경변화에 따른 관광개발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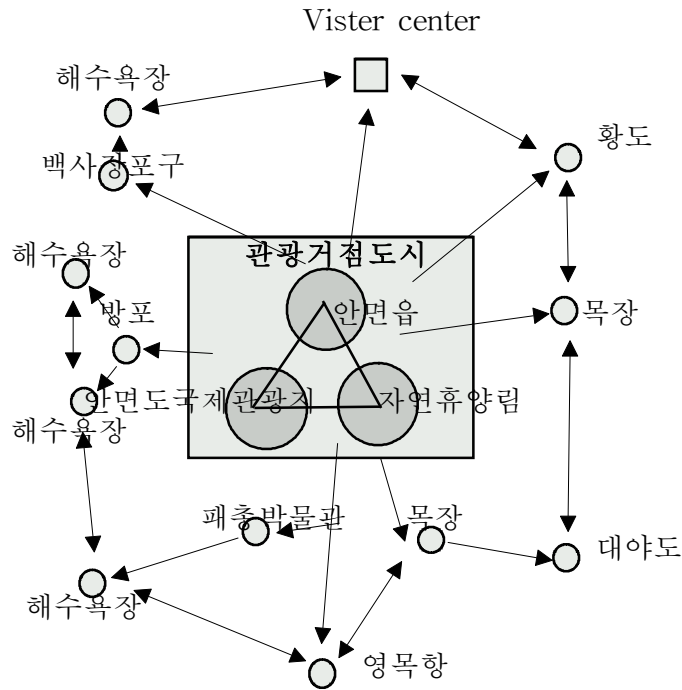
안면도 관광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은 안면도 전체지역을 하나의 관광대상지로서 접근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면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의 관광자원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집중과 분산이 조화된 관광지를 개발하고, 안면도의 주변과 기능을 연계하면서 지역특성을 살려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안면도의 관광시장에 적합한 표적시장을 선정하여 인근의 보령 대천해수욕장과 차별화된 관광지를 개발하고, 안면도내 다양한 관광자원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관광지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① 안면도 지역차원에서 집중과 분산이 조화된 관광지 개발

관광지 개발계획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주변의 타 관광지와의 광역적 연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유사한 시설의 중복개발 및 과다한 시설개발에 의한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여 집중과 분산을 조화시켜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면도는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된 꽃지지구를 중심으로 안면도 국제관광지를 조성중에 있으므로 국제관광지 개발지를 집중지구로 하여 주변의 다양한 관광자원들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분산하는 허니포트형(honey-pot) 관광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안면도종합발전계획(1999)에서도 제안하고 있는바와 같이, 꽃지를 중심으로 한 안면도 국제관광지가 관광핵심 거점이 되고 인접해 있는 안면도 자연휴양림과 안면읍을 삼각축으로 연결하는 안면도 관광거점도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의 항포구와 해수욕장, 목장, 갯벌, 섬, 문화유적지 등의 관광자원간의 연계망을 설정하여 주요 거점간을 연계하는 광역관광루트를 설정하여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친화적이면서, 송림과 해안에 있는 지역특성의 자연·문화관광자원의 잠재력을 관광상품화하여 마케팅 하는 관광개발을 추진한다.

[그림 IV-2] 안면도 거점관광개발을 위한 접근개념도



②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 이미지를 제고하는 개발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안면도의 관광이미지 제고로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화훼산업의 발전에도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다주었다. 전시참가 32개국 178개 업체가 참가하고, 관람객은 72만명 목표에서 164만명이 방문하였으며, 수익은 217억원에 화훼수출 4,617천불을 가져다주는 파급효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는 꽃박람회의 성공을 연례적으로 지속화하면서 꽃과 자연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시키기 위한 관광지 개발로 연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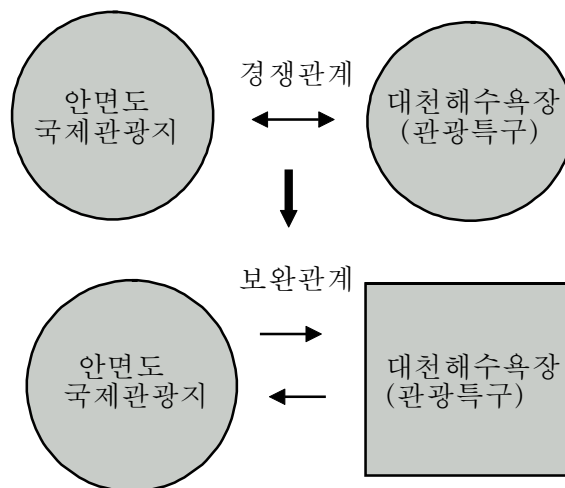
이를 위해서는 기존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계획 중 꽃지지구인 테마파크지구에 미니꽃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광장과 이벤트 공간을 확보하여 기존의 관광지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한다.

③ 안면도에 적합한 표적시장의 선정과 대천해수욕장과 차별화

서해안권의 시·군별 관광객수의 분석에서도 나타난바와 같이 보령이 14,104,100명 태안이 8,799,488명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이 후 안면도 국제관광지와 대천해수욕장에 관광객이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해안권에서 충청남도의 거점관광지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두 곳 관광지가 동일한 해안의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지로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합한 표적시장에 의한 고급형 리조트휴양지로서 차별화된 관광지로 보완관계의 관광지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보령-안면도간에 연육교가 건설될 경우 상호간 인접하여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보완관계로 보령의 대중형 관광지와는 관광객 표적시장을 달리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관광기능과 시설을 도입하여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그림 IV-3] 안면도 거점관광개발을 위한 접근개념도



④ 안면도 다양한 관광자원의 네트워크화와 이벤트 상품개발

안면도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생태자원, 자연휴양림, 항포구, 해수욕장, 기념물, 먹거리, 목장, 특산물, 섬, 등과 꽃박람회, 대하축제, 황도붕기풍어제, 여름시인학교, 홍송축제 등의 이벤트 상품들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다양한 관광자원들은 현재는 개별 관광자원으로서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개발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계절별 꽃이벤트와 민속 및 자연자원 테마별로 거점관광지와 연계된 관광코스과 이벤트 상품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2) 해안관광지로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의 기본방향

① 공공성을 중시한 개발방식과 사업추진

해안관광지내 기존 국·공유지나 해안매립 또는 공유수면해제에 따라 확보된 부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가 아닌 민간에게 전부를 매각하는 사업방식은 지양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가용할 수 있는 토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제 개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민간기업과 상호협력하여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일회성에 그치고 마는 공영개발의 사업방식보다는 높은 지속적인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해안부의 사유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속적으로 자원의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민자와 외자의 참여를 통한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관광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지역민이나 지역관련단체 등에 토지를 임대하여 관광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은 당해 지역발전 사업으로서 성공적인 지지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② 개방성을 중시한 해안환경과 경관보존형 관광지 개발

해안의 사유화에 의한 접근성 제한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안선으로 부터 어느 정도 이격 시킨뒤 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게 하는 건축한계선을 해안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고, 사유지내 건립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1층 평면부는 공공 공간화하거나 오픈된 형식의 건축물을 권장토록 하여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제정이 요구된다.

또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해변토지 이용과 연계하여 규제토록 해야 하며,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도 일정간격 이상을 띄우도록 유도함으로써 해안의 과밀정도와 인공화를 예방토록 하고 그 간격을 시각통로로 활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현재 안면도 관광지 계획에서 수립된 각 개발지구별로 해안선을 따라 계획되어 있는 건축물의 높이와 해안선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개발 추진시 환경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토록 한다.

③ 지역주민을 중시한 관광지 개발지구의 도입기능 채택

해안관광지내에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반시설들(도서관, 전시 및 박물관, 중소규모의 의료시설, 수족관 및 휴식공원 등과 같은 문화·복지시설 등)을 도입·개발한다면 외래방문객만을 위한 관광지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지역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지역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버타운지구의 이주민단지와 마린월드지구 등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해안공간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주거, 상업, 업무, 문화, 위락 및 공공자원기능이 일체화 된 혼합용도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해안지역의 환경의 특성과 개발유형에 따라 해안 환경보존을 특별해변지구와 개발이 가능한 일반해변지구로 구분·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

④ 지역특성과 연계하고, 환경특성을 중시한 토지이용계획 추진

해안관광지내 도입되는 시설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해안지역의 특성과 배후시장의 시장조건을 고려하여 생태관광, 농어촌체험관광, 문화·역사관광, 노인휴양 및 회의산업과 같은 주제를 개발대상지역의 여건에 부합되도록 발전시킨다.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시 해안부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개발지구, 유보지구, 개발금지지구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한다. 따라서 현재 꽃지해수욕장지구의 제방의 모래사장 유실과 내륙과 연계되는 사구를 보존할 수 있도록 개발금지지구로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해안관광지로서 환경을 살릴 수 있도록 기존 도입시설을 재검토한다.

특히, 안면도 관광지 해안선의 해수욕장지구의 제방설치에 의한 모래유실의 방지 및 복원대책을 마련하고, 해안변에 사구가 형성된 지역에 방풍림을 조성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추진한다.

3. 안면도 관광지 축진을 위한 추진전략

안면도 국제관광지 축진의 추진전략은 관광지 개발을 위한 계획의 추진전략과 제도적 차원에서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1)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의 추진전략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의 추진전략은 앞에서 제시한 안면도 관광지 개발의 과제를 토대로 제시한 개발의 기본방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전략들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① 안면도 관광지의 차별화된 접근시도

안면도 관광지의 개발에 있어서 국내외와 안면도의 관광환경변화에 맞추어서 차별화된 관광지 명칭과 개발 개념을 정립한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전략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안면도 국제관광지계획의 C.I.P 개발 및 공식 명칭을 주제화
- 「안면도 해양리조트」 또는 「안면도 해상공원」, 「꽃지 해상공원」 - (예; 남원관광단지 →남원춘향테마공원)
- 「안면도 소나무」, 「바다」, 「안면낙조」 등 안면도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을 개발하여 캐릭터화(예; 영덕-“대게”, 남원-“춘향과 이도령”, “광한루”, 경주-“불국사” 등)
- 해양리조트로서 가족단위의 휴양지로서 전체적인 기능 및 시설을 도입

② 「안면도 해양리조트」 활성화를 위한 입지 및 시설 개선

안면도 관광지를 해양리조트로 활성화하여 개발하기 위한 입지 및 시설개선에 있어서는 접근성의 다양화와 야간 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도입이 있다.

- 육상진입외에도 장기적으로 인천 및 대천에서 마리너시설 또는 안흥항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해상접근로를 개설하여 유람선(자동차 운반) 운항(예; 보길도)
- 지역적으로 안면도 관광의 거점지역을 감안하여, 안면읍 또는 「안면도 해양리조트」 단지내에 야간위락활동을 위한 다양한 기능의 도입
- 하절기에 집중이용의 비수기 타개를 위하여 해수욕 이외의 해안관광활동을 위한 기능도입 - 실내해수풀장, 노천해수탕 등 규사, 자갈, 해수를 이용한 건강, 휴양시설의 제공
- 해산물 먹거리 제공을 위한 공간의 확보 - 야간 유흥기능과 동일한 공간으로 하여 상호 보완토록 함

③ 각 지구별 기능도입 및 시설계획상의 개선

안면도 관광지의 각 지구별 기능도입은 꽃박람회 개최 이후 환경변화와 환경보존 및 지역주민의 참여 등을 고려하여 기능도입 및 시설계획의 변경을 추진한다.

- 시설물 계획시 해안사구 및 소나무 군락지 등 자연적 환경을 절대적으로 보존한다는 원칙하에 시설물 설치 필요 - 자연환경 파괴시 해양리조트로서의 기능 상실
- 실버타운지구의 화훼식물원과 온실 등은 테마파크지구의 꽃박람회 소규모 식물광장 및 이벤트 공간, 야생화 온실과 중복되고, 인접 자연휴양림의 자생화 공원과 중복되므로 도입시설을 변경
- 노인휴양홈의 기능을 줄이고 주거기능의 별장과 이주단지 등 지역문화공간을 위한 시설도입으로 관광지의 다각화
- 해안 관광지임을 고려하여 각 지구별로 화장실, 식수시설, 주차장 등 공공편익시설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고, 화장실과 샤워탈의장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데 하나의 시설로 통합
- 각 계절별, 또는 주제별로 이벤트 행사 및 놀이를 할 수 있는 “꽃박람회의 거리”를 조성하여 미니꽃박람회와 이벤트 및 조경공간을 제공(예 ; 남원춘향테마공원의 “동편제의 거리”)
- 카지노시설의 도입은 야간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데, 카지노가 도입되면 민간분양이 잘 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중국과 완전히 개방되고 서해안 개발이 완료되는 장기적인 시점에서의 국가사업으로 가능성이 있으리라 판단됨

4) 안면도 관광지 표적시장 선정과 이벤트 프로그램 계획의 확충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서 보령의 대천해수욕장과 차별화된 개발을 추진하여 경쟁이 아닌 보완관계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이용자의 관광행태 분석으로 표적시장을 선정하고, 이에 맞는 시설공간을 개발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 「안면도 해양리조트」의 1차 표적시장은 수도권, 2차표적시장은 충청권 도시 및 서해안신도시로 하여 모든 시설 및 기능을 구상
- 생애주기별 표적시장은 가족계층으로 어린이, 청소년, 젊은층, 중년층, 노년층 등 가족의 전계층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 구상
 - 어린이 및 청소년층 ; 바다왕국 수족관, 돌로래쇼, 오션돔 등 해양교육차원의 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
 - 젊은층 ; 바닷가의 낭만, 동적활동, 야간위락시설(카페), 캠프장, 민박 등의 시설제공
 - 중년층 ; 콘도, 빌라, 힐집, 해양건강센터 등의 시설 제공
 - 노년층 ; 노인휴양홈, 해양건강센터 등의 보양·휴식시설 제공
- 계절별 꽃박람회 관련이벤트 행사 개최
 - 봄 ; 유채꽃, 보리, 튼립 등
 - 여름 ; 장미, 백합 등
 - 가을 ; 코스모스, 메밀 등
 - 겨울 ; 난 등
- 계절별 지역이벤트 행사 개최
 - 봄 ; 「안면도 해안리조트」 개장식, 안면 봉기 풍어제, 향토예술제 등
 - 여름 ; 철인경기, 비치발리볼, 요트대회, 해상가요제 등
 - 가을 ; 안면 바다요리 경연대회, 안면관광종합축제(지역축제와 병행), 사진, 조각전시회 등
 - 겨울 ; 북극곰 수영대회, 겨울바다 사진촬영대회(안면낙조, 철새 등 안면도의 자연)

⑤ 개발방식 및 민자유치의 참여유도방안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의 추진전략은 앞에서 제시한 안면도 관광지 개발의

- 현재 추진중인 공영개발의 문제점은

- 개발참여자들의 경험부족으로 인한 사업집행의 어려움
- 지역주민과의 보상 및 민원의 협상문제
- 공공시설을 위한 기본자금의 확보문제 등이 있고
- 대책으로는
 - 개발참여자의 해외견학 등 해양관광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넓혀주고 장기간의 업무를 담당하여 사업집행상 공백과 시행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 관광공사 및 민간리조트사업체 등에서 경영참여를 통한 자문
 - 지역주민 참여의 최대 보장 ; 화훼상가, 관광지 주변지역 민박지구 등
 - 외자 및 민자유치를 촉진하고, 콘도미니엄 등 부지분양이 양호한 사업부터 분양을 실시하며, 빠른 분양을 위한 필수적 기반시설을 조속히 완공하고, 우선적으로 현재의 확보된 꽃박람회 장을 최대한 이용하여 임시 해안식물공원, 캠프장, 간이샤워시설 등을 도입 1단계사업으로 운영

2) 안면도 관광지 개발의 제도적 차원의 추진전략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특히, 외자 및 민자유치, 환경문제, 지역주민 참여 등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례를 통해 제도화함으로써 상호간에 협력적인 추진을 가능케할 수 있다.

따라서 가칭 「안면도 관광지 촉진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따라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여기에 실천적인 사업 및 정책을 추진한다.

① 가칭 「안면도 관광지 촉진사업에 관한 조례」 추진

안면도 관광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자 및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환경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사업참여에 관한 사항,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의 추

진을 위한 사업주체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가칭 「안면도 관광지 촉진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촉진한다.

특히, 외자 및 민자유치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기존에 외자유치에 관한 조례와 같이 합하여 통합하여 추진한다.

② 안면도 관광지 개발 추진위원회 설립·운영

조례에 따라서 안면도 관광개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하여 안면도 전체적인 지역개발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가칭 「안면도 관광지 개발 추진위원회」로 설립·운영하되, 위원회의 구성은 공무원, 전문가, 지역단체와 주민, 환경단체, 지역관광협회 등이 참여되도록 한다.

이 단체에서는 안면도 지역 전체적인 관광지 사업의 추진과 개발,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기능을 갖도록 한다.

③ 가칭 「안면도 관광지 투자지침서」 작성

안면도 관광지와 주변지역의 급격한 개발과 민자 및 외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면도 관광지 투자지침서를 작성하여 모든 관광개발사업에 적용한다.

이는 가칭 「안면도 관광지 촉진사업에 관한 조례」의 세부적인 실천지침으로 이러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추진할 경우 외자 및 민자유치에 의한 상호간의 계약과 이윤배분 등을 사업별로 협상하여 사전에 투자지침에 의하여 사업을 검토한 후 추진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관광산업은 21세기의 전략산업으로서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모든 국가는 자국의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 나가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는 인간의 관광활동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관광활동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안면도 국제관광지는 2002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 165만명이 방문하여 73만명 목표의 228%를 달성하는 성공적 개최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관광객의 급증 등 서해안의 관광환경의 변화는 태안해안권에 거점 관광지를 조성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안면도 관광지는 접근성이 양호해지고 이미지가 제고되어 관광지 개발조건이 양호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꽃박람회장의 활용과 안면도 관광지구의 외자유치 문제에 대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을 문제를 제기하는 제약조건 등이 되어 관광지 개발의 촉진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이 승인된 안면도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증가할 국내외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해안의 국제적 거점관광지로서 조성하여 지역의 관광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다.

따라서 안면도를 국제관광지로 개발토록 촉진함에 있어, 관광지 개발에 대한 제반이론을 고찰, 안면도와 주변지역의 관광환경여건을 분석, 기존에 수립된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계획 추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관광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안고 있는 과제로는 관광지 개발의 접근개념, 안면도 관광환경의 변화,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지역의 지형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안면도 관광지 개발의 접근개념은 집중과 분산개발의 조화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면도 관광지를 충남 서해안의 거점관광지로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대천해수욕장·보령관광특구와 아산관광특구와의 관계에서 경쟁관계가 아닌 차별화된 보완관계의 관광지로 개발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의 개발계획에는 경쟁과 보완관계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안면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국제적인 리조트 휴양지가 있는 관광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광지를 거점관광지로 하여 관광기능과 시설물을 한곳으로 중점지구로 개발시키고, 여기에서 안면도 지역의 다양한 소규모 관광자원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집중과 분산의 관광개발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안면도 관광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계획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2002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이 후, 서해안권에서 안면도 관광위상의 제고, 꽃지지구의 활용문제와 병술만·골프장지구의 환경문제, 실버타운지구의 타당성, 관광개발여건 성숙에 따른 지역주민 참여 문제, 외자도입 및 민자유치의 문제 등이 현재 안면도 국제관광지가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따라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 후 급증한 관광객과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조화시키는 계획으로 수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안면도 관광지내 부지특성과 조화된 기능과 시설도입이 필요하다. 안면도 관광지 역시 각 지구별 및 지구내 시설별 기능구성상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입기능과 시설배치를 재편성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특히, 부지전체지구를 운행하는 모노레일 시설은 해안의 경관을 고려하여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테마파크지구는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된 곳으로 향후 꽃박람회의 의미를 지속화 할 수 있도록 도입기능과 시설을 재검토해야 하며, 동시에 실버타운지구의 화훼식물원과 온실 시설은 테마파크지구 시설과 중복되기 때문에 재검토되어야 하며, 주변의 안면도 자연휴양림과의 기능연계와 차별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지구별 기능 및 시설내용이 안면도를 대표할 수 있는 주제화 된 특성을 도입하고, 주민참여형 관광시설과 프로그램이 도입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안면도 관광지 이용자에 대한 표적시장조사 및 이벤트 프로그램 계획이 부족하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에 있어서도 공급자 중심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관광수요시장을 고려한 주요 표적계층이 없이 전국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도입기능 및 시설을 결정하고, 이벤트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충분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기존의 개발계획 보고서에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외 관광시장을 대상으로 이용 계층별, 계절별,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한 표적시장을 선정하고, 이에 맞는 도입기능과 시설, 각종 이벤트 행사 프로그램 및 이벤트 행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광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지역주민이 참여와 연계할 수 있는 시설공간과 프로그램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책제언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계획은 국제적 규모의 해양종합리조트 개발을 목표로 4계절 관광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안면도 국제관광지 추진의 기본방향은 관광개발과 관광지 계획이론의 접근방향과 해안관광지 개발이론과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의 분석에 대한 과제의 개선을 위한 개발의 기본방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안면도 관광환경변화에 따른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으로는 안면도 전체지역을 하나의 관광대상지로서 접근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면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의 관광자원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집중과 분산이 조화된 관광지를 개발하고, 안면도의 주변과 기능을 연계하면서 지역특성을 살리고 꽃박람회 이미지를 제고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안면도의 관광시장에 적합한 표적시장을 선정하여 인근의 보령 대천해수욕장과 차별화된 관광지를 개발하고, 안면도내 다양한 관광자원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관광지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해안관광지로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의 기본방향으로는 공공성을 중시한 개발방식과 사업추진, 개방성을 중시한 해안환경과 경관보존형 관광지 개발, 지역주민을 중시한 관광지 개발지구의 도입기능 채택, 지역특성과 연계하고, 환경특성을 중시한 토지이용계획 추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안면도 국제관광지 축진의 추진전략은 관광지 개발을 위한 계획의 추진전략과 제도적 차원에서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의 추진전략은 앞에서 제시한 안면도 관광지의 과제를 토대로 제시한 개발의 기본방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전략들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안면도 관광지의 차별화된 접근시도이다. 안면도 관광지의 개발에 있어서 국내외와 안면도의 관광환경변화에 맞추어서 차별화된 관광지 명칭과 개발개념을 정립한다.

둘째, 안면도 관광지를 해양리조트로 활성화하여 개발하기 위한 입지 및 시설선에 있어서는 접근성의 다양화와 야간 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도입이 있다.

셋째, 각 지구별 기능도입 및 시설계획상의 개선으로, 안면도 관광지의 각 지구별 기능도입은 꽃박람회 개최 이후 환경변화와 환경보존 및 지역주민의 참여 등을 고려하여 기능도입 및 시설계획의 변경을 추진한다.

넷째, 안면도 관광지 표적시장 선정과 이벤트 프로그램 계획의 확충으로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서 보령의 대천해수욕장과 차별화된 개발을 추진하여 경쟁이 아닌 보완관계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표적시장을 선정하고, 이에 맞는 시설공간을 개발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개발방식 및 민자유치의 참여유도방안으로 개발참여자를 해외건축 등 해양관광지에 대한 개념을 넓혀주고, 지역주민 참여의 최대 보장, 외자 및 민자유치를 촉진한다.

또한,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의 축진을 위하여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특히, 외자 및 민자유치, 환경문제, 지역주민 참여 등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례를 통해 제도화함으로써 상호간에 협력적인 추진을 가능케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면도 관광지 촉진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따라 관광지 개발을 추진한다. 안면도 관광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자 및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환경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사업참여에 관한 사항,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한 사업추체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가칭 「안면도 관광지 촉진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촉진한다.

특히, 외자 및 민자유치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기존에 외자유치에 관한 조례와 같이 합하여 통합하여 추진한다.

둘째, 안면도 관광지 개발 추진위원회를 설립·운영한다. 조례에 따라서 안면도 관광개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하여 안면도 전체적인 지역개발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가칭 「안면도 관광지 개발 추진위원회」로 설립·운영하되 위원회의 구성은 공무원, 전문가, 지역단체와 주민, 환경단체, 지역관광협회 등이 참여되도록 한다.

이 단체에서는 안면도 지역 전체적인 관광지 사업의 추진과 개발,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기능을 갖도록 한다.

셋째, 가칭 「안면도 관광지 투자지침서」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안면도 관광지와 주변지역의 급격한 개발과 민자 및 외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면도 관광지 투자지침서를 작성하여 모든 관광개발사업에 적용한다.

이는 가칭 「안면도 관광지 촉진사업에 관한 조례」의 세부적인 실천지침으로 이러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추진할 경우 외자 및 민자유치에 의한 상호간의 계약과 이윤배분 등을 사업별로 협상하여 계약을 하지 않고 사전에 투자지침에 의하여 사업을 검토한 후 추진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김홍운·김사영 공저, 관광개발론-지역개발적 접근, 형설출판사, 1996.
2. 민창기, “해양관광지 방문객의 관광동기 분석, 한국관광학회 관광학 연구, 제24권 제3호, 통권 제33호, 2001.
2. 문화관광부, 2001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1.
3. 이인배, 충청남도 지정관광지 개발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충남발전연구원, 2000.
4. 인천광역시, 인천국제해안종합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1990.
5. 임주환외, 관광지개발론, 백산출판사, 1998.
3. 윤양수, 지역개발측면에서 본 문화 관광사업 실태와 대책, 국토연구원, 2001.
6. 제주도, 제주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개발계획, 1988.
7. 조재로, “환경친화적인 관광지 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산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8. 충청남도, 「島嶼誌」, 1993.
9. 충청남도, 도정백서, 2001
10.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 기본계획변경, 1997.
11. 충청남도, 안면도 종합발전계획, 1999.
12. 충청남도, 제3차 충청남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안), 2001.
13. 한국관광공사, 관광단지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1993
14. 한국관광공사, 해남 화원 관광단지 개발계획, 1991.
15. 환경부, 「충청남도 지역의 자연환경」. 1998.
16. 前田勇(編), 觀光概論, 東京 學文社, 1984.
17. 除野信道, 觀光社會經濟學, 東京 斗南印刷所, 1985.
18. Clare A . Gunn, Tourism Planning. 1988
19. P. E. Murphy, *Tourism : A Community Approach*, New York : Metheun, 1987.
20. S. Simith, *Recreation Geography*, London Longman, 1983.

■ 집 필 자 ■

이 인 배(李仁培)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관광학 박사(관광개발 전공)

기본연구과제 2002-06

서해안시대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촉진방안

발 행 자 : 김 대 길(충남발전연구원 원장(직))

발 행 일 : 2002년 12월 31일

발 행 처 : 충남발전연구원

302-120 충남 논산시 두마면 금암리 10번지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3층

전화 : (042)841-9455 팩스 : (042)841-9452

인 쇄 처 : (042)-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ISBN : 89-89552-20-6 03910

〈비매품〉